

유라시아 교역로 지역과의
문화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탐험문화연구소

목 차

제1절 서 론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유라시아지역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현황 일반	1
2.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신북방정책에 따른 유라시아 지역 연구 과제	2
3. 광주 동구(東區)가 유라시아 지역과 교류할 필요성 및 비전 제시	3
II. 연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4

제2절 유라시아의 개념과 범위 및 교역로 지역의 확정

I. 유라시아의 개념과 범위	5
1. 유라시아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5
2. 유라시아경제연합, 동북아공동체 등과의 관계	6
3.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관계	7
II. 교역로 지역 및 주요 교류 거점 확정	11
1. 러시아의 문화 이해에 대한 개괄	11
2. 유라시아 횡단로상 도시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교류	16
3. 러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현황	18

제3절 거점 별 주요 도시 현황 조사 (8개 도시)

I. 블라디보스토크	24
II. 달네레첸스크	35
III. 하바롭스크	41

IV. 비로비잔	50
V. 블라고베첸스크	55
VI. 스코보로디노	59
VII. 올란우데	62
VIII. 이르쿠츠크	66

제4절 동구(東區)와 유라시아 지역과의 문화 교류 추진 방안

I. 광주광역시 동구의 현황 및 자원 분석	81
II. 동구(東區)와 주요도시간 교류 방안	83
III. 동구(東區)-시베리아 문화교류 방안	85
IV. (가칭) “광주 동구 유라시아 교류센터”의 설치	122
V. 휴먼네트워크 조성	124
VI. 지속적 교류의 기반구축	130
VII. 문화교류 외 기타 방안	136

제5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143
--------	-----

제1절 서론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유라시아지역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현황 일반

- ▷ 유라시아 지역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터키, 이란 등과 같은 관련국들의 지정학적, 지경학적(地經學的) 정책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장(場)임.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는 NATO의 동진에 따른 신 안보질서의 형성, 다양한 다자지역협력체 형성, 핵무기 확산 및 군비경쟁, 민족, 국경분쟁 등으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임. 지경학적으로는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각종 지하자원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음.
- ▷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유라시아와의 협력은 다양한 체제와 역사·문화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포괄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의미를 가짐
- ▷ 유라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영역에서 그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지금까지 유라시아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정책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단편적이고 제한된 주제에 머물고 있었음. 예컨대 주로 비교론적 시각에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각 국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 및 탈 공산주의 전환 경로, 유라시아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특히 구소련 15개 신생 독립국가들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해석과 국가건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행경로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라시아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신 북방정책에 따른 유라시아 지역 연구 과제

- ▷ 우리나라에서도 유라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는 안보, 외교 분야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지경학적으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공급지로서 그리고 수출시장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높음.
- ▷ 또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를 단일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임. 한반도의 분단이 유라시아 교류협력의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일 FTA체결 등은 동북아평화협력공동체로 이어지고,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의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 특히 한반도의 남북 간 신뢰회복과 경제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 이에 우리 정부는 “동북아 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즉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장기적 평화협력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 북방정책을 도입한 것임.
- ▷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정책과 일맥상통함. 즉 신북방정책은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우선 러시아 극동 등 북방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의 우회적 기반을 조성한 다는 측면을 내포함.
- ▷ 이에 따라 문재인대통령은 작년(2018년)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때 문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제시하였음. 이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임.
- ▷ 이 9개 사업분야 외에도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 예컨대, 동북아 경협관련이나 군사안보관련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을 위한 컨벤션센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사업(이른바, MICE 산업), 환동해 크루즈관광사업 등의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다.

- ▷ 한국의 신 북방정책 과제는 교통·물류·에너지와 관련한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임. 신 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음. 유라시아는 세계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물류의 발전에 따라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비롯해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 중인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요컨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문화적 연계 강화는 한국의 경제영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이에 정부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 일단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교류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자료의 구축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3. 광주 동구(東區)가 유라시아 지역과 교류할 필요성 및 비전 제시

- ▷ 유라시아는 고대문명의 요람,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협력으로 인류문명의 소통과 진보를 이끌어왔음. 동서냉전이 화해모드로 변화되면서 유라시아의 문화인류학적,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커짐.
- ▷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광주·전남이 갖고 있는 경제적·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 지역을 유라시아와의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의 관광문화 등 각종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특히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 동구로서는 유라시아의 문화인류학적, 경제적 가치를 알고 행정·문화·경제적으로 상호교류하여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지평을 넓혀가려 함.
 - 인문적 지향점 : 문화적 다양성 인정, 교류, 포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
 - 경제적 지향점 : 상호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 남북간 통일이라는 대전제가 실현되어 나타나는 엄청난 시너지효과 / 자원과 물자 교역
- ▷ 유라시아지역 중 광주 동구 내지 광주·전남과 문화적 내지 산업 환경이 유사한 지역을 발굴하여 상호 경제적 교류를 함으로써 동구 내지 광주·전남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II. 연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1. 연구 방법

- ▷ 문헌에 의한 조사 : 유라시아 주요 지역에 대한 문헌적 조사
- ▷ 현장 답사 : 실제 답사를 통한 자료 구축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 ▷ 유라시아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 및 그 혼합성의 정도가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연구 단위로서 유라시아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별로 연구함. 이에 따라 제2절에서는 유라시아의 일반적인 개념과 범위를 살피고, 구체적인 교역로 지역을 확정함.
- ▷ 제3절에서는 거점 별 주요 8개 도시의 현황을 조사하는 바, 크게 위 지역의 주요 도시를 1) 자연환경, 2) 사회시스템 및 3) 문화환경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도시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하여 다루기 함. 대체로 1) 자연환경에서는 지리, 토양, 기후, 지형, 자원 등을 다루며, 2) 사회시스템에서는 그 사회의 기본적 이념, 교육제도, 정치형태, 정당 등 선거제도, 기업환경, 토지제도, 도시화 등을 살피고, 3) 문화환경에서는 언어, 종교, 세계관, 신화, 전통과 관습,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양식 등 예술분야를 다룸.
- ▷ 제4절에서 동구(東區)의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제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

제2절 유라시아의 개념과 범위 및 교역로지역의 확정

I. 유라시아의 개념과 범위

1. 유라시아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 ▷ 유라시아(Eurasia)라는 용어는 1883년 출간된 오스트리아 지질학자 쾰스(Eduard Suess)가 “지구의 얼굴”(Das Antlitz der Erde)이라는 책에서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이래 지리학 또는 지질학계에서 받아들여지게 됨. 그 이후 1920년대 러시아 망명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유럽과 아시아와는 다른 독특한 이미지, 즉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연대와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부여함.
- ▷ 최근에는 “유라시아”라는 용어가 지리적 개념인 동시에 문화적 개념 즉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개별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계와 민족적·국가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함.
- ▷ 유라시아와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중앙아시아”와 “중앙유라시아”임. 소련의 붕괴 이후 연방소속국들이 독립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포스트 소비에트”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 중앙아시아는 협의로 소련의 붕괴 후 독립한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을 지칭함. “중앙유라시아”는 내륙아시아의 범위의 넘어 우랄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음.
- ▷ 유라시아 지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가 논의됨. 지역의 속성은 궁극적으로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거시적 단계에서 나타나지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단계에서 결정되는 성질로 파악됨. 이에 유라시아 지역을 구성하는 부분(국가, 민족, 지방 등)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면 곧 지역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유라시아의 전체적인 성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국가나 지방의 성격의 합이 그 총체적 내용이 됨.
- ▷ 유라시아를 실재(實在)하는 구체적인 공간이나 장(場)으로 볼 수 있지만 추상적

으로 만들어진 개념의 장(場)일 수도 있음. 즉 지역을 규정하는 지역성은 미리 정해지거나 이미 구체성을 띠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논리에 의해 지역성이 정해지고, 그 성격에서 지역의 개념이 규정될 수도 있음.

2. 유라시아 경제연합, 동북아공동체 등과의 관계

1) 유라시아 경제연합

- ▷ 소련방 해체 이후 신생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작업을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까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음.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터진 유로존(Euro Zone) 사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등 세계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도록 자극하였음. 그리하여 구소련 지역에서는 다자주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었으며, 상호협력과 경제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역내 공동시장 형성의 필요성이 구소련 국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제기되었음.
- ▷ 이러한 배경 하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유럽연합의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2010년에 관세동맹(Custom Union)을 결성하여 상호간의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3개국 간에 체결된 이 관세동맹은 2012년에 접어들면서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합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 합류하여 마침내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이 출범하였음.
- ▷ EAEU는 출범이후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EAEU는 무역장벽의 제거와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통합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2015년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것이 들어 있음.

- ▷ 따라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유라시아지역내의 특수한 공동체의 하나로 인식되며, 유라시아지역연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

2) 동북아공동체

- ▷ 2004년 11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체제를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당장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의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 주장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의 적극적 동의에 힘입어 2005년 12월 최초의 EAS를 말레이시아에 갖기로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음.
- ▷ 동북아시아대 구상을 추진 중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작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간다는 것이었음. 이 두 작업은 상호 모순적이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었음. 동북아공동체가 현실화되면 동북아 국가들과 기존의 동남아공동체(ASEAN)와의 협력 관계가 보다 체계화되어 양 지역 간의 확대공동체, 즉 동아시아공동체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역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선(先) 진전은 이를 통한 한·중·일 협력 관계의 긴밀화 효과로 인해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 ▷ 유라시아지역을 논의할 때 동북아공동체가 대두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구상에 의하면 러시아도 동북아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그러나 이 연구용역의 대상인 유라시아 지역(내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동북아공동체는 그 범주에 차이가 있음. 동북아공동체는 포괄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최근 “동북아철도협의체”나 “동북아에너지협의체” 또는 “동북아환경협의체”등 개별적인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러시아와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지역을 논의할 때 유사개념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임.

3.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관계

- ▷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32개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14만여km의 도로망을 말함.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 인도를 지나 터키까지 연결되는 21세기 실크로드라 일컬어지기도 함. 이는 아시아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시아 32개국이 기존 또는 신설 고속도로 및 국도 55개 노선을 단일 노선표기로 잇는 것임.

- ▷ 1959년 국제연합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현재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아시아 각국을 유기적으로 결합, 국가 간 경제·문화 교류와 친선을 꾀하기 위해 입안했음. ESCAP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문제를 각국과 상의했으나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중국이 제안한 새로운 노선을 받아들임으로써 추진에 속도가 붙었음.
- ▷ 이에 2001년 서울회의와 2002년 방콕회의에서 각국의 도로망 연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2004년 4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0차 UN ESCAP 총회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 간 협정'에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서명하였음. 이 협정은 19개 조항(노선망, 설계기준, 협정효력, 개정절차, 분쟁해결 등)과 3개 부속서(노선망·경유지, 설계기준, 표시·표지)로 구성되어 있음.
- ▷ 아시안 하이웨이는 계획 초기에는 16개국을 연결하는 42개 노선이었지만 점차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 참여 국가와 노선이 확대돼 32개국, 모두 55개의 노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각국의 기존 도로를 연결시켜 만들게 됨. ASIA의 머리글자 A를 따서 국제간선에는 A1~9번, 동남아에는 A10~39번, 남아시아는 A40~69번, 중동지역은 A70~99번의 번호가 배당돼 있음.
- ▷ 한편 북한과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대상 국가이기는 하지만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공식적인 참여 국가는 29개국임.
- ▷ 우리나라에는 일본 - 부산 - 서울 - 평양 - 신의주 - 중국 - 베트남 - 태국 - 인도 - 파키스탄 - 이란 - 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 - 강릉 - 원산 - 러시아(하산) - 중국 - 카자흐스탄 - 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 등 2개 노선이 통과됨. AH1은 경부고속도로를, AH6는 동해안 7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며, 두 노선의 한국 내 총연장은 907km(AH1 500km, AH6 407km)임.

[참고] 유라시아 횡단도로(아시안하이웨이 6호선, AH6) 주요 경유지



1.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중구 ~ 경상남도 양산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울진군 ~ 강원도 삼척시 ~ 강원도 고성군

2. 북한

금강군 ~ 원산시 ~ 함흥시 ~ 김책시 ~ 청진시 ~ 라선특급시

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우수리스크

4. 중국

쑤이펀허 ~ 하얼빈 ~ 치치하얼 ~ 만저우리

5. 러시아

이르쿠츠크 ~ 크라스노야르스크 ~ 노코시비르스크 ~ 옴스크 ~ (카자흐스탄 경유) ~ 셀라빈스크 ~ 사마라 ~ 모스크바

[참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 개요 및 역사

러시아 철도가 운영하는 철도로 러시아 모스크바의 야로슬라블 역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의 블라디보스톡 역 구간을 연결하고 있는,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 최장거리의 세계구급 철도. 보통은 영문 약칭인 TSR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19세기 과감한 동진정책으로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은 자연스

럽게 아시아권과 태평양 연해의 항구적 지배 및 개발을 위한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연히 철도망의 건설은 필연적인 과업이었고, 특히 크림 전쟁으로 흑해 입구에서의 해운이 막혀버리게 된 러시아 제국에게는 베이징 조약으로 중국에게서 연해주를 떼어와서 시베리아 끝에 얻은 관창은 항구 블라디보스톡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1891년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칙령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를 착공했다. 러시아 제국 전역과 해외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했는데 유럽인은 물론 러시아 영토로 이주했던 수천 명의 중국인, 한국인(고려인)까지 대거 동원되었다. 노동자들은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에, 여름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생긴 질척한 환경에서의 바글바글한 모기떼에 시달렸다. 1898년에 부분개통되어 이르쿠츠크에서 첫 번째 열차가 출발했다.



◆ 주요노선

1. 블라디보스톡(0km) ~ 치타(3,090km)

※ 블라디보스톡(0km) ~ 달레네첸스크(441km) ~ 하바롭스크(766km) ~ 스코보로디노(1,984km) ~ 치타(3,090km)

2. 치타(3,090km) ~ 이르쿠츠크(4,103km)

※ 치타(3,090km) ~ 올란우데(3,650km) ~ 이르쿠츠크(4,103km)

3. 이르쿠츠크(4,103km) ~ 노보시비르스크 (5,94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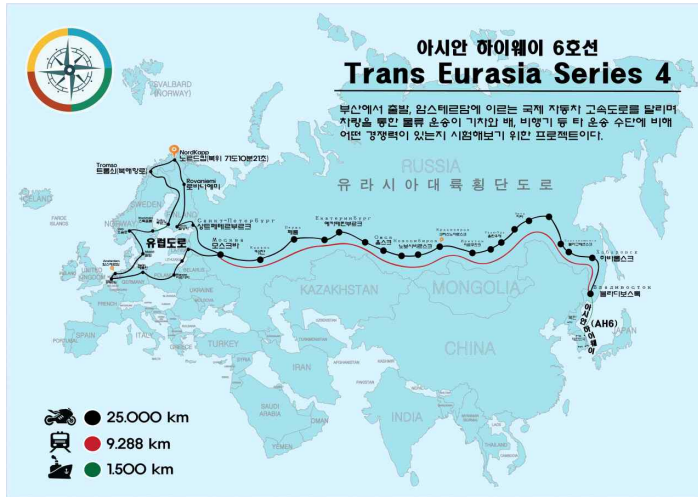
4. 노보시비르스크 (5,945km) ~ 예카테린부르크(7,474km)

5. 예카테린부르크(7,474km) ~ 니즈니노브고로드(8,847km)

6. 니즈니노브고로드(8,847km) ~ 모스크바 (9,288km)

II. 교역로 지역 및 주요 교류 거점 확정

- ▷ 이 연구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장 방문 및 조사 대상 도시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6번 노선(AH6) 및 시베리아 횡단열차 노선 상에 있는 지역에 있음.



- ▷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에 이르는 횡단로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주요도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류거점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함.

1. 러시아의 문화 이해에 대한 개괄

- ▷ 러시아의 문화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에트 시기까지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문화를 형성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대중적인 문화가 확산됨.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에서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었고, 이는 소비에트 시대적 관념과는 상반된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보편화 문화현상을 보임.
- ▷ 러시아 문화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영향으로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가 형성되었음. 구소련이 붕괴 후, 러시아 문화는 관념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양식의 문화로 발전됨.

< 러시아 문화 분석 >

구분	영역	주요 내용
생활문화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교의 수용으로 육식금지기간을 적용하여, 식사 때의 간단한 종교적 의례와 종교축일 고유의 음식 등 종교적 교의가 스며들 - 13세기 초반 몽골의 침입과 지배로 사슬릭, 요쿠르트, 치즈 등을 요리하는 법과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먹는 음식문화가 발달 -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에 의해 상류층 식단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음식의 고급화가 등장 - 17세기와 19세기를 걸쳐 러시아 영토의 급속한 팽창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음식문화를 수용 - 러시아 혁명 이후, 종교적 색채는 사라지고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해 음식문화의 변화가 도래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기와 15세기 주거지 형태는 '셀로', '제레브나', '포고스트', '포치노크'이며, 당시 지역 촌락의 행정적 및 경제적 상황을 유추 - 1917년 혁명 이후, 농기구조에서 거주공간이 강조되었으며, 산업발달과 현대화로 인해 주택이 개량되기 시작 -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산업과 도시발달로 인해 아파트와 목조 가옥이 등장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바하', '루바슈카' 등 남녀 또는 신분제에 따라 옷이 구분되어 발달
축제 및 전통명절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 축제 '스바트키',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하지 축제 '이반 쿠파라'
	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성의 날(3.8)', 국제 노동자의 날(5.1), '승리의 날(5.9)'
문화	발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초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용을 민중 오락으로 채택 - 19세기 샤를루이 디드로는 러시아 발레를 정착시키고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발레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발전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의 문화가 유입, 새로운 양식을 가지게 되면서 러시아 민중음악 형성 기틀 마련 - 19세기 러시아적인 국민음악을 창출 -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전쟁과 혁명에 의해 예술창작 활동에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며, 러시아 음악사를 '은시대'라고 정의 -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대중음악이 상업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발전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장면을 촬영한 것부터 영화의 역사가 시작 - 20세기 초 최초 영화사가 설립되었고, 천여 개의 영화관이 설립 -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은 변화된 영화계의 상황과 관객의 새로운 취향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구분	영역	주요 내용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받아들인 교회미술이 시작 - 18세기 이후, 고전주의 미술양식이 등장 - 19세기 민족적, 민중적인 예술관을 형성하기 시작 - 19세기 후반, 사실주의가 등장하면서 풍속 화가들에 의해 러시아 미술을 새롭게 발전 - 20세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확산되면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상실 - 최근 러시아 예술은 이전의 개념주의 예술로부터 벗어나 그 주제의 의미가 보다 더 명확히 강조되고 작품 활동에도 영향을 줌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이전 러시아 건축물은 교회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동형 지붕 - 20세기 소비에트 시기, 규모는 장대하고 가결한 네오클래식 건축양식이 기본이었고, 구질서와 종교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대량 파괴 - 현재 러시아 대도시들은 외국 자금의 유입으로 다양한 양식의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미학적인 즐거움을 선사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이전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민속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 공연 - 19세기 이후, 민중속에 예술문화를 심어주어 대중 극장이 등장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표트르 대제, 문자개혁을 통해 러시아 근대 문학 발전의 토대 마련하고, 문화적 르네상스, 고전주의 문학 등의 장르가 등장 - 19세기 낭만주의, 모더니즘에 따른 문학이 발달 - 20세기 신사실주의, 형식주의 문학 장르가 등장하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비에트 문학 및 예술의 기본 이론으로 채택 - 제2차 세계 대전은 러시아 문학에 창작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스탈린 사후 '해방기 문학'과 전통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등장

자료 :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2009)

1) 언어

- ▷ 러시아어는 인도유럽어족의 동슬라브어군에 속하고, 슬라브어파의 언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며 러시아의 공용어임.
- ▷ 이 언어는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및 벨라루스어와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와도 약간의 단어가 비슷하고, 동부 러시아어는 카자흐어나 몽골어의 영향도 극소수로 받는 편임.
- ▷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총 4개국임.
 - 러시아 : 공용어
 - 벨라루스 : 벨라루스어와 함께 공용어 지정

- 카자흐스탄 : 카자흐어와 함께 공용어 지정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어와 함께 공용어 지정

- ▷ 러시아어가 공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나라는 3개국이고, 그 나라는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어가 공용어이지만, 대부분 러시아가 많이 통용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에서는 공용어로 지정
 - 타지키스탄 : 타지크어가 공용어이지만,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

2) 종교

- ▷ 러시아의 종교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및 불교 등 다양하며,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최대의 전통종교임.
 - 그리스도교 45.6%(동방정교회 42.5%, 그 외 그리스도교 4.1%)
 - 이슬람교 6.5%
 - 전통종교 1.2%
 - 불교 0.5%
 - 기타 1.7%
 - 무신론 43%

3) 민족 구성

- ▷ 러시아의 민족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민족과 여러 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
- ▷ 러시아 민족은 그 지역 전체 민족의 79.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수민족은 타타르족을 포함 6개 민족은 20.17%를 차지함.



< 러시아의 민족 구성 >

(단위 : 천 명, %)

	2010		2002		'02년 대비 '10년 비율 (%)
	인원수 (단위 : 천 명)	비율 (%)	인원수 (단위 : 천 명)	비율 (%)	
총인구	142,856.50	100	145,164.30	100	98.74
러시아인	111,016	77.71	115,868.50	79.82	96.67
타타르인	5,311	3.72	5,558.00	3.83	100.65
우크라이나인	1,928	1.35	2,943.50	2.03	67.47
바쉬키르인	1,585	1.11	1,673.80	1.15	124.42
추바쉬인	1,436	1.01	1,637.20	1.13	92.31
체첸인	1,431	1	1,361.00	0.94	151.39
아르메니아인	1,182	0.83	1,130.20	0.78	212.28
모르도바인	744	0.52	844.5	0.58	78.71
벨라루스인	521	0.36	814.7	0.56	67.54
아바르초인	912	0.64	757.1	0.52	139.17
카자흐인	648	0.45	655.1	0.45	103.02
우드무르트인	552	0.39	636.9	0.44	89.1
아제르바이잔인	548	0.38	604.8	0.42	93.96
마리초인	548	0.38	604.8	0.42	93.96
독일인	394	0.28	597.1	0.41	70.89
카바르딘초인	517	0.36	520.1	0.36	134.71
오세티아인	529	0.37	514.9	0.35	127.99
다르진초인	589	0.41	510.2	0.35	144.41
부라티아인	461	0.32	445.3	0.31	106.68
아쿠트인	478	0.33	444	0.31	116.78
쿠미크인	503	0.35	422.5	0.29	152.42
잉구쉬인	445	0.31	411.8	0.28	191.45
레즈긴인	474	0.33	411.6	0.28	159.97
기타	10,049.50	7.03	5,780.00	3.98	143.21

주 : 전체인구의 10%인 1,450만 명이 회교도

유대인 : 23만 명

자료 : 「2013 러시아 개황」 외교통상부(2013)

4) 민족적 특성

- ▷ 러시아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민족적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문화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침.
- ▷ 민족적 개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경제라는 가치와 국제사회의 힘의 대응에 따라 유라시아 이론을 통해서 민족적 함의와 러시아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함.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에 대한 민족 정체성 변화

구분	사상	주요 내용
19세기	· 서구주의	-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라는 상반된 방향성 대두
	· 슬라브주의	- 문화, 예술, 정치체제, 사회에 크게 영향을 줌
19세기 중후반	· 범슬라브주의	- 러시아가 '역사 축'으로서 종교와 언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는 슬라브 민족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을 의미 -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슬라브 민족의 연대를 추구
20세기 초반	·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에서 특정 요소들을 취사선택하고 유라시아 정체성을 도입하면서 '러시아 이념'과 결별 - '다민족 정체성'을 표방하여, 당시 몽고의 지배를 동슬라브 민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역사과정으로 간주
	· 유라시아 지역주의	- 현대 문화에서 발생하는 혼종 정체성과 초문화 현상이 배경 - 문화, 문명, 경제, 환경, 사회정치, 초문화가 주된 관심
21세기	· 유라시아주의	- 푸틴 등장 이후, 경제적 · 군사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 -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대응 -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벨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

자료 : 노어문화(2014) 재구성

2.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교류

가. 유라시아 횡단로 상 문화교류의 역사

1) 유라시아 문화환경

가) 문화권역의 분류

- ▷ 유라시아의 자연환경, 문화, 종족, 언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의 4개 권역으로 분류 가능함.
 - 1권역 : 중국, 한반도, 만주, 동부 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부 지역
 - 2권역 : 몽골, 중국 신장성 지역, 알타이 북부지역
 - 3권역 : 중앙아시아 5개국, 러시아 지역
 - 4권역 : 터키, 중동지역
- ▷ 이들 권역은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캄차카반도에 이르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언어, 사상, 종교, 민족 등이 다양하고 차별성이 강함.
- ▷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시베리아와 캄차카반도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제1권역에 해당함.

나) 문화적 특성

- ▷ 유라시아에는 3대 문명과 그 외 각각 다른 소단위 문명들이 생성 소멸해옴.
- ▷ 유라시아 시베리아의 문화는 특별히 한민족과 연관이 깊음. 한민족의 기원과 문화원형은 언어학적으로 알타이 문명권에 속하며,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 ▷ 시베리안 샤머니즘은 유라시아의 원시문화를 관류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님. 시베리안 샤머니즘에서의 우주론은 세계를 살아있는 동물에 빗대어 보는 것이 특징으로, 중동세계는 엘크라는 사슴, 중앙아시아에서는 곰을 토템으로 간주.
- ▷ 이슬람, 동방정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며,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통시적으로나 동시적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2) 한국과 러시아 문화교류

가) 시베리아 초원길

- ▷ 이 지역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초원과 사막을 통해 교통과 통신이 확장되어 왔으며, 물류와 문화 교류 활동이 복잡하게 전개됨.
- ▷ 유라시아의 복잡성과 다양성 속에서 유라시아는 교류와 확장의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의 역사를 유발시키면서 공존해옴.

나) 문화교류의 역사

- ▷ 원시신앙의 형태인 시베리안 샤머니즘은 정령숭배 사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조상숭배 신앙이 강함. 동물숭배, 나무, 산, 새에 대한 숭배사상이나 거울, 북, 타악기, 솥대, 장승 등에 대한 벽사의 의미는 모두 샤머니즘에 기원을 두고 변형된 사유체계의 도상들임.
- ▷ 고대국가의 건립으로 삼국은 중앙아시아, 중국 등의 나라들과 유목 문화, 불교문화, 기마문화 등을 수용하였으며, 유럽의 문물이 수입되기도 하였음.
- ▷ 10세기 중반 이후 고려시대 때는 해양무역이 발달하였으나, 원나라 때부터 대륙과 연계됨.
- ▷ 19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영토확장 이후부터 조선인들의 만주, 연해주 이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된 후 고려인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음.

다) 시베리아 문화의 공통적 특성

- ▷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 민족, 문화 등에서 동질적인 요소가 많음.
- ▷ 초원길, 살림길, 사막의 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쳐옴.
- ▷ 이 지역의 공간의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지경학적,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와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3. 러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현황

가. 공공 부문

1) 중앙 정부

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러시아 간 MOU

▷ 2018년 6월 22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MOU서명식을 개최함.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철도, 가스 분야 등의 협력을 다룬 협약으로, 총 12건의 MOU가 체결됨.

① 한-러 FTA관련 공동선언문

- 협약주체 :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경제개발부
- 주요내용 :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추진 등 합의
- 기대효과 : 한-러 상호투자 촉진 및 우리 업계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한-EAEU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

② ICT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 주요내용 : 초고속 인터넷,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세미나 등 실시
- 기대효과 :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국간 및 제3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 마련

③ 한-러 체육교류협력 MOU

- 협약주체 :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스포츠부
- 주요내용 :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장애인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스포츠과학 및 체육 인프라 협력, △스포츠 경영 및 반도핑 분야 협력
- 기대효과 : 주요 스포츠행사 등을 계기로 양국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

④ 한-러 사회복지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보건복지부 - (러)노동사회보장부
- 주요내용 : 양국의 사회보험시스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협력
- 기대효과 :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책·제도 발전을 통한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

⑤ 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사업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분당서울대병원 - (러)모스크바시
- 주요내용 : 분당서울대병원의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진출을 위한 협

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종합병원급 최초 러시아 진출사례로 우리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 등 연관산업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

⑥ 한-러 철도공사간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코레일 - (러)철도공사
- 주요내용 : △철도 및 물류분야 사업 공동개발 및 이행, △남북러 3자 프로젝트에 대비한 공동연구, △해외시장 및 제3국에서의 협력 등 추진
- 기대효과 : 한-러 철도·물류 관련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북방 지역 진출 기회 창출

⑦ 북극 LNG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가스공사 - (러)노바텍
- 주요내용 : 북극 LNG-2 사업 참여 및 장단기 LNG 구매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 하고 새로운 가스시장 개척 관련 공동연구 추진
- 기대효과 : 북극 LNG-2 투자·구매 등 관련기업간 비즈니스모델 마련 및 협력 강화

⑧ 세브란스병원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세브란스병원 - (러)직접투자자금
- 주요내용 :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 대상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 기대효과 : 건강검진 분야 우리 의료기술 산업의 향후 러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

⑨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MOU

- 협약주체 :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경제개발부
- 주요내용 : 한러 혁신센터 신설 및 한러 과기협력센터 기능확대를 통해 △공동 R&D, 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육성 협력, △양국 시장정보 교류
- 기대효과 :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교류와 공동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기회 제공

⑩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 MOU

- 협약주체 : (한)외교부 - (러)극동개발부
- 주요내용 : 러시아 극동지역 및 우리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자체간 포럼 설립을 통해, 경제·문화·예술·교육 등 다방면의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추진

- 기대효과 : 한-러 양국간 최초로 추진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참여 저변 확대

⑪ 한-러 전력 분야 협력 정부간 MOU

- 협약주체 :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에너지부
- 주요내용 : △양국 전력망 연계,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포함한 전력 분야 협력 강화, △동 관련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간 협의 채널 구성 등
- 기대효과 : 양국 전력계통 연계 협력을 통한 남북러 전력망 연결의 기반 조성

⑫ '2020 한-러 상호교류의 해' MOU

- 협약주체 :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문화부
- 주요내용 :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 지정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주빈국 참가 등
- 기대효과 : 문학·음악·발레 등 문화 분야 강국인 러시아와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 우리문화의 질적 향상 및 한-러 문화 분야의 장기 협력 기반 마련

나) 문재인정부 한-러 정상회담 계기 별도 MOU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 협약주체 : (한)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 (러)과학아카데미 원장
- 주요내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 연구기관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의 500여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활성화
- ※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 Russian Academy of Science)
3개 지역(시베리아, 우랄, 극동) 21개 지역센터 산하 500여 연구기관 집적, 총 연구원 5만 6천여명을 보유한 러시아 과학연구센터

② 한-러 특허협력 MOU

- 협약주체 : (한)특허청장 - (러)특허청장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지재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 행정 적용, 3D 디자인 출원 등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활성화

③ 한국무역협회-로스콘그레스 간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한국무역협회장 - (러)로스콘그레스 이사장
- 주요내용 :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사업개발 등

④ 한국산업기술진흥원-러시아벤처컴퍼니 간 MOU

- 협약주체 :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벤처컴퍼니 원장
-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분야 협력 강화,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노하우 공유, 양국의 산업 트렌드와 기술동향 공유, 프로그램 상호 홍보

⑤ 한-러 플랜트분야 협력 MOU

- 협약주체 :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플랜트산업협회(KOPIA) 회장 - (러)기업인연합회 회장
- 주요내용 : 한국 기업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 진출 등을 위한 노력,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조달과 투자 특전 자문, 러시아 기업정보 제공 등의 협력 강화

⑥ 대러시아 투자협력 MOU

- 협약주체 :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러)산업개발펀드 사장
- 주요내용 : 자원 조달, 투자인센티브 확보, 현지 파트너 발굴 등 러시아 투자진출 희망 한국기업 지원기반 조성

⑦ 한-러 공동펀딩형 R&D 추진을 위한 MOU

- 협약주체 :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혁신기업재단 이사장
- 주요내용 : 신시장 창출을 목표호 국내 기업과 러시아 연구자 간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제품 상용화관련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

다) '13~'15년의 유라시아 관련 교류

- ▷ '13년-'15년 동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점으로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수출하고 '15년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콘텐츠 사업 및 확장을 계획
 - 외교부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운영 중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사업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책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

2) 지방자치단체

- ▷ '13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의 관련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성동구는 '10년부터 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 경상북도와 이스탄불 시는 문화엑스포를 '13년부터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 및 역사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문화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나. 민간부문

1) 교육 기관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정책 연구는 국내 우수 대학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 유라시아 해당 국가의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학술회 등도 활발히 활동 중임.

2) 연구 기관

- ▷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유라시아 지역에 대하여 각 국가별 지역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관련 지역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분석함.
- ▷ 연구 및 학술 자료 등 DB를 구축하고 공유함으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정책 및 학문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줌.

제3절 거점 별 주요 도시 현황 조사

I.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위치>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도>

1. 개관

- ▷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어: Владивосток, “동쪽의 지배자”라는 뜻)는 중국 및 북한과의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황금혼만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러시아

극동 연방 지구와 연해주 크라이의 도시로서,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이자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행정중심지임.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출발점이자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문호임.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항이며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큰 러시아 항구임.

- ▷ 2018년 현재 이 도시의 인구는 604,901명으로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에서 기록된 592,034명에서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이 도시는 길이 약 30km에 폭 12km인 무라비오프아마르스키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음. 가장 높은 지점은 257m(843ft)의 홀로딜니크 산임. 아시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보다 지리적으로 앵커리지, 알래스카, 심지어 호주의 다윈에 더 가까우며,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소치보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까움. 중국 하얼빈이 약 515km(320mi) 떨어져 있고, 일본 삿포로에서는 동해를 거쳐 약 775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2. 명칭 및 어원

- ▷ 블라디보스토크는 1859년 니콜라이 무라비오프-아머스키에 의해 피터 대제 걸프 지역의 다른 특징들을 감안하여 처음 명명되었음. 이 명칭은 처음 이 만(bay)에만 적용되었지만, 1860년 알렉세이 셰프너의 탐험 이후 새로운 정착지에 적용되었음.
- ▷ 만주의 청나라(1644~1911)가 만주 대부분 지역(블라디보스토크 지역 포함)으로 한족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인삼이나 해삼을 찾아 불법으로 들어온 쉐나이(參賊, 인삼 또는 해삼 도둑)만이 방문하였음(중국에서는 인삼과 해삼에 대하여 모두 중국어 쉐(參)을 사용함). 이로 인하여 이 도시의 중국식 이름은 하이셴웨이(Hǎishēnwāi ; 海參崴, 보통 "해삼 절벽"으로 번역)으로 불리움. 현대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직까지도 Hǎishēnwāi(海參崴)가 중국 본토 밖에서 공통어법으로 쓰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번역어인 符拉迪沃斯托克(Fúlādīwòsītōukè)가 사용되고 있음.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지도에는 중국 명칭이 함께 표시되어야 함.. 현대 일본어로 이 시의 명칭은 우라지오쓰토쿠(ウラジオストク)로 번역되고, 역사적으로는 이 도시 명칭을 간지로 우라지오(ウラジオ; 浦塩)로 표기된다. 한국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북한과 중국에서는 “울라지보스토크”로 사용되고 있음.

3. 역사

- ▷ 현대 블라디보스토크가 위치한 영토의 원주민은 우데지(Udege) 소수민족이며, 근방의 중국인과 헤제(Hezhe)가 섞인 토착 우데지족의 구성원을 통해 등장한 타즈(Taz)라고 불리는 하위 소수민족임. 이 지역은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1860년)에 의해 해양 전체와 사할린 섬을 획득하기 전까지 모헤(Mohe), 발해 왕국, 요나라, 진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일부였음.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없었음. 청나라인 중국의 만주국 황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만주 지역에서 한족에게 금지령을 내렸음(이른바, Willow Palisade; 청나라가 만주로의 이동을 제한하려고 버드나무가 심어진 도랑 및 제방시스템을 구축함). 이에 따라 그곳에는 오직 인삼과 해삼의 불법 채집자들이 방문했을 뿐임.
- ▷ 1860년 6월 20일(양력 7월 2일)에는 알렉세이 셰프너 선장이 지휘하는 군 보급함 만주루(Manchur)가 골든 혼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전초기지를 찾아왔음. 28명의 군인과 2명의 니콜라이 코마로프 준위는 미래 도시의 첫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니콜라예프스콘아무르에서 온 것임.
- ▷ 1868년 만주전쟁은 러시아가 통제했던 영토에서 중국인을 추방하려는 첫 시도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러시아인들이 금광업무를 중단하고 중국 노동자들을 추방하려 하자 교전이 벌어졌음. 중국인들은 아스홀드 섬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저항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군국 두 곳과 러시아 도시 세 곳이 러시아인들이 축출하지 못한 중국인들의 공격을 받았음.
- ▷ 1870년대 초에서 1890년대 후반 사이에 정교한 요새 체계가 세워졌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와 나가사키로 가는 전신선이 1871년에 개통되었음. 같은 해에 상업용 항구가 니콜라예프스콘아무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되었으며, 1880년 4월 22일에는 도시 지위가 부여되었음. 시베리아 호랑이를 대표하는 문장이 1883년 3월에 채택되었음.
- ▷ 1916년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완공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되었음.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장악했음. 러시아 내전 동안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에 의해 전복되었는데, 그들은 이 도시를 연합국의 보호령으로 선포했음.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본,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인 연합군의 시베리아 개입의 집결지가 되었고, 중국은 상인에 대한 요구로 현지 중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이 개입은 1919년 백인 정권이 붕괴된 후 끝

났고, 일본군을 제외한 모든 연합군은 1920년 말까지 철수했음.

- ▷ 1974년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와 제럴드 포드가 전략무기 제한을 위한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양국은 핵무기 시스템에 대한 양적 한도를 결정하고, 신형 지대지 ICBM 발사대의 건설을 금지했음.
- ▷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제24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의 러스키 섬에서 만났음. 러스키 섬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의 개보수나 업그레이드 외에도 리조트, 저녁 식사, 오락 시설 등을 개설했음. 정상회의에 대비해 두 개의 거대한 케이블 스테이 브리지가 건설되었는데, 도시 중심부의 줄로토이 로게 만을 가로지르는 줄로토이 로게 다리, 본토에서 러스키 섬(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 스테이 브리지)이 그것임. 극동연방대학교의 새로운 캠퍼스는 2012년에 러스키섬에 완공되었음.

4. 행정시스템

- ▷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 크라이(krai)의 행정 중심도시임. 행정 구역의 틀 안에서, 그것은 다섯 개의 농촌 지역과 함께 크라이(krai)의 관할권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시로 통합되어 있음.
- ▷ 블라디보스토크는 다음 5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음.

가. 레닌스키 구 (Ленинский рай он)

도심지로부터 동쪽 지역들을 포함한 구로서 구 이름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이름에서 따 왔음. 관광지로는 혁명광장과 황태자 개선문, 굽 백화점, 독수리 전망대와 중국 시장 등이 이 구에 위치해 있음.

나. 페르보마이스키 구 (Парвомай ский рай он)

금각만 남쪽 지역들을 포함한 구로서 구 이름은 노동절에서 따왔음. 원래는 금각만 남쪽으로 외파로 튀어나와 있었으나, 2012년 금각교가 개통되면서 도심지와 바로 연결되었음. 남쪽에 외파로 떨어진 포포프 섬과 레이네게 섬도 여기에 들어가며, 관광지로는 마린스키 극장이 있음.

다. 페르보레첸스키 구 (Первореченский рай он)

시내 북쪽 지역에 위치한 구로서 구 이름은 이 일대를 흐르는 개천 이름에서 따 왔음. 주로 주거 지역으로 광활한 아파트숲이 있음.

라. 소베츠키 구 (Советский рай он)

북쪽 교외 지역에 위치한 구임. 대체로 공항과 시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세단카나 우골나야 등의 지역이 이 구에 있으며, 구 이름은 소비에트에서 따 왔음.

마. 프룬젠스키 구 (Фрунзенский рай он)

도심지와 서쪽 지역에 위치한 구로서 구 이름은 소련의 군인이자 혁명가인“미하일 프룬제”(1885-1925)에게서 따 왔음. 블라디보스토크 역이 위치한 곳으로 아르바트 거리나 해양공원을 비롯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도심지에 해당하는 곳임. 토카렙스키 등대가 위치한 에게르셀트 반도가 이 구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 건너 루스키 섬 전체와 서쪽 멀리 아무르 만 건너편에 있는 페스차니 콧 역시 이 구에 속함.

5. 기후

- ▷ 블라디보스토크는 장마로 인해 습한 대륙성 기후(Köppen 기후 분류 Dwb)를 가지고 있으며, 따뜻하고 습하고 비가 오는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날씨를 보이고 있음. 시베리아 고지대의 영향으로 인해 1월 평균 -12.3°C(9.9°F)의 낮은 고도와 해안 위치를 감안할 때 북위 43도보다 겨울은 훨씬 추움. 여름에는 해양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추운 연간 기후를 보이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의 연간 평균 약 5°C(41 °F)는 다른 극단에서 유럽의 비슷한 해안 위도에 있는 프랑스 리비에라의 도시보다 약 10도 낮고, 겨울은 특히 어떤 북쪽의 가장 온화한 해안선보다 20°C(36°F) 정도 더 추움. 겨울에는 기온이 -20°C(-4°F)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온화한 기후로 인해 낮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음. 주로 눈의 형태로 월평균 강수량은 12월부터 3월까지 약 18.5mm(0.73인치)임. 겨울에는 눈이 흔하지만, 1월에는 최대 눈 깊이가 5cm(2.0인치)에 불과할 정도로 개별 적설량이 가볍고, 겨울에는 맑은 날이 많음. 여름은 동아시아 장마로 인해 따뜻하고, 습하며, 비가 자주 내림. 가장 따뜻한 달은 8월로, 평균 기온은 +19.8°C(67.6 °F)임.

6. 정치

- ▷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시장은 연방법, 연해주 크라이의 법률, 시의 헌장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행정을 집행함. 시정의 구조는 시의회를 상위에 두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행정은, 연방법, 블라디보스토크 두마(Duma)의 규범적 법률행위, 블라디보스토크 시의장의 명령 등에 따라 집행됨.

- ▷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마(Duma)(의회)의 결정에 의해 지정된 방식으로 시재산을 사용 및 처분하고, 도시의 영토 및 기반 시설의 사용을 통제하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함.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마(Duma)가 승인한 도시 개발을 위한 개념,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
- ▷ 입법권은 시의회(Duma)에 귀속되어 있음. 새로운 시의회는 2001년 6월 21일에 시작되었고, 2007년 12월 17일, 제3차 두마가 시작되었다. 의회는 35명의 대의원으로 선출위원으로 구성됨.

7. 경제

- ▷ 블라디보스토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개인 사업과 국제 무역, 관광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국제 심포지움과 학술 회의가 자주 열리고 태평양 함대의 모항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해군 함대들이 친선 사절로 오고 있음. 주된 산업은 조선업과 고래·게 등 어업, 어류·해산물 가공업, 군항 관련 산업임. 선박수리, 목재 가공, 식료품 공업도 활발함. 남동쪽의 나홋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개방된 상업항, 어항으로 러시아의 극동을 향하는 제2의 문호임.
- ▷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은 해운, 상업, 어업임. 블라디보스토크 생산의 거의 5분의 4를 어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식품 생산 총계는 11%임. 매우 중요한 고용주이자 도시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은 일본 자동차 수입 회사가 제공하고 있음. 이 회사는 판매원 외에도 수리공, 피팅공, 수입 점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선박 및 철도 회사도 경영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 딜러들은 연간 25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2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 연해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동차 수입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여기에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블라디보스토크 내 자동차 수입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함.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인 쏘러스의 공장 한 곳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 공장은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약

700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연간 1만3200대를 생산한다 함.

8. 교통

- ▷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태평양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유럽 및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것임. 1905년에 완공된 이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주요 도시 몇 곳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운행됨.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라시아 육교의 시베리아 횡단 부분의 주요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극동의 주요 항공허브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VVO)은 러시아 극동항공 소속 오로라 항공사의 본거지로서, 에어로플로트의 자회사임. 오로라 항공사는 2013년 에어로플로트가 SAT항공과 블라디보스토크 아비아를 합병해 만든 항공사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은 2013년 모든 항공기 유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는 3500m의 새로운 활주로를 개통했음. A터미널은 연간 350만 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규모로 2012년에 지어졌음.
- ▷ 블라디보스토크는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의 최동단인 우수리 고속도로(M60)의 출발점이며, 다른 주요 고속도로는 동쪽으로 나홋카, 남쪽으로 하산까지 연결됨.
- ▷ 1908년 6월 28일, 루고바야 거리의 철도역에서 운행하는 스벳란스카야 가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전차 노선이 개통되었고, 1912년 10월 9일에는 벨기에에서 제작된 최초의 목차가 운행에 들어갔음.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롤리버스, 버스, 전차, 기차, 펑크렌트, 페리보트가 이용되고 있음. 도시의 주요 교통 회선은 City Centre - Vtoraya Rechka, City Centre - Pervaya Rechka - 3ya Rabochaya - 발랴예바, City Centre - Lugovaya Street임.
- ▷ 2012년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의 개최에 대비해 도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했는데, 이 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케이블 다리가 건설되었음. 도시 중심부의 골든 혼만을 가로지르는 졸로토이 로게 다리와 본토에서 정상 회담이 열린 러스키 섬까지의 다리가 그것인데, 후자의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 가설 교량으로 알려져 있음.
- ▷ 항구는 연중 무빙이며(얼음 차단기의 도움으로), 2015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과 함께 경제특구가 정착됐음.

9. 교육

▷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다음과 같은 5개 대학을 포함,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음.

- 극동연방대학
- 해양 주립 대학교
- 극동 주립 기술 수산 대학교
- 블라디보스토크 주립 경제 서비스 대학
- 블라디보스토크 주립 의과대학(태평양 주립 의과대학)

10. 미디어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50개 이상의 신문과 모스크바 지방판이 발행되고 있음. 연해주 크라이와 러시아 극동 전체의 가장 큰 신문은 1996년 초 발행 부수가 124,000부인 블라디보스토크 뉴스이며, 주간 영자신문 블라디보스토크뉴스도 발행함. 이들 신문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의 주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주요 국제 행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줄로토이 로그(Golden Horn)신문은 경제 뉴스를 보도하며, 연예 자료와 문화 뉴스는 연해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보스티 신문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들을 위한 러시아 극동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대중매체는 극동타임즈임. 블라디보스토크는 뉴스블, 프리메디아, 프리모레이 등 많은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고 있음.

▷ 7개의 라디오 방송국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송국은 24시간 VBC(612KHz, 101.7 MHz)와 유로파+ (738KHz, 104.2 MHz)임. 유로파+는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현대 영국 - 미국 음악을 방송하며, VBC에 비해 러시아어와 외국 노래의 비율은 반반임. 매 시간 이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지역 뉴스를 들을 수 있으며, 라디오 블라디보스토크(1098kHz)는 06시부터 01시까지 운영되고 있음. 그것은 신세대뿐만 아니라 1950-1980년대의 음악에 관한 몇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음.

11. 문화

가. 극장

▷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이름을 딴 막심 고리키 학술극장은 1931년에 설립되어, 드라마, 뮤지컬, 어린이 연극 공연에 이용되고 있음. 2012년 9월, 배우 울

브린너(1920~1985)의 화강암 동상이 알류츠카야 15번지의 태어난 집 바로 앞을 브라이너 공원에 설치됨.

나. 박물관

▷ The Arsenyev Primorye Museum 외에도 시내에 3개 박물관(아르세네예프의 현충원 포함)이 있으며 주 내 다른 곳에도 5개 지점이 있음.

다. 음악

▷ 이 도시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음. 러시아의 록 밴드 무미 트롤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이며, 종종 이 곳에서 쇼를 함. 또 1996년 9월 '블라디록스토크' 국제음악제가 열림. 시장과 주지사가 주최하고 두 명의 젊은 미국 이민자들이 주최한 이 축제에는 거의 1만 명의 관객과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참가하였다 함.

▷ 블라디보스토크 록스 국제음악제 및 컨퍼런스(V-ROX)에서는 또 다른 연례 음악 축제가 열림. 블라디보스토크 록스는 음악 산업과 현대 문화 경영을 위한 3일간의 국제적인 야외 도시 축제임. 그것은 예술가 지망생과 프로듀서 지망생들에게 새로운 관객들과 선도적인 국제 전문가들에게 노출될 기회를 제공함. 러시아 오페라 하우스에는 주 연해주 오페라 발레 극장이 있음.

12. 공원

▷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원과 광장에는 포크로프스키 공원, 미니 고로덕, 데츠키 라즈블라텔니 공원, 세르게야 라조 공원, 스칼스키 스키버 등이 있음.

가. 포크로프스키 공원

▷ 포크로프스키 공원은 한때 공동묘지였음. 1934년에 공원으로 전환되었지만 1990년에 문을 닫았음. 1990년 이래로 공원이 있는 땅은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고, 정교회 재건 과정에서 무덤이 발견되었음.

나. 미니 고로덕

▷ 미니 고로덕은 91에이커(37ha)의 공원임. Minny Gorodok은 영어로 "Mine Borough Park"를 의미함. 이 공원은 원래 1880년에 설립된 군사기지였고, 이 군사기지는 지하창고에 지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음. 1985년에 공원으로 개조된 미니 고로덕에는 여러 개의 호수, 연못, 그리고 빙상 스케이트장이 있음.

다. Detsky Razvlekatelny Park

- ▷ 테츠키 라즈블카텔리 공원(Detsky Razvlekatelny Park)은 도심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공원임. 이 공원에는 카루젤, 게임기, 관람차, 카페, 수족관, 영화관, 경기장이 있음.

13. 공해

- ▷ 지역 생태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의 상당 부분이 오염되어 있으며, 그 교외에 사는 것은 건강상의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지질화학 전문가 세르게이 쉘리코프에 따르면, 이 오염은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함. 블라디보스토크는 약 80개의 산업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가장 산업화된 지역에 비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시 주변의 사람들은 특히 조성과 수리, 발전소, 인쇄, 모피 농업, 광업과 같은 산업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는 오염의 영향을 합성하는 특히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함. 바람은 바람이 불어오는 분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페르바야와 비토라야 레흐카 주변의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몇몇 지역의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임.

14. 스포츠

- ▷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클럽 FC 루치-에네르기 야 블라디보스토크, 콘티넨탈 하키 리그 체르니셰프 디비전의 아이스하키 클럽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농구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농구 클럽 스파르타크 프 리모리 등이 있음.

15. 자매결연 도시

- ▷ 대한민국 : 부산(1992.2.21.), 인천(2012.6.30.)
- ▷ 일본 : 니가타시(1991. 2. 28), 아키타(1992. 6. 29), 하코다테(1992. 7. 28)
- ▷ 중국 : 랴오닝성 다롄시(1992. 9. 10), 옌볜 지린(吉林)성(2011. 5. 18), 헤이룽장성 하얼빈시(2017. 6. 15)
- ▷ 미국 :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1991. 9. 10), 워싱턴 타코마(1992. 2. 25), 알래스카 주노(1992. 2. 21)
- ▷ 에콰도르 : 만타(2009. 10. 29)
- ▷ 말레이시아 : 코타 키나발루(2010. 3. 15)

16. 유명 인사

▷ 학자

- 이고르 안소프(Igor Ansoff), 수학자 (1918~2002)
- 피터 A. 부드버그(Peter A. Boodberg), 러시아 언어학자(1903~1972)
- 리아 그린펠트(Liah Greefeld), 학자(1954~현재)
- 이고르 탐(Igor Tamm), 물리학자, 수학자(1895~1971)
- 빅토르 조토프, 식물학자(1908~1977)

▷ 예술·체육 관련

- 이반 바실리에프(Ivan Vasiliev), 발레 무용수 (1989~)
- 율 브린너(Yul Brynner, 영화 배우(1920~1985)
- 나탈리아 포고니나(Natalia Pogonina), 체스 선수(1985~)
- 알렉세이 볼콘스키(Aleksey Volkinskiy), 카누리스트(1978~현재)

▷ 작가

- 유진 코즐로프스키(Eugene • ozlovsky) 연극, 영화감독, 작가(1946~현재)
- 레프 크냐제프(Lev Knyazev), 작가(1926~2012)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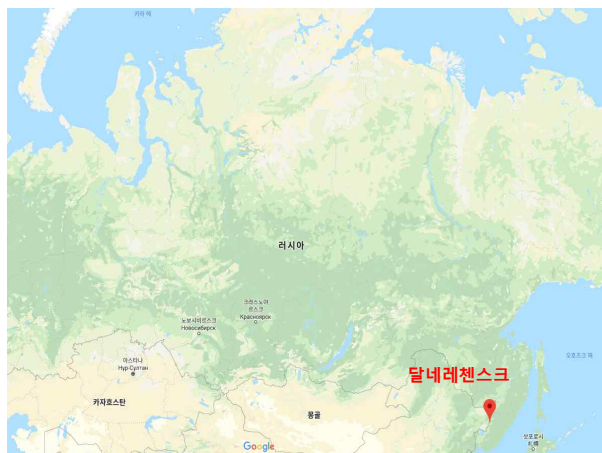
-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Vladimir Arsenyev), 탐험가(1872~1930)
- 안나 슈치티나(Anna Shchetina), 세계최초의 해양탐사선 여성선장(1908~1999)
-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Stanislav Petrov), 반전주의자(1939~2017)
- 이동휘(Yi Dong Hwi), 한국 공산주의자(1873~1935)

17. 住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외교부 핫라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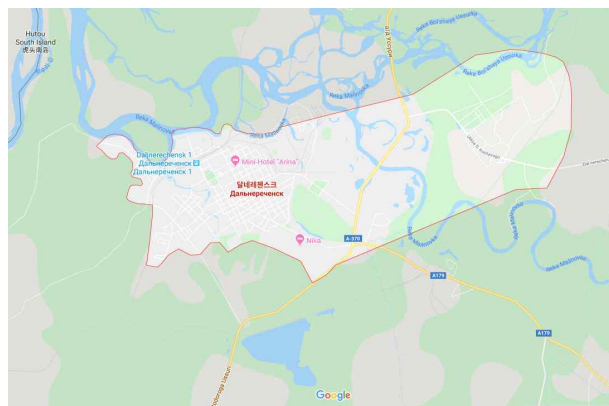
▷ 住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住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대한민국 교육부 설립)

II. 달네레첸스크



<달네레첸스크의 위치>



<달네레첸스크의 지도>

1. 개관

- ▷ 러시아 동부, 프리모르스키 지구(후술 참조) 서부의 도시인 달네레첸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볼자자 우수리(위대한 우수리) 강의 왼쪽 독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통로이며, 그 경계는 도심에서 불과 5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이만 강 하류 연안에 있

기 때문에 옛 이름은 이만(Iman)이라고도 함.

- ▷ 달네레첸스크는 행정적으로 그 지역에 직접 위치해 있는 같은 이름의 Rajon의 행정 중심지임. 이 도시에는 남서쪽에 위치한 라소 마을과 389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세 개의 작은 마을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 단위인 달네레첸스크의 총 인구는 31,790(2009년)임.
- ▷ 날씨가 맑은 경우, 도시의 어느 지점에서나 시크호테알린의 급경사를 볼 수 있고, 우수리강 독에 있는 멸종된 화산인 살스카야 언덕도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 타이가와 광천, 라스토치카와 슈마크코카, 수많은 호수와 강, 풍부한 맑은 날들, 그리고 마을의 조용하게 측정된 삶은 달네레첸스크를 지역 관광 명소가 만들고 있음.

2. 역사

- ▷ 1859년 코삭스에 의해 그라프스카야(Графская)의 스타니타로 설립되었고, 후에 1894년 하마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의 철도 건설과 연계하여 이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쪽 구간임. 철도역과 정착지의 명칭은 후에 이마(중국어 伊曼/이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음. 이 정착지는 이 지역의 소나무, 전나무, 그루터기나무로 인해 빠르게 목재 중심지가 되었고, 1917년에 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음.
- ▷ 러시아 내전 동안, 이 도시는 러시아 극동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도시 중 하나였고 심하게 파괴되었음. 1920년 5월 말, 일본군에 의해 체포된 세르게이 라소, 알렉세이 루즈키 등 세 명의 볼셰비키인이 무라비오보-아마르스카야 철도역에서 백인군 코삭스에 의해 증기 기관차의 화차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고 전해지며, 이 사건은 나중에 구소련에서 과장되게 선전되었음. 그 이후 사망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 지역의 많은 다른 장소와 도로들의 이름이 라조로 바뀌었음.
- ▷ 1969년, 우수리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 있었고, 그 결과 1972년 중국 원산지의 지리적 명칭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일어나 강과 도시에서 사용되던 이마(중국어 伊曼)라는 이름이 바뀌어 졌음.

3. 문화와 관심 지역

- ▷ 이 도시에는 20세기 초부터 특이한 건물들이 있음. 1908년에 지은 쿤스트와 알

버스라는 상업회관이 있고, 1913년에 지은 교회가 있으며, 그리고 1860년 우수리지역의 러시아 지배시절에 만들어진 요새를 보존하고 있음. 또한 도시 역사에 관한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1969년 우수리 사태로 사망한 소련 군인들의 추모센터도 있음.

4. 행정 및 시군지위

- ▷ 행정구역 상 달네레첸스크는 달네레첸스키 자치구(Okrug)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함. 즉 행정 구역으로서, 그것은 네 개의 시골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주(크라이:Krai) 관할 구역의 정비에 따라 달네레첸스크 타운으로 분리 통합되었는데, 이 행정 구역은 그 지역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행정 단위임. 그 후 크라이 관할권 하의 달네레첸스크 타운(Dalnerechensk Town)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네레첸스키 자치구(Dalnerechensky Urban Okrug)로 통합되었음.



사진 : 유라시아 횡단 - 러시아 구간의 베이스 캠프, 달네레첸스크.
인구 삼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우수리 강이 도심 외곽을 흐른다.

5.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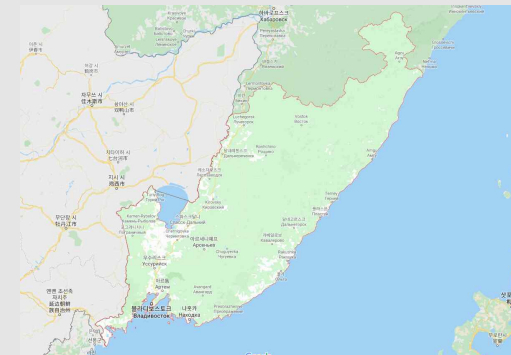
- ▷ 달네레첸스크는 습한 대륙성 기후(Köppen)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건조하고

매우 추운 겨울과 매우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보이고 있음. 연평균 기온은 +1.5°C(34.7°F)이며, 7월의 온도는 +20.7°C(69.3 °F)이고 1월에는 -17.7°C(0.1 °F)임.

6. 경제 및 인프라

- ▷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목재 산업이며, 나아가 식품 산업과 건축 자재 산업도 활발함. 도시의 경제는 주로 JSC 레스 수출, JSC 프리모르스키 DOK, JSC Dalnerechensky Lesokombinat 등과 같은 목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참고> 프리모르스키 지구



< 프리모르스키 지구 >

- ▷ 프리모르스키 지구는 러시아극동에 위치한 러시아의 지방임. 프리모르스키는 러시아어로 "바다와 접해 있다"를 뜻함. 한자로 연해주(沿海州)라고도 불림. 행정 중심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이며, 면적은 16만5,900km², 인구는 207만 1,210명임(2005년기준).
- ▷ 프리모르스키 지방은 서북쪽으로 중국, 서남쪽으로 한반도, 동쪽과 남쪽으로 동해와 접하고 있음.
- 국경의 길이 : 3,000 km 이상, 해상국경 1,350km 포함
 - 최고점 : 아닉산 (1,933m)
 - 큰 도시 : 블라디보스토크(613,400명), 나홋카(174,600명), 우수리스크(156,000명), 아르툼(111,500명)
 - 호수 : 한카호(озероХанка,興凱湖)가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걸쳐있다.

◆ 역사 ◆

- ▷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연해주에 최초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아시아인들과 통구스인들이었음. 5 ~ 6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에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 됨. 나나이, 우데게, 에벤키같이 통구스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아직도 연해주와 아무르주에 거주하고 있음.
- ▷ 698년부터 926년까지는 발해가 이 지역을 통치하였음. 발해는 연해주 외에도 만주와 한반도북부를 통치했으며, 만주와 이 지역의 일부를 통치하였던 고구려의 후예와 통구스 계통의 말갈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발해는 동아시아의 중세봉건국가로, 농업, 목축 등의 산업과 함께 고유의 전통과 예술을 발전시켰고, 당나라와 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음.
- ▷ 1115년부터 1234년까지 극동 러시아의 남쪽 부분은 보다 강력한 제국인 여진족의 금나라가 지배하였는데, 여진족은 통구스계의 민족임. 유목과 농업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또한 야금, 조선(造船) 등의 산업이 있었음. 금나라는 발해와 마찬가지로 송, 고려,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북중국을 점령한 금나라는 꽤 강한 국력을 과시하였음.
- ▷ 금나라는 몽골 제국칭기즈 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고, 이후 300년 이상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독특한 동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음. 그러나 이 지역과 만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만주족(금나라여진족의 후신)이 17세기초 중국 대륙을 정벌하고 청나라를 건설하면서 청나라의 영토가 되었음.
- ▷ 17세기중엽 러시아 제국이 헤이룽 강(黑龍江, 아무르 강) 방면으로 남하하면서 청나라와 충돌하였음(청-러시아 국경 분쟁). 1689년에 양국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스타노보이 산맥을 국경으로 정하고, 연해주는 계속 청나라에 속하게 되었음. 그러나 제2차 아편 전쟁(1856년- 1860년)으로 청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러시아 제국은 남진하여 1858년 하바롭스크를 건설하였음.
- ▷ 니콜라이 무라피요프 - 아무르스키 백작으로서의 러시아가 해안지방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음. 러시아는 1858년에 체결한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 강(헤이룽 강, 黑龍江)의 이북 지역을, 1860년에 체결한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 강동쪽인 연해주를 차지하였음.

- ▷ 1859년부터 1882년 사이에 95개의 정착지가 건설되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도 이 시기에 건설되었음. 당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 수렵, 생선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음. 19세기 말엽에 석탄채굴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또한 케일, 녹용, 목재, 게, 건어물, 해삼 등도 수출되기 시작하였음. 1905년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랄산맥 아래의 첼라빈스크까지 개통되었음.

- ▷ 1920년 3월 12일에는 니콜라엠프 사건으로 독립군과 붉은 군대는 일본군과 백군을 전멸시켰음. 러시아 내전이 끝난 1922년부터 이 지역의 발전은 러시아를 새로 차지하게 된 볼셰비키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 어업과 광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철도와 해운업 역시 발달했음..

◆ 주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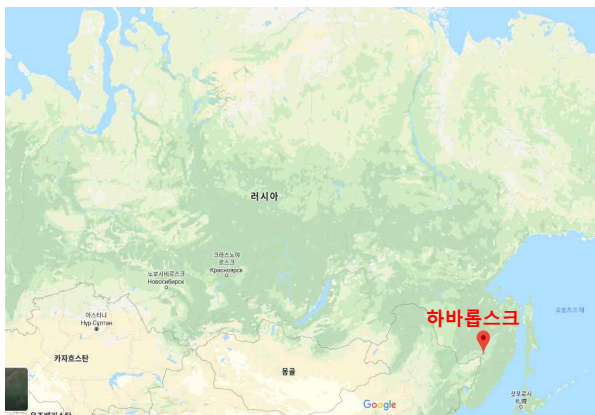
- ▷ 대부분이 러시아인이거나,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한국인(주로 고려인, 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출신), 일본인, 중국인, 우데게족, 오로치족, 나나이족, 폴란드인, 타타르족, 독일인, 유대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등 여러 소수민족들이 거주한다.

◆ 주요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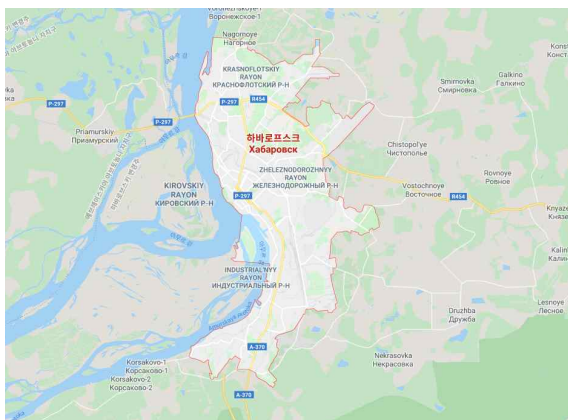
아래 도시들은 "Primorsky Krai(연해주)"의 소속 도시이고 인구 5만 미만이면 영어로 편의상 town(읍), 그 이상이면 city(市)라고 불리움)

-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Primorsky Krai의 행정중심도시)(604,901명)
- 나홋카(Nakhodka, city - 159,719명)
- 우수리스크(Ussurisk, city - 158,004명)
- 아르툼(Artyom, city - 102,603명)
- 아르세니예프(Arsenyev, town - 56,750명)
- 볼쇼이 카멘(Bolsshoy Kamen, town - 39,257명)
- 달네고르스크(Dalnegorsk, town - 37,519명)
- 달네레첸스크(Dalnerechensk, town - 27,604명)
- 파르티잔스크(Partizansk, town - 38,659명)
- 스파스크 달니(Spassk-Dalny, town - 44,173명)
- 레소자보츠크(Lesozavodsk, town - 37,034명)

Ⅲ.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의 위치>



<하바롭스크의 지도>

1. 개관

- ▷ **하바롭스크**(러시아어: Хабаровск, 중국어: 伯力)는 하바롭스크 지방의 주도로써 인구 약 60여만이며, 하바롭스크 지방의 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이자 극동지방 최대의 도시임. 우수리강(江)과의 합류점에 가까운 헤이룽강(江) 중류 우안(右

岸)에 있는 요충지로서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며, 헤이룽강 수운의 중심을 이루는 하항(河港)이 있음. 17세기 중엽 러시아 탐험가인 “E. P. 하바로프”(아무르강 유역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현대적인 도시는 1858년에 군사전초기지로 건설되었음. 1905년 시베리아 철도의 부설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였음.

- ▷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달리 극동군구의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풍격을 간직하고 있음. 한때 소비에트 연방의 멸망 이후 소련 극동의 수도였던 1926년부터 1938년까지 아시아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하바롭스크를 드나들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도시에는 여러개의 다층 쇼핑몰과 약 12개의 호텔이 있음. 하바롭스크 크라이 문화부 장관 알렉산드르 페도소프는 2015년 밴디월드 챔피언십 이후 이 도시가 관광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그러나 2018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수도로 종전의 하바롭스크 대신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대체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음.
- ▷ 아무르 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하바롭스크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시베리아의 차가운 이미지를 씻어버릴 만큼 고풍스런 건물들이 줄지어 아무르 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많은 언덕과 강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오솔길, 극동의 역사를 간직한 시내는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음. 시기(市旗)에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하바롭스크의 시기(市旗)>

2. 역사

가. 하바로프의 요새

- ▷ 17세기 중반 아무르 계곡은 러시아 코삭스와의 적대관계의 현장이 되어 이 지역으로 확장하여 토착민들로부터 조공을 거두려 하고, 떠오르는 만주 청나라가 그 지역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게 되었음.
- ▷ 1650년대의 러시아 탐험가들과 습격자들은 아무르에 요새화된 많은 수용소들을 세웠는데, 그 대부분은 불과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나중에 파괴되었음. 오늘날 하바롭스크의 일반 지역에 최초로 그런 캠프가 생긴 것은 아칸스크(Ачанск) 또는 아칸스키 고로덱(Ачанский)이라는 요새화된 겨울 캠프였는데, 이들은 1651년 9월 상류 아무르에서 그 지역으로 항해한 후 예로피 하바로프의 코삭스(Cossacks of Yerfey Khabarov)에 의해 건설되었음. 이 요새는 하바로프의 사람들이 "아찬스"라고 부르는 지역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음. 이미 10월 8일, 요새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어업을 위해 떠나 있는 동안 아칸스와 공작부대의 합동군에 의해 성공하지 못했음.
- ▷ 1652년 3월 24일(혹은 26일) 아칸스크 요새는 닝구타의 사령관 하이세가 이끄는 만주 기병대의 공격을 받았고, 코사크스는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공격자들의 보급 열차까지 간신히 점령했음. 1652년 봄에 아무르의 얼음이 깨지자 하바로프의 사람들은 요새를 파괴하고 항해를 떠났음.
- ▷ 하바로프 아칸스크의 정확한 위치는 오랫동안 러시아 역사가들과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오늘날의 하바롭스크의 상류와 하류 모두, 러시아 학자 중 최초로 이 지역을 방문한 리처드 마크가 1859년 카이버스크 상류의 아무르(중국) 해안에 위치한 케이프 키르마(Кап Кырма)의 유적과 함께 아칸스크를 확인한 이후, 많은 장소가 제안되었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하바롭의 아칸스크가 나중에 오드살볼론(러시아어::Болонь)으로 알려진 나나이 마을에 하바롭스크보다 아무르스크에 더 가까운 오드살볼론이라고 믿었던 보리스 폴보이의 견해임. 그의 주장 중 하나는 하바로프의 아찬과 1652년의 교전에 대한 중국 기록의 우즈랄라(乌扎拉羅)가 모두 나나이 씨족 '오드살'(Оджал)'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세기 마을의 이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었음.

나. 청제국

- ▷ 네르친스크 조약(1689년) 이후 이 지역은 다음 세기 반 동안 청제국의 영역이 되었음. 중국에서 발행된 청시대의 근대 역사지도는 미래 하바롭스크의 부지를 볼리(중국어:伯力)로 표기하고 있고, 중하류 아무르 지방은 모두 명목상 지린성의 일부였으며, 처음에는 닝구타에서, 나중에는 지린 시에서 나왔음.
- ▷ 1709년 어수리와 아무르를 따라 항해한 프랑스 예수회들은 이 지역의 최초의 다소 정확한 지도를 준비했다. 그들에 따르면, 원주민 나나이족은 어스큐리와 돈돈 강 하구(즉, 미래의 하바로프스크 부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아무르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에게 유평 다지("피쉬 스킨 타타르")라고 알려져 있다.

다. 러시아로 이관

- ▷ 1858년 아이군 조약에 따라 이 지역은 러시아에 양도되었고, 러시아인들은 예로피 하바로프의 이름을 딴 하바로프카(Хабáровка)의 군사기지를 세웠음. 그 자리에는 후에 그 지역의 중요한 산업 중심지가 되었음. 1880년에 도시 지위가 부여되었고, 1893년에 현재의 이름이 부여되었음.
- ▷ 1916년에는 아무르를 가로지르는 하바롭스크 다리가 완성되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페리(또는 겨울에 얼은 강 위에 임시 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음.
- ▷ 하바롭스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전 후, 하바롭스크 전쟁범죄 재판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관동군의 전 대원과 731부대가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사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음. 또한 만주에서 소련군에 포로로 잡힌 푸이 천황은 하바롭스크로 옮겨져 1945년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1950년까지 그곳에서 살았음.
- ▷ 1956년 11월 5일 도시 전차의 1단계가 착공되었고, 하바롭스크 텔레비전 스튜디오는 1960년에 방송을 시작했음. 1967년 9월 1일, 하바롭스크 체육 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극동 주립 체육 문화 아카데미로 바뀌었음. 1971년 1월 14일 하바롭스크는 10월 혁명훈장을 수여받았고, 1975년에는 도시 전차의 제1단계가 개통되었음. 1976년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를 개최되었고, 1981년에

는 밴디 월드 챔피언십이 이 도시에서 열렸음.

- ▷ 1996년 하바롭스크는 첫 시장 선거를 치렀음. 1998년 하바롭스크 중앙광장의 재건축이 완료되었음. 2000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연방구 구성을 선언했고, 하바롭스크는 극동 연방구의 중심이 되었음.
- ▷ 2006년에는 러시아의 국가 보건 프로젝트에 따라 첨단 의료 센터인 심혈관 수술 센터가 건립되었음. 2008년에는 기차역이 완전히 개조되었고, 인접 광장은 분수와 지하 통로를 포함하도록 재구성되었음. 2009년 하바롭스크는 EU-러시아 정상회담을 주최했고, 2010년에는 우수리 코삭스 대회가 개최되었음. 2012년 11월 3일 하바롭스크는 "군사 영광의 도시"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음.

3. 지리

- ▷ 북위 48도 42부, 동경 135도 12부에 있음. 아무르 강의 우안에 있고,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바로 아래에 자리잡고 있음. 모스크바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경유로는 8,523km의 지점에 있고 7시간의 시차가 있음.
- ▷ 중국과의 거리는 불과 30km 남짓임.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중소 국경 분쟁으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합류점에 있는 대우수리섬(중국명: 黑瞎子島)을 두고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 두 나라가 섬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경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

4. 기후

- ▷ 몹시 추운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1월 평균 기온은 -19.8°C 이고, 7월 기온은 $18\sim 22^{\circ}\text{C}$ 임. 연평균 강수량은 682mm로 주로 여름에 집중되며, 11월에서 3월까지는 강수량이 거의 없음. 가장 건조한 해는 2001년으로 강수량은 381mm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내린 해는 1,105mm가 내린 1981년이었음.

5. 행정 및 시군지위

- ▷ 하바롭스크는 하바롭스크 크라이(Krai)의 행정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행정 구역으로서 하바롭스크 크라이의 도시로서 별도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는 구역의 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행정 단위임. 시분할로서 하바롭스크의 크

라이 밖의 도시로 하바롭스크 어번 오크루그가 있음.

- ▷ 다음과 같은 구로 나뉘어 있음.

- 중구 (Центральный район) - 92,642명 (2015)
- 그라스나플로즈끼 구 (Краснофлотский район) - 90,620명 (2015)
- 키롭스끼 구 (Кировский район) - 52,948명 (2015)
- 철리즈나다로쥬니 구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район) - 151,217명 (2015)
- 인두쓰드리알니 구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район) - 219,789명 (2015)

6. 교통

- ▷ 교통의 요지로 중국 국경과 상당히 가까우며, 시베리아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시베리아 횡단 도로가 지나감(M58부터 M60까지 구간). 즉 하바롭스크역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중요한 거점이며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향하는 밤 철도지선의 분기점이기도 함.
- 하바롭스크 공항을 통해 극동의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음.
- 아무르 강과 우수리강이 물길로 이용되고 있음.
- 시내 교통으로는 트램 (8개 노선), 트롤리 버스 (4개 노선), 버스와 구간 택시 등 (약 100개 노선)이 운용되고 있음.

7. 경제

- ▷ 기계(배·농기·디젤기관·전기·공작기) 제작, 금속공업, 제유, 목재 가공, 식료품 등의 공업이 발달해 있음. 또한 철가공, 철강 제철, 하바로프스크 조선소, 기계, 석유 정제, 밀가루 제분, 제약 산업, 육류 포장 및 다양한 종류의 중·경기계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음.
- ▷ 고속 국제 광섬유 케이블이 하바롭스크 시와 중국 푸위안 시를 연결한다.

8. 자매결연도시

- ▷ 일본 니가타 시(1965년)
- ▷ 미국 포틀랜드(1988년)
- ▷ 미국 앵커리지

- ▷ 캐나다 빅토리아(1990년)
- ▷ 중국 하얼빈(1993년)
- ▷ 중국 무단장
- ▷ 대한민국 부천시(2002년)
- ▷ 프랑스 빌리르반
- ▷ 중국 쑤아(2011년)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진시 (2011년)

9. 스포츠

- ▷ 하바롭스크에서는 아이스하키, 축구, 밴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아이스하키팀 아무르 하바롭스크는 콘티넨탈 하키 리그의 체르니쇼브 디비전에 참여하고 있음.
 - 축구팀 FC SKA-에네르기야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내셔널 풋볼 리그에 소속되어 있음.
 - SKA-네프탸닉 하바롭스크(러시아어: SKA-Нефтяник)는 러시아 밴디¹⁾ 퍼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 밴디팀임.

10. 유명인

- ▷ 스포츠
 - 예브게니 플루셴코(Evgeni Plushenko) : 러시아의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선수. 2006, 2014 동계 올림픽금메달리스트(1982~현재)
 - 올렉산드르 알리예우(Oleksandr Aliyev): 우크라이나의 축구선수(1985~현재)
 - 이반 스코브레프(Ivan Skobrez) : 러시아의 스피드 스케이팅선수(1983~현재)
- ▷ 기타
 - 에피 젤마노프(Efim Zelmanov) : 러시아의 수학자. 1994년에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음(1955~현재)
 - 알렉산드라 이바놉스카야(Alexandra Ivanovskaya) : 2005 미스러시아 (1989~현재)

1) 밴디(영어:bandy) 또는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하키는 얼음판 위에서 치러지는 동계 스포츠의 하나임. 스케이트를 타며 막대기를 이용해 상대팀의 골대로 공을 집어 넣는 경기이며, 이 스포츠의 규칙은 축구와 많은 유사점이 있음. 축구 경기장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각 팀은 11명 씩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함. 일반적인 밴디 경기는 45분씩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른다. 오프사이드 규칙도 축구와 매우 비슷함.

11. 수상(受賞)

- ▷ 하바롭스크는 2006년, 2008년, 2009년 각각 "러시아의 가장 발전되고 편안한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 ▷ 2010년 하바롭스크는 포브스가 선정한, 러시아에서 민간 사업에 가장 적합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음. 당시 1등은 크라스노다르였음.

12. 교육

- ▷ 다음의 대학들이 있음.
 - Pacific National University(former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 극동국립인문대학교 - historical department
 -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of Humanities(former Khabarovsk State Teachers Training University)
 - Far Eastern State Medical University
 - Khabarovsk State Academy of Economics and Law
 -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 Far Eastern Academy of Public Service
 - Far Eastern State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 Khabarovsk State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 하바롭스크 국립문화예술대학



<극동국립인문대학교>

13. 문화

- ▷ 1894년 하바로프스크에 러시아 지리학회 학부가 설립되어 도시 내에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이후 하바롭스크의 문화생활은 번창했음. 지역 토착 역사의 상당 부분은 지역 로어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1만 3천년 전의 절벽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카치알리안의 나나이 정착지 근처 같은 곳에 잘 보존되어 있음. 하바롭스크 미술관은 러시아 옛 상점물들을 소장하고 있음.

14. 소결

- ▷ 매년 100만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방문,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광주 동구와 많이 닮았음. 동구의 '포용하는 도시'('동구 인문도시 기본계획' 참조)와 유사한 지향점이 있음.
- ▷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거리가 불과 30km이고 중국과 분쟁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 도시를 통한 중국과의 우회적 교류가능성도 높음.
- ▷ 첨단 의료센터인 심혈관 수술 센터(2006년 설립), 고랭카 무용단(하바롭스크 교육 기관 학생들로 구성됨) 및 수많은 대학들과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여지가 있음.
- ▷ 동구의 청소년 인문교육 정책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청소년 교육과 교류 시작 가능함.

- ▷ 동구와 하바롭스크 청소년의 국제교류 추진(안)

- 주관처 : 동구 - 「동구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 위원회」,
하바롭스크 - 하바롭스크시청 청소년과

※ 하바롭스크시청 청소년과

- 주 소 : 680000, 칼 마르크스 스트리트, 66(680000, ул.Карла Маркса, 66)
- 전 화 : (4212) 40-89-99
- 이메일 : gmp@khabarovskadm.ru

- 방식 : 참여학생 선발 후 격년제 상호 방문
- 교류내용 : 문화·역사 탐방, 친선경기 등 스포츠교류 등

[사례] 2019년, 하바롭스크시청 청소년과 주최, 9~11학년(중3~고2) 학생들을 위한 국제협력학교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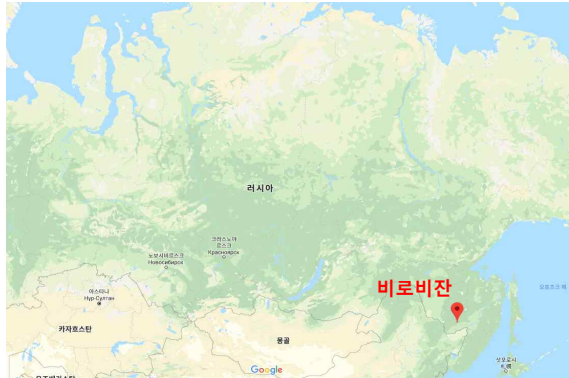
- 2019년 11월 29일 15:15에 9-11 학년 학생들을 위한 국제 협력 학교 개설, 극동연방 교통 대학교 OPORA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지부 공동 프로젝트의 "국제 협력 학교"개설.
-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전망을 창출하고, 학생들을 자국의 합당한 대표자로 교육하고, 문화 간 대화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젊은이들을 주요 지역에 소개하는 것.
- 조직의 원칙과 경제 및 관리 활동의 이론적 기초 등 국제 협력 학교의 교육은 한 달에 두 번 무료로 수행.
- 학교 학생들은 9 ~ 11 학년 하바롭스크시의 중학교 학생이며,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학생들은 무료로 수업을 제공.
- 2019년 11월 29일 15:15에 FESU (하바롭스크, 47 Serysheva St.)에서 개장.
- 전화 : OPORA Rossii의 하바롭스크 지부, 청소년 사회부 40-89-94, 28-43-06



- ▷ 住 하바롭스크 한국외교부 핫라인

- 住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하바롭스크 영사관은 없음)
- 住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대한민국 교육부 설립)

IV. 비로비잔(Birobidzhan)



<비로비잔의 위치>



<비로비잔의 지도>

1. 개관

- ▷ 비로비잔은 러시아유대인 자치주의 주청(州廳) 소재지이며, 비로비잔스키 군과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그 군청이 소재함. 부레야산맥 남쪽 기슭 헤이룽강(江) 중류 유역 분지에 자리하는 비라강(江)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명은 비라강과 비잔강(江)에서 연유된 것임. 하바롭스크에서 서쪽으로 175km, 중화

인민공화국 국경으로부터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통과하고 있음.

- ▷ 비로비잔은 스위스의 건축가 한네스 마이어에 의해 계획되었고, 1931년에 설립 되었음. 1934년에 유대인 자치주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1937년에 도시 지위가 부여되었음. 인구는 75,413명(2010년)임.

2. 역사

- ▷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비로비잔에 정착한 유대인과 협력한 두 개의 조직인 코메셋과 오제트를 포섭했음. 이 단체들은 이주부터 의료지원까지 국내적 책임은 물론 토지분배를 담당했음. 이 시기에는 캐나다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동조자가 되어 소련을 지지하는 유대계 캐나다인들이 다수 있었음.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비로비잔을 만든 것이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진실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음. 소련 정부는 "유대인의 국토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대인 노동자들의 비로비잔 이전을 독려했는데, 이 슬로건은 다른 나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소련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적이었음. 1935년 암비잔은 소련 정부로부터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독일에서 바이로비잔으로 여행하는 유대인 가족을 돕는 허가를 받았음. 유대인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아르헨티나나 미국에서도 비로비잔으로 여행을 했다. 소련 정부에 의한 이 캠페인은 비로비잔 실험으로 알려져 있음.

- ▷ 1881년에서 1914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여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 인구를 만들었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비로비잔으로 이주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고난과 고립으로 인하여 거의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음. 1939년에 유대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퍼센트 미만을 차지했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 지역의 유대인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2010년대 중반 현재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유대인은 2000여 명에 불과함

- ▷ 비로비잔은 유대인들의 본거지 역할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 몸부림쳤음. 그 땅과 유대인 정착민들 사이에는 중요한 문화적 연관성이 없었음. 증가하는 인구는 문화적으로 다양했고, 몇몇 정착민들은 현대 러시아 시민에 초점을 맞추었고, 몇몇은 그 땅을 일하게 하고 사회주의적 이상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대 문화에 환멸을 느꼈으며, 문화적 조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소련 정부에 의해 생성된 대외적 동기가 유대인이 비로비잔으로 이주한 주된 이유였음. 이들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이 대다수 인구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이들은 모국인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크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재배치되었음. 비로비잔에 유대인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확장을 만류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음. 이 지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아무르 강 계곡의 연결고리였으며, 소련 정부는 이 지역의 물고기, 목재, 철, 주석, 금 등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려고 했음.

▷ 비로비잔이 유대인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매우 황량하고 가혹한 생활을 하면서 정착의 구석에서 살 수밖에 없었음. 유대인들이 비로비잔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집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러시아, 코삭스, 한국인,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약 27,000명의 사람들과 재산과 땅을 놓고 경쟁해야 했음. 이것은 유대인 인구에 있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중요한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환은 복잡했음.

▷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비로비잔의 정착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 지역의 부적절한 기반 시설과 기상 조건 때문에 초기 정착 후 비로비잔으로 이주한 유대인 정착민들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 비로비잔이 창설된 직후 스탈린주의자들의 숙청이 시작되었을 때, 그곳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표적이 되었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만 명의 실향민들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비로비잔으로 가는 길을 찾았음.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안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음. 그러나 스탈린이 유대인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표적이 되었음.

3. 시나고그와 메노라

▷ 2004년에는 유대교 사원인 시나고그가 문을 열었음. 시나고그라는 말은 모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synagōgē)'에서 유래함. 히브리어로 '베트 크네세트'라고도 불리며 시나고그 대신 예배의 집을 뜻하는 '베트 테필라

(히브리어: בית תפילה)'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함. 제1차 유대독립전쟁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흩어진 유대교 모임의 지역적 중심이 되었음. 이전에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제의가 행해지던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적 중심점이었지만, 성전이 로마군대에 의해 소멸되면서 유대교 회당이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된 것임.

▷ 시나고그의 외모는 건물이 위치되어 있는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름. 전통적으로 지어진 시나고그는 출애굽기 당시 사막을 헤매던 유대인들이 만든 이동 신전의 모습을 본따서 지어졌지만 1800년대쯤 독일에서 보수적인 정통과 유대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개혁과 유대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나라의 문화와 유대교 문화가 절충된 형태를 띠기 시작했음. 최초 개혁파 유대교 시나고그는 1811년 함부르크에서 열렸는데, 예배를 위해 오르간을 설치하고 비마를 앞으로 옮기는 등, 전통적 시나고그보다 교회와 더 흡사했으며, 남녀가 같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음.

▷ 메노라는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이며 유대교의 제식에서 쓰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장에는 메노라가 그려져 있음. 일곱 개의 촛대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숲에서 불이 피어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음. 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성막을 만들 시절의 메노라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와 있으며, 이 메노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고 함. 2007년 차누카 축전을 위해 비로비잔 관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노라를 건설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소련 시온의 부활: '비로비잔이 유대인 유산을 기념한다'는 제목의 2017년 11월 가디언지의 기사에서 이 도시의 현황을 조사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유대인 자치구가 현재 겨우 1%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소련 붕괴 후 떠난 사람들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비로비잔에 근거지를 둔 이디시語 언론으로는 유대인 자치주정부 소유 신문인 비로비잔너 슈테른紙가 있는데, 러시아어와 이디시어로 주 2회 발행된다. 그 외에 “디 보호”誌(週日이라는 뜻)가 있음.



<비로비잔의 역전(驛前) 광장에 세워진 메노라>

4. 기후

- ▷ 비로비잔은 몬순 습윤대륙성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에는 매우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매우 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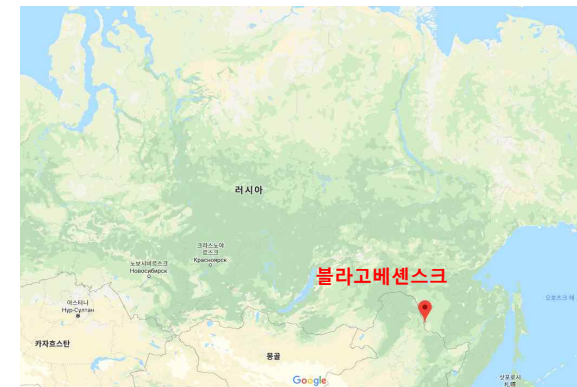
5. 경제

- ▷ 섬유와 신발제조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차량수리공장, 가구공장, 식품공장도 있음.

6. 자매결연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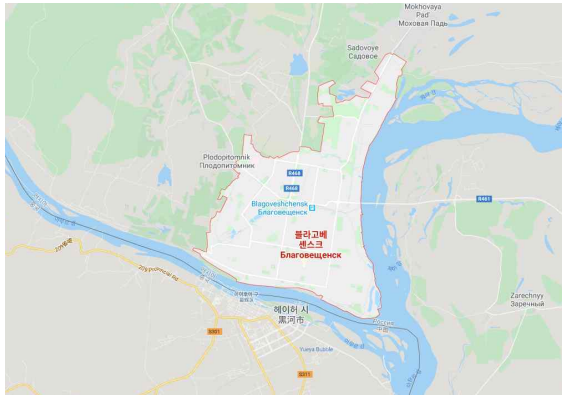
- ▷ 미국 비버튼(오리건주) - 1990. 8. 13
- ▷ 이스라엘 말로트타르시하- 1995. 10. 15.
- ▷ 중화인민공화국 학강(鶴崗) - 2001. 10. 30.
- ▷ 일본 니가타현 도요사카시(豊栄市: 현재의 니가타시 도요사카에 구) - 2005. 8. 30.
- ▷ 중화인민공화국 이춘(伊春) - 2011. 5. 18
- ▷ 우호협력도시 : 대한민국 의정부시(議政府市)²⁾ - 2010. 11. 2.

V. 블라고베센스크



<블라고베센스크의 위치>

- 2) CBS노컷뉴스 노수정 기자 2010-11-01 16:24 : 경기도 의정부시는 러시아 비로비잔시와 우호협력 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앞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경제협력 확대, 공동프로젝트 실현, 경제인의 업무관계수립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 문화, 예술, 스포츠, 보건,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안드레이 파르호멘코로 비잔시장일행은 2010년 11월 1일 방한하여, 11월 2일 의정부시청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비잔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로비잔방문단은 의정부 용현지방 산업단지와 서울 경복궁 등 주요시설을 견학한 뒤 4일 출국한다.



<블라고베센스크의 지도>

1. 개관

- ▷ 블라고베센스크(러시아어: Благовещенск)는 러시아 아무르주의 주도임. 중국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어로는 海蘭泡(하이란파오)/布市(부스)로 불리고 있음. 인구는 214,390명(2010년)이며 모스크바로부터는 동쪽으로 7,985km 떨어져 있음.
- ▷ 중국과의 국경선을 형성하는 아무르 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원래 청나라에 속했었지만, 1858년의 아이훈 조약, 1860년의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령이 되었음. 1856년에 러시아의 요새도시로 건설되었고, 20세기 초반에 금이 발견되자 급속히 성장했음.
- ▷ 현재 블라고베센스크와 가까운 중국의 도시인 헤이허 시는 자유경제지역으로 국경 교역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음.

2. 역사

- ▷ 오늘날의 블라고베센스크 지역에 있는 아무르 양편의 초기 거주자들은 다우르족과 두커족이었음. 오늘날 이 지역의 초기 정착지는 러시아 탐험가 Yerofey Khabarov에 의해 1652년에 Ayyyun으로 보고된 Ducher 마을이었는데, 그것은 현재 그로드코보(Grodekovo) 유적으로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진 것과 동일시되고

있음.

- ▷ 러시아인들이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 하자, 1673년 이후, 중국인들은 이 장소를 그들의 요새("Old Aigun")로 다시 사용했는데, 이 곳은 1683년에서 1685년 사이에 러시아 요새인 알바진(Albazin)에 대항하는 만주족의 운동의 근거지로 사용되었음.
- ▷ 1685년 또는 1686년에 알바진을 잡은 후, 중국인들은 그들의 마을을 원래의 장소에서 약 4.8km 하류에 있는 아무르 강둑의 오른쪽(서서쪽, 즉 현재 중국식)의 새로운 부지로 이전했는데, 그것은 후에 아이군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 러시아와 중국의 일련의 분쟁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러시아가 아무르 양측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났음.
- ▷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바뀌면서 러시아 제국은 중국으로부터 아무르의 왼쪽(일반적으로 북부지만, 블라고베센스크, 동부) 해안을 점령할 수 있었음. 1858년 아이군 조약과 1860년 북경 조약 이후, 청나라 사람들은 아무르와 제야 동쪽에 있는 소위 64개 마을(즉, 오늘날의 블라고베센스크 동부 교외 내에 있음)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은 양국의 국경으로 남아 있었음.
- ▷ 러시아 정착민들은 일찍이 1644년에 하일란파오(海蘭泡/海兰泡, 도시의 중국식 이름) 지역에 살았지만, 현재의 도시는 우스트제이스키의 군사 전초기지로서 1856년에 시작되었음.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1858년 이 도시의 설립을 승인하여, 선언의 교구 교회의 이름을 따서 문자 그대로 "좋은 뉴스의 도시"라는 뜻의 블라고베센스크(Blagoveshchensk)로 명명하고 아무르 지역의 정부 입성을 선언했음.
- ▷ 이 도시는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항구이자 무역 중심지였는데, 20세기 초에 금괴가 채도했고 하이허 시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중국 국경의 위치에 의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음.
- ▷ 그러나 이 도시는 또한 러시아 내전 당시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여 도시를 점령하는 등 분쟁의 현장이었음.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이 도시는 명목상 독립된 지역인 극동 공화국의 일부로 선언되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SFSR의 지배하에 있는 완충지대로 선포되었음.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도시는 24시간 동안

강 건너편의 확성기에서 발포된 마오쩌둥의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었음.

3. 행정 및 시군지위

▷ 블라고베첸스크는 블라고베시첸스키 구의 행정 중심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행정 구역으로서, 그것은 6개의 농촌 지방과 함께, Blagoveshchensk Urban Okrug 로 별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시영 분업으로서 이 행정 단위는 도시 오크루그 지 위도 가지고 있다.

▷ 2013년 7월, 시민들이 시장 직선제 복귀에 찬성한다고 선언하는 공청회가 열렸고, 2013년 9월, 시의회는 시장 선거로 복귀하는 투표를 했음

4. 기후

▷ 블라고베첸스키는 매우 춥고 건조한 겨울과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가진 몬순의 습한 대륙성 기후(Köppen Dwa/Dwb)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1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토네이도를 맞은 최초의 도시가 되었음.

5. 경제

▷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도시의 경제적 초점은 중국과의 국경 무역으로 바뀌어, 이 도시는 현재 대규모 중국 국외 거주 지역사회의 본거지임. 블라고베시첸스크는 아무르 강 건너편에 위치한 중국 하이허 시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일부분임.

▷ 도시의 주요 산업은 금속과 목재 가공과 종이 생산 등임.

6.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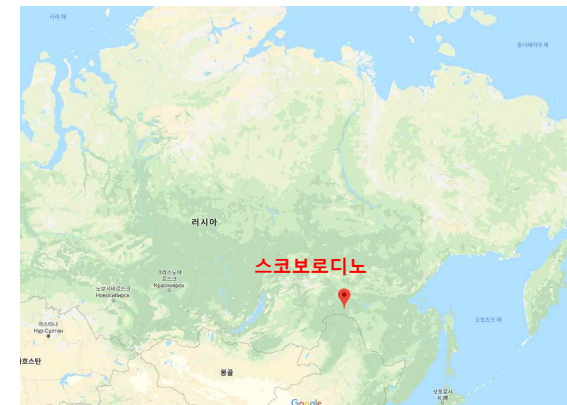
▷ 이 도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의 벨로그orsk와 연결되는 분기 고속도로와 철도가 운행되고 있음. 아무르 강 건너편에는 하얼빈과 다롄으로 남하하는 중국 국도 202호선의 출발점인 헤이룽장성 하이허가 있음.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그나티예보 공항은 국내 목적지를 운항함.

7. 대학

▷ 다음과 같은 대학들이 있음.

- Amur State Medical Academy
- Amur State University
- Blagoveshchensk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 Far Eastern Higher Military Commanding Academy
- Far Eastern State Agricultural University
- Finance University unde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Blagoveshchensk Branch
- Maritime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admiral Gennady Nevelskoy, Blagoveshchensk Branch
- Modern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Blagoveshchensk Branch
- Moscow Academy of Business in Association with the Government of Moscow, Blagoveshchensk Branch

VI. 스코보로디노



<스코보로디노의 위치>



<스코보로디노의 지도>

1. 개관

- ▷ 스코보로디노(러시아어: Сковородино)는 러시아 아무르주의 도시로서 약 10,100명이 살고 있음. 바이칼-아무르 철도로 부터 140km 북쪽에 있으며, 블라고베렌스크와는 북서쪽으로 669km 떨어져 있음. 가장 가까운 도시는 틴다임. 스코보로디노에서 시작하는 ESPO 송유관은 코즈미노까지 연결될 계획임.

[참고] ESPO송유관

ESPO(에스포)는 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oil pipeline의 약자로서, 동시베리아와 태평양간의 송유관을 의미한다. 줄여서 동시베리아 송유관이라고 부른다. 러시아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송유관을 통해 생산된 원유를 ESPO 또는 ESPO유라고도 부른다. 2005년 7월 중국은 스코틀랜드 G8 정상회담에서 스코보로디노와 중국 다칭을 연결하는 ESPO 지선을 건설해 연간 2000만t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트란스네프트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타이셰트에서 코즈미노까지 총연장 4천 663km의 ESPO 송유관 가운데 타이셰트~스코보로디노 간 1단계(2천700km) 공사를 마치고 2009년 12월 28일 가동에 들어갔다.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측의 송유관과 연결되어 중국에 원유가 공급된다.

2단계로 2014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 코즈미노 항구까지 ESPO 송유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 ▷ 가장 가까운 중요한 도시인 틴다(Tynda)는 바이칼-아무르 간선 북쪽 140km에 있음. 스코보로디노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7306km와 아머 강의 지류인 볼쇼이 네워 강에 위치해 있다. 후자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음.

2. 역사

- ▷ 1908년 스마이니로 설립되었지만 1909년 네워, 1911년 루클로우에서 시작하여 그 후 몇 년 동안 종종 명칭이 바뀌었고, 1938년에 현재의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음.
- ▷ 2011년 1월 1일 바이칼 호수의 북쪽에 있는 타이세에서 스코보로디노까지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석유의 일부는 철도를 통해 태평양에 있는 나쇼카에 있는 석유 터미널로 계속 수송되고, 나머지는 위에 언급된 송유관을 통해 중국 다칭으로 운반되고 있음. 연간 용량은 연간 1,500만톤에 달하며, 이는 3,000만톤으로 늘어났음.

3. 행정

- ▷ 스코보로디노는 아무르 주(州)의 20개 구(區)중의 하나인 스코보로딘스키(Skovorodinsky) 구(區)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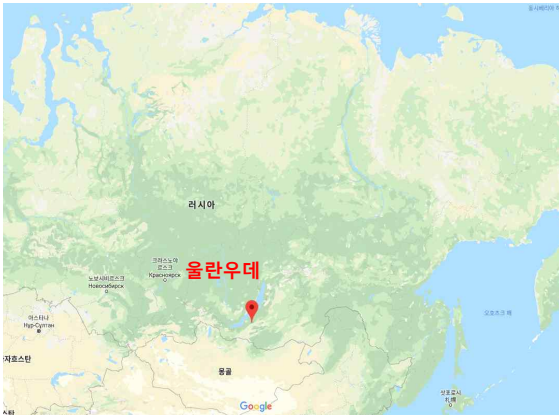
4. 경제

- ▷ 바이칼호 북쪽의 타이셰트에서 스코보로디노로 가는 송유관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여기서 철도를 타고 태평양의 나코트카 항과 중국으로 운송될 예정임. 이것은 트란스네프트가 관리하는 태평양 항구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부분으로 계획된 것임. 2009년 12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개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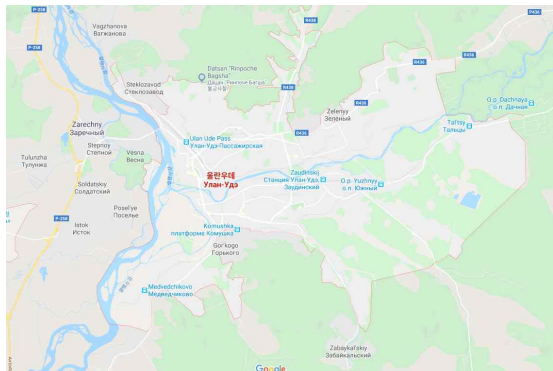
5. 기후

- ▷ 스코보로디노는 아북극 기후(Köppen 기후 분류 Dwc)를 보이고 있음. 겨울은 1월에 -35.4 내지 -20.4℃ 의 평균기온으로 심한 추위를 보이는 반면, 여름은 7월에 +10.5 내지 +25.3℃ 의 평균기온으로 온화한 편임.. 강수는 온건하며 여름철에는 연중 다른 시기보다 훨씬 높고, 겨울은 대체로 건조함.

VII. 울란우데



<울란우데의 위치>



<울란우데의 지도>

1. 개관

- ▷ 부랴트자치공화국의 수도로서 인구는 40여만명이며, 3개의 행정 구역인 소베츠키 구, 젤레즈노도르즈니 구와 옥타브리츠키 구가 있음. 부랴트 국립 대학교, 동시베리아 기술 대학교, 동시베리아 문화 예술 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있음.
- ▷ 도시 이름부터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비슷하기 때

문에 몽골과 연관이 있지 않냐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로 몽골인과 친척뻔인 부랴트인들이 모여 사는 중심도시임. 따라서 러시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동양인을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차림새가 이상하지 않다면 한국인도 현지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임.

- ▷ 울란우데의 의미는 '붉은 우데 강'이라는 뜻으로, '붉은 영웅'이라는 뜻인 울란바토르와 사실 의미적으로 공통점은 별로 없음. 다만 두 지역의 언어가 거의 같기 때문에 붙다는 어휘가 겹치고 있음.

2. 교통, 관광

- ▷ 시베리아 횡단철도 본선상에 있으며 티베트 불교 사원이나 바이칼 호 같은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음. 주요 관광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블라디미르 레닌의 머리 석상, 여러 티베트 불교 사원들, 여러 박물관 등이 있음. 몽골식 만두나 여기서만 잡히는 생선 요리 등 이색적인 음식도 있음. 보통 바이칼 호는 이르쿠츠크를 기점으로 많이 가지만 울란우데도 바이칼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바이칼 호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기점이 되기도 함.
- ▷ 울란우데의 관문 공항은 바이칼 국제공항이다. 러시아 각지와 중국 등의 노선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울란우데 버스 55, 울란우데 버스 77로 이동할 수 있다. 매주 화, 목 야쿠티야 항공에서 인천 직항편이 있다 (16년 여름스케줄 기준)
-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몽골 방면 지선인 몽골 종단철도가 이 근처에서 분기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철도 외에 몽골 울란바토르나 국경도시로 가는 버스도 매일 운행한다. 여행자들은 상징성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울란바토르로 갈 때는 버스가 훨씬 빠르고 편하다.
- ▷ 1666년에 코사크부대가 우데 강 하류에 건설한 요새에서 유래되었고, 당시 이름은 베르흐네우딘스크로, 지금의 명칭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울란우데로 개칭된 것임.
- ▷ 울란우데의 의미는 "붉은 우데강"임. 러시아 혁명 뒤에는 반혁명군, 그 다음에는 시베리아 출병에 의해 일본군이 이 도시를 점령했고, 1920년에는 소련이 세운 극동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1922년에 소련이 다시 지배하게 됨. 1923년에는 부랴트-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부랴트 공화국의 중심지임.



<부랴트 공화국>

- ▷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며 울란바타르를 거쳐 베이징에 이르는 몽골 횡단 철도와
의 분기점으로서 중요하다. 이곳은 소련 시절 항공산업의 중심지였다. 소련이 해
체된 현재는 독자적으로 Mi-8 등을 개발, 생산, 수출하고 있어서 러시아 항공
산업을 담당하는 큰 기둥이 되고 있다.
- ▷ 2011년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울란우데에 위치한 전투기 제작공장인
아비아 자보드를 방문했다.
- ▷ 인구는 약 38만 6700명이고, 3개의 행정 구역인 소비츠키 구, 젤레즈노도로즈
니 구와 옥타브리츠키 구가 있다. 부랴트 국립 대학교, 동시베리아 기술 대학교,
동시베리아 문화 예술 대학교 등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 ▷ 1666년에 코사크부대가 우데 강 하류에 건설한 요새에 유래되었다. 당시 이름
은 베르호네우딘스크로, 지금의 명칭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울란우데로 개칭
되었다.
- ▷ 러시아 혁명 뒤에는 반혁명군, 그 다음에는 시베리아 출병에 의해 일본군이 이
도시를 점령했고, 1920년에는 소련이 세운 극동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1922년에 소련이 다시 지배했다.
- ▷ 1923년에는 부랴트-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
까지 부랴트 공화국의 중심지이다.

3. 자매결연도시 (연도 표기)

- ▷ 대한민국 - 안양시(1997년)
- ▷ 중국 - 창춘(2000년), 후허하오터(2000년)
- ▷ 대만 - 타이베이(1996년)
- ▷ 일본 - 루모이 시(1972년), 야마가타 시(1992년)
- ▷ 몽골 - 울란바타르(2000년), 예르테네트(2002년), 다르항(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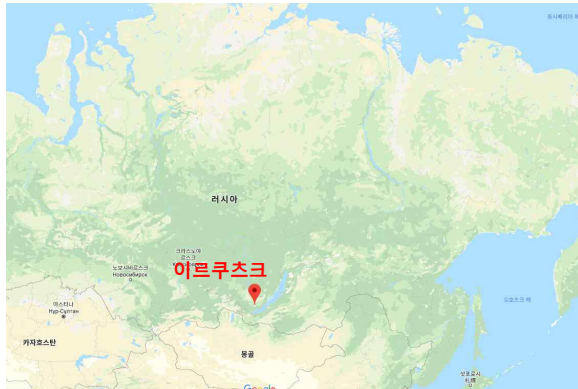
4. 유명 인물 (생몰연도 표기)

- ▷ 모델
 - 발렌티나 젤랴예바 (Valentina Zelyaeva)(1982~현재)
1982년생, 러시아의 모델로서 타미힐피거, 코치,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렌 등의
여러 명품 광고 모델로 활동했음. 그중에서도 7년 동안이나 랄프 로렌의 얼
굴로 활동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녀의 커리어 중 하나로서 본인 또한 모델
커리어 중 가장 자랑스럽다고 코멘트 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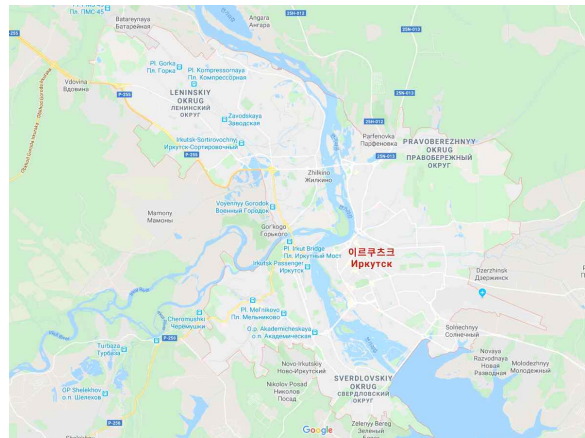


사진 : 소련 시절 2대 티베트 불교 사원(Datsan)으로 유명한
이볼긴스킨 사원(Ivolginsky Datsan).
울란우데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VIII. 이르쿠츠크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유형문화의 키워드)



<이르쿠츠크의 위치>



<이르쿠츠크의 지도>

1. 특징

- ▷ 이르쿠츠크(러시아어: Иркутск, 문화어: 이르꾸쑈크)는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이자,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주도임.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620,099명임. 이르쿠츠크 강이 안가라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인근의 바이칼호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유명함.

- ▷ 혁명 전에는 이 도시를 "동(東) 파리", "시베리아 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아테네"라고 불렀고,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도시를 "지구의 중간"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음.
- ▷ 모스크바와는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양가라강과 바이칼호를 잇는 정기선이 있어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우랄 지역·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부 시베리아의 교통 요충지임.
- ▷ 발전된 문화와 예술로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소비에트 형식의 딱딱한 건물과 고전풍의 건물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 이르쿠츠크는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좌가 놓여 있고 극장, 오페라 등의 문화 시설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은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것도 많음.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언어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기술대학교 등 명문 대학들이 있음.
- ▷ 황금색 테두리에 여러 가지 성화가 장식되어 있는 돔이 첫눈에 들어오는 **즈나멘스키 수도원**이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음. 이 수도원은 키로프 광장으로부터 우샤코프카 다리 건너편에 있음. 발리샤야 거리에 있는 국제 연합 박물관은 소수민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임. 1층에는 시베리아 동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그릇, 어린이들의 완구, 민속 의상 등이 진열되어 있고 샤먼의 전시품 또한 풍부하며, 2층에는 혁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건설에 관한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음. 세레호프가 시베리아 탐험에 사용한 짐승가죽으로 만든 카누가 유명함.
- ▷ 17세기 중반에 카자크 부대의 야영지를 시초로 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고, 1686년에 러시아 중앙 정부에 도시로 등록되었음.
- ▷ 1760년에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어서 동시베리아의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 하였는데, 주로 중국과 몽골의 수입품 및 금, 다이아몬드, 모피 등 시베리아 특산품이 거래되었다.
- ▷ 소문난 대학 타운이기도 함.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 이르쿠츠크국립기술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러시아 내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고 있음. 한국 대학들과도 MOU가 상당수 체결되어 있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는 러시아 대학생들의 많은 수가 이 도시의 대학교 출신임.

- ▷ 이 도시가 부흥하게 된 전환점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방어하고 파리까지 공격해 들어가면서 서유럽의 분위기를 경험한 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난으로 수많은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이곳으로 유형을 오게 된 것이었음. 당시 보잘 것 없는 개척도시였던 이르쿠츠크는 이들의 영향으로 시베리아 한복판에 발전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으며 이를 통해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음. 이후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유형지로 볼셰비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학력(?) 범죄자들은 이 도시 문화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었다.
- ▷ 시베리아의 문화, 예술, 사회, 경제의 중심지이다 보니 20세기 초반 러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될 때에도 당연히 이곳을 경유하게 되었음. 적백내전 때에는 적군과 백군이 패권을 다툰 중요한 요충지였고, 한때는 동시베리아 연방 관구의 본부가 잠시 위치하기도 하였음. 여러모로 시베리아의 둘째 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산업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었고, 근처 안가라 강에 대규모 저수지가 건설되었음. 코민테른 본부가 이곳에 설치되어 중국 혁명을 지도한 바가 있음.
- ▷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한국인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 세력에게 중요한 근거지였다. (고려공산당 참조)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언뜻 보기엔 한국과 인연이 없을 법한 이 도시에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다. 이 밖에도 강릉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다.
- ▷ 시베리아의 도시치고는 역사와 문화가 많이 쌓인 도시라 데카브리스트의 난 때 유배된 혁명과 귀족들의 저택들이나 이런저런 러시아 정교 수도원, 목조건물이 모여있는 130 지구 등 관광지도 있고, 공원도 이곳저곳 크고 작게 상당히 많으며, 동서문명의 중간지점이라는 점 때문인지 시내에서 유대교 시나고그와 이슬람 사원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그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대도시라 인프라적으로도 있을만한 건 다 갖추어져 있음.
- ▷ 무엇보다 비경 바이칼 호를 관광하러 갈 때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여기임. 소련 해체 이후 바로 이곳으로 관광을 왔던 사람은 살인적으로 결핍된 관광 인프라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나,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호텔도 나아지고, 관광안내소나 관광지지도도 많이 생겼고 바이칼 호로 가는 버스도 많아져서 상당히 나아졌음. 그러나 아직도 도시 내에서 영어 안내를 찾아보기는 힘들.

- ▷ 혈통을 따져보면 러시아계는 적은 편임. 그 이유는 옛날에 시베리아 유형 때에 주로 폴란드계나 발트3국 쪽 사람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임. 러시아말을 쓰고 러시아식 이름을 써도 조상들은 러시아인이 아닌 경우가 많음.

2. 역사

- ▷ 1652년 코사크 부대가 양가르 강의 하류에 세운 야영지가 시초였음. 1686년 도시로 승격될 때까지만 해도 작은 규모였지만, 17세기 말부터 중국과 몽골로 통하는 무역로로 인해 급격히 발달되었음. 옛날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유배를 간 곳이지만, 이들 덕분에 도시가 크게 발전 할 수 있었음.
- ▷ 1652년 이반 포카보프는 아르쿠츠크 유적지 근처에 금 거래와 부랴트족으로부터 모피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모비에(겨울 분기)를 건설했음. 1661년 야코프 포카보프는 근처에 골로(작은 요새)를 지었음. 그 골은 1686년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도시권을 얻었음.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루트인 이르쿠츠크 사이의 첫 번째 도로 연결은 1760년에 건설되어 도시 경제에 혜택을 주었음. 종종 카약타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신상품들이 금, 다이아몬드, 모피, 나무, 비단, 차를 포함하여 이르쿠츠크에서 처음으로 널리 보급되었음. 1821년 미하일 스페란스키 개혁의 일환으로 예니세이 강에서 시베리아는 행정적으로 분할되었고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 총독의 좌석이 되었음.
- ▷ 19세기 초, 많은 러시아 예술가, 장교, 귀족들이 차르 니콜라스 1세에 대한 데셴브리스트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로 망명했음. 이르쿠츠크는 이러한 망명자들의 지적 및 사회적 삶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시의 문화 유산 중 많은 부분이 그것들로부터 나옴. 화려한 장식과 손으로 장식된 그들의 목조 주택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표준 소비에트 아파트들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도 남아 있음.
- ▷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현지인 2명당 1명의 추방자가 있었음. 데셴브리스트 붕괴 멤버에서부터 볼셰비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르쿠츠크에서 여러 해 동안 활동했으며 도시의 문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 그 결과 이르쿠츠크는 결국 동시베리아에서 번영하는 문화 교육 중심지가 되었음.
- ▷ 1879년 7월 4일과 6일 (당시) 총독부 궁과 행정 및 시립관, 그 외 많은 공공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러시아지리학회 시베리아 구역의 정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음. 약 4,000채의 가옥을 포함하여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었음. 그러나 1896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

고, 1897년에 최초의 극장이 지어졌고 1898년에 주요 기차역이 문을 열었다. 첫 기차는 그 해 8월 16일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음.

- ▷ 많은 저명한 러시아인들이 1825년 데셈브리스트 반란에 가담하여 이르쿠츠크로 망명하였고, 도시는 나머지 세기의 망명지가 되었음. 일부 훌륭한 목조 가옥들은 지배적인 소련의 건축물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음. 철도가 이르쿠츠크에 이르렀을 때,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었고, 1918-20년 러시아 남북 전쟁에서 격렬한 전투를 보였으며, 그 후 항공기 제작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음.
- ▷ 10월 혁명 이후 발발한 러시아 내전 동안 이르쿠츠크는 "백인들"과 "리드들" 사이에 많은 격렬하고 유혈 충돌의 장소가 되었음. 1920년, 한때 최대 규모의 반 볼셰비키 부대원이었던 알렉산드르 콜차크가 아르쿠츠크에서 처형되어 반볼셰비키 저항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였음.

3. 지리/교통

- ▷ 이르쿠츠크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남동쪽까지 약 850km(530mi),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북쪽 약 520km(320mi)에 위치해 있음. 시의 본고장은 예니세이의 지류인 앙가라 강에 있으며, 바이칼 호에서 72km(45mi) 아래, 글라스코프스크 교외 반대편 독에 있음. 폭 580m(1,900ft)의 강으로 이르쿠츠크 수력발전댐과 하류 3개의 다리가 교차함.
- ▷ 도시 이름을 딴 이르쿠트 강은 도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앙가라와 합류하는 작은 강임. 도시의 주요 부분은 수도원, 요새, 항만, 교외 등 여러 랜드마크에서 또 다른 지류인 이다(또는 우샤코프카) 강으로 분리되어 있음. 이르쿠츠크의 두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앙가라 강의 흐름과 관련하여 "좌방은행"과 "우측은행"으로 불림.
- ▷ 이르쿠츠크는 동부 시베리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두꺼운 타이가의 구릉 지대에 위치해 있음.
- ▷ 바이칼호에서 흘러나온 아름다운 안가라강(예니세이강 지류)은 이르쿠츠크를 통과한 뒤 시베리아를 거쳐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
- ▷ 이르쿠츠크의 주변 지역은 매우 아름다움. 면적도 매우 커서 무려 한반도의 3.5배이며, 터키, 칠레 등과 면적이 비슷함(하지만 인구는 터키의 33분의 1, 칠레의 7분의 1에 불과함) 부라티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투바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

크 지방과 접해 있음.

- ▷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연방 M53 및 M55 고속도로)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이르쿠츠크를 러시아와 몽골의 다른 지역으로 연결함. 이 도시는 또한 이르쿠츠크 국제공항과 더 작은 이르쿠츠크 노스웨스트 공항이 제공함.
- ▷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연방 도로와 철도는 이르쿠츠크 중심부에서 앙가라 강 건너편을 통과함.
- ▷ 모스크바와는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앙가라강과 바이칼호를 잇는 정기선이 있어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우랄 지역·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부 시베리아의 교통 요충지임.
- ▷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연방 M53 및 M55 고속도로)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이르쿠츠크를 러시아와 몽골의 다른 지역으로 연결됨.
- ▷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곳을 지나 건설될 때 인근 바이칼호의 남단 절벽을 지나가는 공구의 건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완공 때도 다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후 어떻게든 완성을 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는 바이칼호에 열차 페리를 띄우거나 겨울에 푹푹 얼어붙은 바이칼호 위에 임시 노선을 연결하여 지나갔다고 함. 씨비르의 얼음장은 증기 기관차가 위로 지나가도 끄떡없다 함.
- ▷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중간 경유지이기도 함. 그 이유는 근교의 바이칼 호수 때문임. 다만 이르쿠츠크 도시 자체는 바이칼 호수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의 호수변 관광도시인 리스트반카나 슬류단카, 호수 가운데의 알혼 섬으로 많이 감.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선상에서 중간에 가깝게 위치한 도시인지라, 무정차 근성으로 7일 걸리는 철도여행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열차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을 위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이르쿠츠크는 화물역과 승객역이 나뉘어져 있지만 화물역에서도 승객 취급을 함. 비록 승객역도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화물역에 비해 바 아니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승객역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 철도는 매우 불친절하게도 킬링 문자 그대로 읊졌을 뿐 적절한 번역을 해놓질 않아서 아마 혼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Иркутск-Пасс (Irkutsk-Pass)라고 써여져 있는 것이 승객역이고 Иркутск-Сорт (Irkutsk-Sort)라고 써여져 있는 것이 화물역임.
- ▷ 주된 대중교통으로 트램이 이르쿠츠크에서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임. 다른 모드

로는 트롤리 버스, 버스, 고정 루트 택시(마르슈루트카)와 사이클이 있음. 이르쿠츠크역 앞으로 가보면 택시 호객이 꽤 많지만 거리가 전혀 멀지 않을 뿐더러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나니 새벽에 도착하지 않는 이상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음.

4. 행정적 지위

▷ 이르쿠츠크는 1936년부터 1937년까지 존재했던 단명 동시베리아 공화국의 행정 중심지였음. 이후 이 도시는 동시베리아 오블라스트가 치타 오블라스트와 이르쿠츠크 오블라스트로 나뉘면서 이르쿠츠크 오블라스트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음.

▷ 이르쿠츠크(Irkutsk)는 행정 분할의 틀 안에서 이르쿠츠키 구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함. 행정 구역으로서,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행정 단위인 이르쿠츠크 시로 분리 통합됨. 자치단체로서 이르쿠츠크 시는 이르쿠츠크 어번 오크루그(Irkutsk Urban Okrug)로 통합되어 있음.

▷ 현재 이르쿠츠크 시를 포함하는 이르쿠츠크 주는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관구임.

5. 경제

▷ 기계 제조(광업기·전기·공작기), 목재 가공, 모피, 식료품 등의 공업이 발달했으며, 수력전기에 의한 알루미늄 제조업이 활발함. 1956년 완공된 출력 66만kW의 이르쿠츠크 수력발전소가 있음.

▷ 662.4 MW 이르쿠츠크 수력발전소는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최초의 계단식 수력발전소임. 댐 건설은 1950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끝남.

▷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큰 산업체는 이르쿠츠크 항공산업협회인 이르쿠트(Irkutsk Aviation Industrial Association)로, 1932년 소련 트란스바이칼 지역에 설립되었음. 요격기/지상공격기 수-30 계열 제조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음. 러시아 정부는 이르쿠트를 일류신, 미코얀, 수호이, 투폴레프, 야코블레프와 합병해 유나이티드 항공기 빌딩(United Aircraft Building Corporation)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만들었음.

▷ 루살 회사에 속하는 이르쿠츠크 알루미늄 제련소가 있다.

▷ 공산주의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이르쿠츠크와 시베리아 산업화가 크게 장려되었음. 큰 이르쿠츠크 저수지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앙가라 강에 건설되었음.

6. 문화시설, 건축물 등

▷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는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좌가 놓여 있고 극장, 오페라 등의 문화 시설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은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것도 많음. 황금색 태두리에 여러 가지 성화가 장식되어 있는 돛이 첫눈에 들어오는 즈나멘스키 수도원이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음. 이 수도원은 키로프 광장으로부터 우샤코프카 다리 건너편에 있음. 발리샤야 거리에 있는 국제 연합 박물관은 소수민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임. 1층에는 시베리아 동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그릇, 어린이들의 완구, 민속 의상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샤먼의 전시품 또한 풍부함. 2층에는 혁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건설에 관한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음. 세레호프가 시베리아 탐험에 사용한 짐승가죽으로 만든 카누가 볼만함.

▷ 에피파니 성당(Epiphany Capital, 1718-1746), 에피파니 대성당, 주지사 궁전, 의과 학교, 박물관, 군 병원, 왕관 공장 등이 공공 기관과 건물에 속함. 비야첼라프 클라이코프가 설계한 알렉산드르 콜차크 기념비가 2004년에 공개되었음. 2004년 7월 27일, 이르쿠츠크 시노그(1881년)는 대화재로 내장이 무너졌음.

▷ Knyaze-Vladimirsky수도원 - 1888년 러스에 세례를 준 블라디미르 왕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음.

▷ 즈나멘스키 수도원 - 앙가르스카야 14세 알래스카 탐험가 그리고리 셀레호프가 묻혀 있는 오래된 수도원. 그 근처에는 알렉산더 콜차크(Alexander Kolchak)의 기념비가 있다.

▷ 그밖에 연금 교회 (1747-51), 에피파니 대성당(1718-46), 카잔 교회의 우리 부인(1885~92), 구세주 교회(1706-13) 등이 있음.

7. 인구

▷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587,891명(2010년); 593,604 (2002년); 622,301 (1989년). 지역 계획에 따르면 이르쿠츠크 시는 인접 산업도시인 셀레코프, 앙가르스크와 합쳐져 총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됨.

8. 기후

- ▷ 이르쿠츠크는 원래 경계선 아북극 기후(Köppen 기후 분류 Dwc)를 가지고 있었음. 2000년 이후 기온은 습한 대륙성 기후(Köppen 기후 분류 dwb)와 흡사했음. 스노우 커버는 1930년대 4월 말에서 1980년대 3월 말까지 더 일찍 사라졌음. 같은 기간 불연속 영구 동토층 깊이는 200m에서 100m로 감소했음.
- ▷ 이르쿠츠크는 계절 간 기온의 극단적 변화가 특징임. 여름에는 매우 따뜻할 수 있고 겨울에는 매우 추울 수 있음. 그러나 바이칼 호수는 아르쿠츠크의 기온이 시베리아 다른 곳만큼 극심하지 않은 덕분에 온화 효과가 있음. 연중 가장 따뜻한 달은 7월로, 평균 기온이 +18°C(64°F)로 기록된 최고 기온은 +37.2°C(99.0°F)임. 연중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평균 기온이 -18°C(0°F)이며, 최저 기온은 -49.7°C(-57.5°F)임. 강수량도 연중 크게 달라 7월은 강수량이 평균 113mm(4.4인치)인 가장 습도가 높은 달이기도 함. 가장 건조한 달은 2월로 강수량은 평균 7.6mm(0.30인치)에 불과함. 시베리아 겨울 동안 거의 모든 강수량이 눈처럼 후퇴지근하고 건조한 눈으로 내림.

9. 문장(紋章)

- ▷ 이르쿠츠크 문장인 다우리아의 옛 상징 시베리아 호랑이는 입에 흑담비를 물고 있음. 1690년 문장이 고안되었을 때, 이 동물은 입에 흑담비를 물고 있는 호랑이("바브르")로 묘사되었음. 이 이미지는 약 1642년부터 야쿠츠크 세관에 의해 사용되었음. 그것은 시베리아의 카나테의 직인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중세 내내 시베리아(오히려 유그라)가 흑담비 가족의 주요 공급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사실 영어 sable은 러시아어 sobol에서 비롯됨.
- ▷ 19세기 중반까지 '바브르'라는 단어는 일반 용어가 아니었으나, 여전히 러시아 제국의 궁전에 기록되어 있었음. 게다가, 그 호랑이들은 시베리아 이 지역에서 멸종되었음. 1870년대에 러시아어를 한정적으로 구사하는 프랑스의 고위층은 "바브르"가 "바브르"의 철자, "비버"의 러시아어인 "바브르"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표현을 바꾸었음. 이 개조는 현지 당국 사이에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은 개정된 설명에 너무 혼란스러워 "바브르"를 멋진 동물, 반(半)타이거, 반(半)비버로 묘사하기 시작했음. 소련은 이 이미지를 완전히 폐지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복원되었음.

10. 보건

- ▷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르쿠츠크는 2004년에 러시아에서 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10대 중후반 러시아 교포들이 대부분인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감염되었음. 에이즈 보고 건수는 1999-2000년 기간 동안 1만 건 이상 증가했다. 1999년 시작된 전염병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르쿠츠크는 2010년 이후부터는 수만 명의 근로 연령 인구를 잃게 됨. 이는 이르쿠츠크의 남성 기대수명이 53세인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명에 속함. 구소련 해체 이후 태어난 세대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되었음.

11. 텔레비전 및 매스 미디어

- ▷ 이르쿠츠크에는 국영기업 IGTRK와 국영기업 IGTRK TV기업 AIST, TV기업 고로드 등 민간기업과 국영신문사 등 많은 국영 및 민영방송이 있음. 도심에서 생중계되는 웹캠 방송도 있음.

12. 대학

- ▷ 이르쿠츠크에는 동시베리아 교육 아카데미(1909년 이후), 이르쿠츠크 주립 대학(1918년), 이르쿠츠크 주립 의학 대학(1918년), 바이칼스키 주립 경제 및 법학 대학(1932년 이후), 이르쿠츠크 주립 기술 대학(1939년 이후), 이르쿠츠크 주 농업 아카데미(1948년), 이르쿠츠크 주립 언어 대학(1948년)의 본거지 철도 교통 대학교(Railway Transport University, 1975년 이후) 및 다수의 사립 대학교가 있음: 시베리아 법학경제경영연구소(1993년 이후), ISTU 경제연구소(1996년 이후)도 있음.

13. 과학/연구소

- ▷ 이르쿠츠크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사단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르쿠츠크 학회 교외에 위치하는 연구기관은 지리연구소, 에너지 시스템 연구소, 지질화학 연구소, 시스템 동역학과 제어이론 연구소, 지구 크러스트 연구소 등 9곳이 있음.
- ▷ 또한 태양-지상물리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림놀로지 연구소(옛 바이칼 호수의 해안가에 위치), 식물물리학 연구소, 레이저물리학 연구소(노보소비르스크 레이저

물리학 연구소). 이르쿠츠크 주립대 내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음.

- ▷ 생물연구소, 석유 석탄 화학 및 합성 연구소, 양자 화학 연구소, 응용 물리학 연구소, 지역간 사회 연구 기관, 천문 관측소, 식물원 등도 있음.
- ▷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동시베리아 과학 센터도 이르쿠츠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기관으로 대표됨: 의학 생태학 연구소, 소아과 복제 연구소, 미생물학과 전염병 연구소, 장소와 인간 생태학, 복원 및 복원 수술 연구소, 그리고 외상학과 정형외과 연구소. 또한, 표도르프 눈의 현미 외과 과학 기술 센터는 이르쿠츠크에 지사를 두고 있음.
- ▷ 또한, GAZPROM R&D 연구소(모스크바 본사를 둔 연구소)와 회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연구소(Irgiredmet), 페트로파블로스크 기업집단(Petropavlovsk of Companies), 러시아 건축 및 건설과학원 보스토크시바렘센터 등 R&D 기관들이 있음.

14. 문학

- ▷ 이르쿠츠크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 발렌틴 라스푸틴의 고향임. 그의 소설과 이야기는 양가라 계곡에서 많이 나옴. 이르쿠츠크의 문화사에 관한 에세이(그리고 인근의 바이칼 호수에 관한 에세이)가 라스푸틴의 논픽션 컬렉션 시베리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에세이는 영어 번역으로도 볼 수 있음.

15. 박물관

- ▷ 이르쿠츠크는 수많은 박물관과 오래된 건축물로 관광객들에게 흥미있는 곳임. 이르쿠츠크 남쪽 47km(29mi)의 양가라에 위치한 탈치 박물관(러시아어: Таlчbы)은 시베리아 전통 건축물의 야외 박물관임. 브라츠크댐과 우스트림스크댐 건설 이후 침수된 양가라 계곡 마을의 수많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 박물관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재조립된 것임. 소장품의 중심 중 하나는 1970년대 중반 침수된 골재로부터 운반된 원래의 스파스카야 타워와 카잔의 우리 부인의 교회로 이루어진 17세기 일림스크의 골재(포레스트)를 부분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이 골재의 또 다른 탑과 요새의 남벽을 정확히 현대적으로 모방한 것임.
- ▷ "Irkutsk Botanic Garden"으로 알려진 이르쿠츠크 주립대학의 식물원은 이르쿠츠크 주립과 바이칼리아 시베리아에 살아있는 식물원임. 그 임무는 "공교육, 수

집, 전파, 연구, 식물 보존을 통해 사람들을 위한 바이칼 호수와 세계의 식물들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임. 이 정원은 주로 이르쿠츠크 주립대학의 교육 및 과학적 도구로서 동시베리아 최대의 식물채집(식물종류 5000종 이상), 목초지, 종자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음. 바이칼 호에서 서쪽으로 70km(43mi) 떨어진 이르쿠츠크 시 내 27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음. 그것은 특히 보호되는 토지와 자연에 대한 연방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 이르쿠츠크 지역 박물관 - 이븐과 부랴트 등 불굴의 민족에 대한 흥미로운 민족학 전시회와 20세기 이르쿠츠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음.
- ▷ 시도로프 주립 광물학 박물관 - 35,000개 이상의 품목이 전시되어 있음.
- ▷ Sukachev 미술관 - 레핀의 작품, 몽골과 중국의 예술품 및 잘 알려지지 않은 네덜란드의 거장들을 포함한 유럽 예술의 한 부분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18, 19, 20 세기의 세속적인 예술들을 포함한 시베리아 최고의 미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음.

16. 극장

- ▷ 이르쿠츠크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인 옥클로프코프 드라마 극장을 포함한 여러 극장이 있음.

17. 스포츠

- ▷ 밴디는 이 도시에서도 인기가 많음. 몇 개의 클럽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 밴디 슈퍼리그의 베이칼-에네르기야가 3만 명의 관중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정도임. 대표팀에 대부분의 선수를 제공하는 클럽 레코드와 함께 러시아 여자 밴디의 중심이기도 함. 2019년 전국대회에서는 4개 팀이 이르쿠츠크 출신이었음.
- ▷ 이르쿠츠크에는 384개의 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이 중 200개가 시립 시설임. 그 중에는 23개의 수영장, 14개의 스키장, 14개의 스키장, 154개의 코트, 165개의 체육관, 운동장, 경주장, 7개의 경기장이 있음.
- ▷ 2012년 여자밴디월드챔피언십은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되어 국제밴디연맹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음. 2014년 밴디월드챔피언십이 이 도시에서 개최되었음. 러시아 밴디 슈퍼리그 2016 결승전은 레코드 스타디움에서 열렸음. 2019년 밴디월드챔피언십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그 결정이 재고되었음.

18. 자매결연 도시 (연도 표기)

- ▷ 몽골 울란바토르(1998년)
- ▷ 중국 선양(1992년)
- ▷ 일본 가나자와(1967년)
- ▷ 미국 유진(오레곤) (1988년)
- ▷ 크로아티아 프리 모르 스코-고란 스키 카운티(2013년)
- ▷ 독일 포츠하임(1999년)
- ▷ 프랑스 에비앙 레베인스(2001년)
- ▷ 스웨덴 콤무나 스트렘순드(2001년)
- ▷ 이탈리아 포르데노네(2005년)
- ▷ 폴란드 체스 토호바(2012년)
- ▷ 대한민국 강릉(2011년)

19. 이르쿠츠크 출신의 주목할 만한 사람들

- ▷ 학자
 - 니콜라이 폴보이(1796~1846년), 편집자, 작가, 번역가 및 역사학자
 - 알렉세이 페첸코(1844~1873년), 자연학자 및 탐험가
- ▷ 예술 및 스포츠 관련
 - 니콜라이 욱클로프코프(1900~1967년), 소련의 배우 겸 연극 감독
 - 미하일 롬(1901~1971년), 소련 영화 감독
 - 콘스탄틴 비루파예프(1930~2012년), 소련의 레슬링 선수와 올림픽 챔피언
 - 올가 부야노바(Olga Buyanova, 1954년~현재), 소련과 러시아의 리듬체조에서 스포츠 코치상을 수상함
 - 욱사나 코스티나 (1972~1993년), 소련 개인 리듬 체조 선수
 - 알렉산드르 아베부크(Avbukh, 1974년~현재),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

- 데니스 마즈예프(Denis Matsuev, 1975년~현재), 클래식 피아니스트
- 마리아 브룬트세바(Maria Bruntseva, 1980년~현재), 배구 선수
- 니나 크라비즈(Nina Kraviz, 1980/1986년~현재), 테크노 DJ
- 올가 지토바(1983년~현재), 배구 선수
- 알렉세이 네고데일로(1989년~현재), 봅슬레이더
- 안젤리나 주크-크라스노바(1991년~현재), 장대높이뛰기 전문 선수
- 다리아 드미트리예바(1993년~현재),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 루돌프 누레예프(1938~1993년), 소련의 발레와 현대 무용수, 안무가.
- 알렉산더 뱀필로프(1937~1972년), 소련의 극작가.

▷ 기타

- 블라디미르 코닐로프(Vladimir Kornilov, 1806~1854),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해군 장교
- 니콜라이 브트로프(1866~1918), 기업가
- 니콜라이 카모프 (1902~1973년), 소련-러시아 카모프 헬리콥터 설계국 수석 건설자
- 미하일 밀(1909~1970), 소련의 항공우주 엔지니어
- 보리스 볼리노프(Boris Volynov, 1934년 태어남), 소련의 우주비행사
- 올렉산드르 슬라팍(Oleksandr Shlapak, 1960년생), 우크라이나 정치인, 관료, 전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 아나톨리 이바니신(1969년생), 우주비행사
- 올가 쿠르반(Olga Kurban, 1987년생), 헵타트레터

20. 요약 및 소결(小結)

▷ 요약하면 이르쿠츠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지리적 특징

- 이르쿠츠크주의 주도. 바이칼호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감.
-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동부 시베리아의 교통 요충지

나. 문화적 특징

- 신화, 사상, 문학의 원천인 도시 : 인류문명 원형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
- 지식인, 혁명가들의 유배지로서 문화예술이 꽃피었음
- 시베리아의 문화, 예술, 사회, 경제의 중심지
- 동서문명의 중간지점 : 유대교, 이슬람사원

다. 교육도시 - 대학

-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식물원(방대한 규모의 식물채집, 목초지, 종자은행)
- 이르쿠츠크국립언어대학교
- 이르쿠츠크국립기술대학교

라. 문화·예술적 자원

- 문학(발렌틴 라스푸틴), 음악, 공연예술
- 민족학
- 건축학
- 과학

▷ 이르쿠츠크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광주 동구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문화적, 교육적 내지 문화·예술적으로 동구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와 유사하여 향후 자매결연 내지 교류지역 대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절 동구(東區)와 유라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 추진 방안

I. 광주광역시 동구의 현황 및 자원 분석

1. 문화특구 : 많은 문화행사와 공연경험의 축적

가. 추억의 충장축제

- 2019년 제16회를 맞음. 2019.10.2.~10.6(5일간)
-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문화전당 일원
- 세션 : 거리 퍼레이드, 추억의 거리, 추억의 고고장, 도심 별밤캠핑
- 올해의 주제 : 청바지



<추억의 충장축제>

나. 아시아음식문화 페스티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에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각국의 음식점을 입점 지원하고 각국의 음식문화를 선보이는 페스티벌을 매월 2회 개최



<아시아음식문화 페스티벌>

다. 문화제야행 “달빛걸음”

- 동구의 문화제를 야간에 개방하고 문화해설을 들으며 산책하는 프로그램, 문화제와 관련한 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문화제 야행 “달빛걸음”>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아시아문화의 교류, 창조, 문화원형 복원하는 아시아문화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유라시아 교류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 인문·역사적 자산

가. 구도심으로서의 역사,장소적 자원

- (구)전남도청을 둘러싼 5.18민주항쟁 등 역사적 장소와 이야기의 중심지

나. 예술인, 학자 등의 주요 활동무대

- 구도심에서 활동했던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인, 사회활동가, 학자, 생활장인들의 활동무대

다. 문화공간 다수 분포

- 공부방(소모임공간), 카페, 공방, 소극장, 갤러리, 연구소 등 문화적 함의를 가진 공간 다수 분포

4. 정책적 특징 : “인문도시 동구”

- ▷ 위에서 밝힌 인문·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콘텐츠화하여 책, 영상, 음악, 미술의 형태로 제작하여 양 도시간 공유
 - ※ 공유방법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 ▷ 민선7기부터 인문도시, 아동·청소년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

가. 동구 인문도시 전담 부서 신설, 인문도시 정책 추진

- 인문도시 기반 마련,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환경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현 등
- 사람, 지식, 문화자원의 교류활성화(「동구 인문도시 기본계획」 중 다섯 번째 목표)

나. 아동청소년 교육도시

-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인문적으로 육성하는 교육도시 지향

5. 문화산업적 특징

- ▷ 광주광역시의 인프라 활용
 - 디자인산업, 창의문화산업, 게임, 문화콘텐츠의 기지 추구(광주시 문화산업활성화 방안 참조)

II. 동구(東區)와 주요도시 간 교류 방안

1. 우선 교류대상지 선정과 각 도시의 특징

- ※ 러시아의 도시의 구는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구와 달리, 행정적지위에서 독립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한 경계만을 나누는 역할임. 따라서 동구와의 교류대상은 구가 아니라 시 단위(크라이, Krai)가 될 것임

가. 선정도시 1 : 블라디보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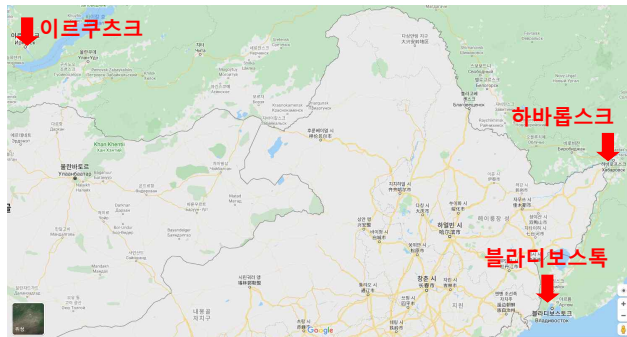
-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 중,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움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도로의 시발점
- 국제심포지움, 학술회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기능
- 박물관 전시 콘텐츠, 음악인력·콘텐츠 등 문화적 역량 높음

나. 선정도시 2 : 하바롭스크

- 하바롭스크 주의 주도임(크라이, Krai)
- 중국 국경과 30km로 매우 가까워 많은 중국인이 방문하므로 하바롭스크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 가능성도 큼
- 시베리아 횡단 도로와 횡단철도의 경유지, 교통상 요충지
- 심혈관 수술센터 등 의료센터를 통한 광주 동구와의 의료자원 교류 가능
- 고려키 무용단 등과의 문화교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아시아문화 발견 가능성

다. 선정도시 3 : 이르쿠츠크

- 이르쿠츠크 주의 주도임.
- 지식인들의 유배지였고 종교적 다원성
- 시베리아 횡단도로와 횡단철도, 공항들의 경유지
- 교육, 의학, 경제·법학, 기술·농업, 언어, 과학, 문학,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적 자원이 분포되어 있음.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이르쿠츠크 위치>

2. 교류 방안

가. 교류내용

- 동구와 광주의 인문원형 및 인문·문화예술 형태로 표현된 콘텐츠를 공유 및 교류

- 교류의 구체적인 방법은

- ① 동구 총장축제나 러시아 위 도시의 축제에 교류팀 참석
- ② 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창업프로그램으로 교류
- ③ 인문·문화·역사 강연 등 상호 교차 강연

나. 교류주체

- 광주 동구, 러시아 각 도시의 행정주체 또는 위임받은 단체, 예술인 등

1) 블라디보스톡

- ① 블라디보스톡 시청 국제관계과(Упра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주소 : Владивосток, 690091, ул. Фонтанная, 47
 - 전화번호 : 7(423)2-614-357, 2-614-105
 - 이메일 : virc@vlc.ru
 - 담당자·과장 : Евтушенко Антон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오펜첸코 안토니나 블라지미로브나)
 - 블라디보스톡 시장 : Гуменюк Олег Владимирович (올렉 블라디미로비치 구멘옥)



<블라디보스톡 시청>

- ② 청소년 축제- 공모전, 휴가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센터, "Rustica "
 - 감독 : Чепиного Светлана Степановна

- 주소 690001, г. Владивосток, ул. Экипажная, 2, оф
- 전화 : 8 (423) 299-82-82
- 이 메일 : primfestival@rystika.ru
- 사이트 : <http://rystika.ru>

③ 연해주 음악협회

- 회장 : Верешкин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베레쉬킨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 주소 : 690001, г. Владивосток, ул. Светланская, 109 (블라디보스토크 스베틀란스카야 거리 109번지)
- 전화 : 8 (423) 222-14-80, 226-73-37 이 메일: sever-s@mail.ru



④ 러시아 예술가 연합

- 회장 : Серов Владимир Артёмович(세로프 블라디미르 아르쎄모비치)
- 주소 : 692519, Ussuriysk, ul. Nekrasova, 24
- 전화 : 8 (4234) 32-09-60
- 이메일 : domhudojnika2011@yandex.ru

⑤ 러시아 사진작가 연합

- 회장 : Elena Melnikova
- 주소 : Vladivostok, st. Semenovskaya, 21 / A
- 전화 : 8 (423) 226-48-44
- 이메일: sumerku@yandex.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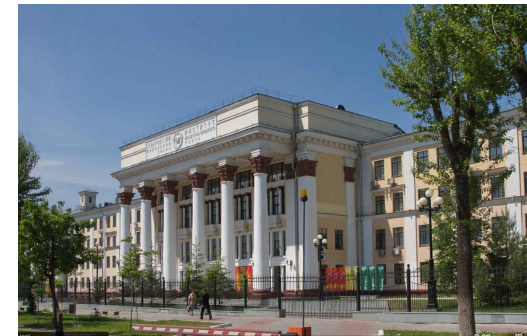
⑥ 러시아 작가(문학인) 연합

- 회장 : Voronoi Oleg Nikolaevich
- 주소 : 690025, Vladivostok, st. 2nd Central, 10
- 전화 : 8-924-333-08-51
- 이메일 : ovoronoy@mail.ru

2) 하바롭스크

① 하바롭스크 시청 국제관계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자매결연 및 문화예술, 청소년교류 등 담당(영어 가능)
- 주소 : ул. Карла Маркса, 66,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680000
- 전화번호 : (4212) 41-96-31
- 이메일 : foreign@khabarovskadm.ru



<하바롭스크 시청>

② 러시아 작가 연합- 하바롭스크 지역 작가

- 사이트 <https://habrorsp.nethouse.ru/page/1321646>

③ 하바롭스크 지역 예술가 연합

- 사이트 : http://www.shr-khv.ru/cat_1/1/
- 주소 : ул. Карла Маркса, 4 (하바롭스크 칼 마르크스거리, 47번지)
- 전화 : +8 (4212) 21-11-64
- 이메일 : souz_art_khb@mail.ru

④ 하바롭스크 음악가

- 사이트 <https://www.realrocks.ru/artists/cities/city43060/>
- 주요 음악가
 - [Владимир Бер](#)(블라디미르 벅) 노래와 음악 작곡가, 편곡가, 가수 시인
 - [Луппов Алексей](#)(롭뽀프 알렉세이) 작곡가, 음악가
 - [Кварц](#)(크바르쯔) 힙합, 상송

⑤ 하바롭스크의 음악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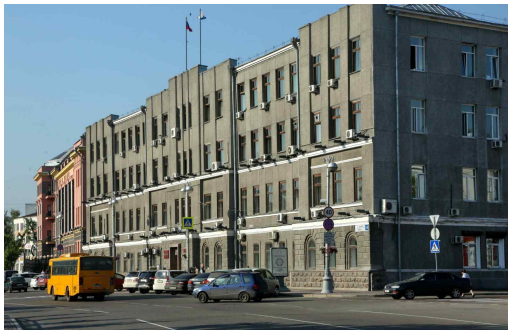
- 사이트 <https://www.dvhab.ru/groups/>

- 주요 음악가그룹
 - 블랙 엘크의 비전 - 펑크 스타일
(전화번호 : Maxim Goncharov : 8-914-544-27-90)
 - 잠자는 바다 - 재즈, 하드 록
(이메일 : misterx0885@gmail.com)
 - 체리 콕테일 - 스베틀라나 그레지크(보컬)
(전화번호 : 89242058537)

2) 이르쿠츠크

① 이르쿠츠크 시청

- 시장 : Бердников Дмитрий Викторович (베르드니코프 드미트리 빅토로비치)
- 주소 : 664025, г. Иркутск, ул. Ленина, 14
- 전화번호 : +7 (3952) 520-294
- 이메일 : post@admirk.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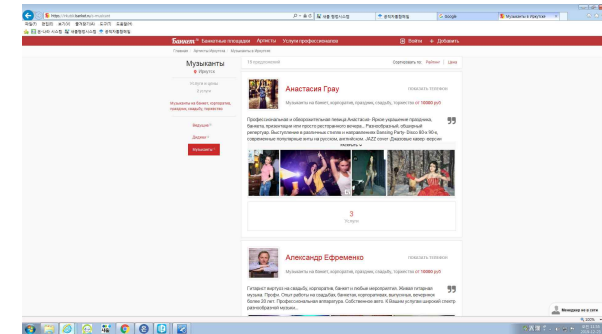


<이르쿠츠크 시청>

- ② 사회 정책 및 문화위원회의 문화, 관광 및 청소년 정책 부서의 청소년 정책 부서
 - 책임자(국장) : Чернышов Антон Сергеевич(체르니쇼프 안톤 세르게예비치)
 - 이메일 : chernyshov_a@admirk.ru
 - 전화번호 : +7 (3952) 52-01-85
- ③ 체육 문화 체육학과
 - 담당 : Соболева Татьяна Анатольевна(사볼레바 타티야나 아나톨리에브나)
 - 전화번호 : +7 (3952) 52-01-91
 - 이메일 : dq_soboleva@admirk.ru

④ 이르쿠츠크의 음악가

- 사이트 <https://irkutsk.banket.ru/s-musicant>



다. 참여자

- 각 도시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 문화예술가, 행정가, 교사 등 여러 분야의 계층

▷ 이 연구에서 교류는 문화교류, 행정적교류, 경제적교류를 포함하고 우선 문화교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Ⅲ. 동구(東區)-시베리아 문화교류 방안

1. 문화교류 전제

- ▷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와 동구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성공요소는 광주동구와 유라시아 도시 간 공감대의 형성
 - 물류, 에너지,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나 부가적인 가치의 창출을 위한 유라시아 경제정책 등 비정치적인 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를 수용하여 광주동구와 각 도시간의 교류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동구의 경제적인 이익추구와 함께 유라시아 횡단로상 각 도시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교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교류도시에 대한 존중, 정체성, 창의성, 포용성, 다양성의 증진을 통해 도시 간 공감대와 보편적 인류애 증진에 기여함

- ▷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교류, 자생력 증진을 기본으로 함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도시 간 주민의 정서와 정신을 강화하고 상호 문화존중
 -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일반 주민이 직접 참여
 - 해당지역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 해당 도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류
 -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 간 문화적 격차와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통예술 등 각 도시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발전을 위한 노하우의 교류

▷ 문화예술부분 R&D 측면에서 접근

- 문화교류가 일방적인 문화의 유입이나 상업화보다는 문화창작과 생산, 향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콘텐츠 개발을 중시
-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 개발은 기획, 제작, 퍼블리싱 중 기획사업으로 전제하여 접근
- 기획 이후 프로그램별 시급성 및 필요도 논의에 따라 후속과제 실행, 퍼블리싱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2. 문화교류 목적

- ▷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와 문화교류의 목적은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이해증진’에 있음
 -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 간 교류 강화를 위해 문화적 공감대를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통합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간 동반성장에 기여
 - 눈앞의 경제적 실리를 위한 포장으로서의 문화교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협력체계구성의 토대로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함
- ▷ 시베리아 시장 내 광주 동구 지역의 경제적 기반 구현 및 확대 실현
 - ACC 및 지역내 대학, 예술인, 시민 등 주체들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 마련
-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기여

-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문화교류
- 유라시아 횡단로 상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문화분야의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 새로운 성장과 블루오션으로서의 유라시아 도시의 시대를 준비

3. 문화교류 방향

비전	광주동구-시베리아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 추진 방향	1. 문화정체성의 이해 각 도시의 지역자원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기반 구축, 연구/조사/탐색
	2. 대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다양화 언어, 민족, 종교관이 달라도 참여 가능한 교류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창조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별 이야기자원에 기반한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및 교류
	4. 인적자원 중심의 유라시아 도시 네트워크 조성 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서 협력체계 구축
	5. 교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문화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상설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 ▷ ‘유라시아’라는 어휘의 구성에서 보듯 도시지역과 국가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이해해야함
 - 하나의 판으로 연결된 지정학적 동질성을 의미하는 권역과 문화, 생활양식 등 완전한 개별화를 의미하는 지역에 대한 이원화된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실천가능한 문화교류를 위해 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톡 등 기존의 구축된 협력 관계를 중심축으로 외연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 이원화 관점에서의 이해증진을 위한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 역사속 초원길(스텝지역)은 물류의 교역로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소통의 길로서 우랄 알타이 지역과 더불어 스키타이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풍요롭게 해왔음
 -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은 우리의 역사적 뿌리이며 이 지역과의 폭넓고 주도적인

- 문화교류의 추진은 상호 문화공동체 의식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우리에게 유라시아 대륙의 북방은 역동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자 우리가 반드시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 유라시아 문화원형 탐색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이해
- 다양한 문화원형을 포함할 수 있는 융복합형(장르 간, 다제 간) 트렌드 반영
- 프로그램 접근성의 확보(프로그램 참여의 문턱이 낮은 대중적 프로그램 개발)
- 인적자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 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사업 실행을 개발방향으로 설정



4. 운영프로그램

운 영 프 로 그 램	1. 문화정체성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시베리아 청소년 연합 프로젝트 「시베리아 문화 원정대」 - 문화정체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 및 교류기회 마련 「시베리아 타운홀 미팅」 - 도시원형과 생활문화의 근간인 의식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 다큐멘터리 제작 「시베리아 문화대전」 - 시베리아 연구의 초석 「동구-시베리아 교류 포럼」 - 동구-시베리아 시민화합 프로젝트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2. IT기반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현실 스토리 체험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 패션과 IT의 결합 “웨어러블 패션쇼룸 @ 충장-시베리아” - 이야기가 있는 홀로그램 콘서트 「유라시아 케이팝 스토리」
	3. 문화로 함께 발전하는 동구-시베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전통요리 프로그램 「유라시아 오픈 키친」 - 동구-시베리아 음악축제 - 동구-시베리아 도시 비엔날레 - 동구-시베리아 미술축제

	4. 유라시아 교류를 위한 핵심 시설 설치
	- 「동구 유라시아교류센터」 설치
	5. 휴먼 네트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의 구성 「유라시아 문화네트워크」 - 유라시아 지역별 문화전문가 양성 「유라시아 문화전문가 양성프로그램」 - 유라시아 대학생 문화교육진흥프로그램 「스키타이의 후예들」
	6.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문화인류학박물관 건립 「동구 - 유라시아 문화인류박물관」 - 문화콘텐츠 체험허브 설치 「동구 - 유라시아문화의집」
	7.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인사 초청 팸투어 등 경제교류사업 - 해외자매도시인턴십 등 청년일자리 사업 - 유라시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사업 및 의료관광단 유치 등

가. 문화정체성의 이해

1) 동구-시베리아 어린이 문화원정대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친선 활동의 연장선 프로그램
: 동구-시베리아 횡단로상 루트를 활용하여 각 도시 이동
-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현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 하에 다양한 교류
- 향후 우리 지역의 경제, 사회적 중추로 역할을 수행할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원정대를 구성함
- 어린이 계층의 교류를 통해 어린이 문화교육과 지역이해 함양을 목표로 함
- ※ 동구가 현재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세계인문지도자양성』 사업과 연동하여 다양한 방문 및 교환 프로그램 등 운영

나) 주요기능

-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고 자국 문화에 대해 선입견 없이 이해함

- 공공외교사절단 역할을 수행하는 원정대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중심이 된 자발적 커뮤니티를 구성함

다) 주요내용

- 아동 및 청소년의 교외교육(out of-school education)에 초점임
-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중 세계시민캠프 및 해외현장학습의 결합 형태임
- ‘어린이 문화교육을 통한 동구-시베리아 이해증진’, ‘공동체로서의 동구-시베리아’에 대한 시각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 함양함
-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에 놓인 세계문제에 대해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한 시각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동구-시베리아 어린이 총회 등을 통하여 각 주제에 대하여 고찰, 자기 의견을 발표 및 토론하는 기회 마련함
- 동구-시베리아 횡단 코스를 활용하여 전 구간을 참여하기 보다는 일부 구간과 도시를 중심으로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의 세계유산 답사 및 체험을 진행. 해당 도시의 어린이 동시 참여함

라) 기대효과

- 국내외 외교현안에 대해 아동,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함
- 즉, 국제사회 현안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사전 육성
- 잠재력이 있는 어린이를 사회적·지역적 구애 없이 선발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효과 확산에 기여

마) 참고사례

(1)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KIDS Global Leadership Programme) <http://kids.unesco.or>

- ① 세계시민캠프
 - 여름에 개최되는 세계시민캠프에서는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기르며 글로벌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
 -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모의유네스코총회 등을 통하여 각 주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의견을 발표, 토론하는 시간을 제공

② 자기주도학습

- 세계시민캠프 이후 해외현장학습 전까지 평화, 다문화, 환경,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미션수행 통하여 실생활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

③ 해외현장학습

- 해외현장학습 참가자들은 실제 국제기구 실무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평화,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세계 문화유산 답사
- 해외현장학습은 일 년 동안 캠프와 자기주도학습 등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한 참가자들이 세계라는 더 큰 무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에 다가서는 기회 제공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5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운영 전경>

(2) 외교통상부 「어린이 외교관 학교」

- 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외교사료관을 토요일까지 확대 개방하여 토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외교관학교」를 운영함
- 강의내용 : 1~3주차, 외교사전시설과 연계한 근·현대 외교사 강의 및 체험함
- 4주차, 젊은 외교관과의 대화 및 수료식(수료증 전달, 기념사진 촬영)
- 강사진 : 역사문화체험 전공 외부강사
- 전, 현직 외교관을 초청, 특강 형식으로 우리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 제공



<어린이외교관학교 운영 전경>

(3)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어린이 외교대사」 임명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2014년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73명을 선발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3시간 동안 한국 알리기 교육을 한 후 발대식을 개최함
-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독도와 한국의 역사·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갈 홍보대사로 ‘어린이 외교대사’를 도입함



<어린이 외교대사 발대식 모습 (2014년 1월 미디어 다음)>

- 역사문화 답사 기관인 ㈜여행이야기(대표 박광일)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박 단장의 ‘우리가 바로 어린이 외교관,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박 대표의 ‘한국 5천년 역사에서 찾아낸 어린이 외교관의 꿈’이란 주제의 강의를 경청함
- 반크에서 활동하는 이정애·김보경 연구원으로부터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기법,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독도와 한국을 알리는 방법 등을 배움
-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독도와 위안부 소녀상 등을 주제로 제작된 영문 서울관광지도를 나눠주며 한국을 알리고 순차적으로 경복궁, 서울 중구 정동, 국립중앙박물관 탐방을 계획
- 이날 발대식은 일본의 방송사 TBS와 NHK의 취재진 또한 취재하였음

2) 동구-시베리아 타운 홀 미팅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초기 정책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로 활용함.
-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만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중 주요 관점을 얻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발언권을 분배한다거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규칙 등이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며 상대의 의견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성
- 타운 홀 미팅에서는 참가자 모두 직위와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짐.
- 구성원들이 제안한 실행 방안을 사업실행자가 즉석에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참고] 타운홀미팅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들과 만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場)이다.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로 평가된다. 식민지 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통하여 예산안·공무원선출·조례제정 등 지역의 법과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고 한다.

타운미팅의 전통을 이어받은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은 비공식적 공개 주민 회의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초대되어 중요한 정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련된 공직자 또는 선거입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게 된다. 공직자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참고하게 되고, 주민들은 정책결정권자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타운홀미팅 [town hall meeting] (두산백과)

나) 주요기능

- 각 도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문화 교류방안에 대해 시민참여의견 수렴의 방안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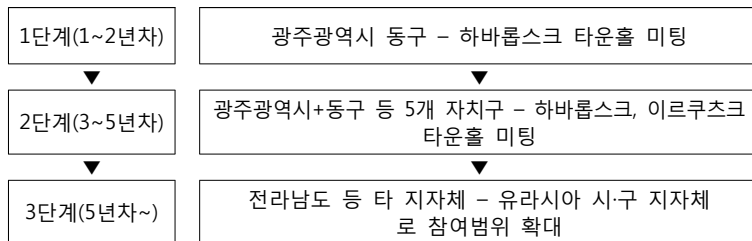
- 타운 홀 미팅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사업실행자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되는 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긍심이 높아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임



< 최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운홀미팅 >

다) 주요내용

-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 운영에 대한 사전 참여의지 확인함.
- 단, 한국의 경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
- 신청 도시를 중심으로 ① 각 국 및 도시 문화정책 아젠다 ② 각 국의 문화정책에 기반한 유라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시민대상의 타운 홀 미팅을 운영함.
- 일회적 타운홀 미팅 보다는 소그룹(20~30명) 타운 홀 미팅을 계층별로 5회 이상 운영하고 피날레의 개념으로 소그룹 타운 홀 미팅에 참여한 시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추가 접수를 통해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실시함.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동구-시베리아 문화정책 자료로 활용함
- 결과물은 보고서 및 자료집 등 기록자료로 편찬, 출판하여 공유함.
-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단계별 추진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미팅 진행(안)

- ▶ 1단계(설계, design) 프리미팅(Pre-Meeting) ①
 - 사업실행자 또는 결정권자의 확정 및 주제의 선정
: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결정권자의 결정 권한 내에서 해결 가능한 주제로 선정, 참가자 선정
 - 팀 리더 선정/퍼실리테이터 선정
- ▶ 2단계(준비) 프리미팅(Pre-Meeting) ②
 - 참가자에게 주제 및 참가 통보
 - 참가자에게 사전 학습용 자료와 정보 제공
 - 미팅 장소, 일정과 관련된 기자재 준비
 - 참가자들에게 타운미팅 개요와 진행 방법 사전 교육/팀 빌딩 실시/예산 확보
- ▶ 3단계(실시) 타운미팅, 타운홀미팅(Town Meeting & Town Hall Meeting)
 - 타운미팅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사업진행자가 공개적으로 목표와 기대 사항을 공시
 - 주제 구체화
 - 문제점 도출과 핵심 문제 선정
 - 원인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
 - 해결 방안 도출과 우선순위 결정
 - 실행 계획 수립 및 발표 준비/타운홀미팅
 - 프레젠테이션(사업진행자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정리
- ▶ 4단계 (팔로우업, Follow-up) 포스트미팅(Post-Meeting)
 - 실행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1개월 단위로 실시)
 - 주관 팀에게 추진 사항 보고
 - 주관 팀의 프로젝트 사후 관리/평가 및 결과 공유

라) 기대효과

- 타운미팅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실행 계획을 사업진행자가 동의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전 참여한 사람들(대중)에게 홍보하여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함
-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공유하여 공통의 아젠다에 반응하는 서로의 의견과 시각을 탐색함

마) 참고사례

(1) 아메리카스픽스 21세기 타운미팅

- ① 2002년 7월 22일 뉴욕 Listening to the city
 - 7월 22일 뉴욕 JAVITS 컨벤션센터에선, 폐허가 된 월드트레이드센터(WTC)의 재건축방향(상업적 용도가 강화)을 바꾸기 위해 4,300명의 시민이 모여 'Listening to the city'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시작
 - 그 결과 이미 시의회까지 통과한 'WTC 재건계획'의 상업적 공간들이 추모와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변경
- ② 2007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의료보험개혁
 - 매년 2억불의 추정부예산이 투입되고도 500만이 넘는 무주택 주민들로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정부와 주민들이 2007년 8월 캘리포니아의 주요 8개 지역을 위성으로 연결하여 총 3,500명이 모여 주 의료보험개혁을 토론
 - 참석자의 82%는 주 의료보험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참석자들은 지역의원, 신문사등에 이메일 편지를 보내 타운미팅 결과를 전달
 - 비록 상원에서 14억불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핑계로 거부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하버드,UC버클리 공동평가)를 얻음
- ③ '07년 뉴올리온즈 카트리나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계획
 - '05년 뉴올리온즈는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70%의 주택이 유실되었고 18개월이 지나자 50%의 주민이 돌아오지 않음
 - 당시 주지사의 즉각적인 재건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흥흥한 민심으로 주정부의 재건계획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 이러한 상태를 하나로 묶어내고 시민 스스로 계획을 만들었던 계기는 바로 두 번에 걸친 타운미팅이었음. 뉴올리온즈와 그 접경지역에서 모인 4,000명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92%의 찬성을 나타냄
 - 2007년 6월 뉴올리온즈 시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14억5천불의 예산은 지역별이 아닌 도시기능 재건을 위한 시설의 복구부터 투입

3) 동구-시베리아 다큐멘터리 「동구-시베리아 文化大典」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주요도시 성장 및 변화, 미래가치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할 수 있는 생활문화(도시민 의식주 원형, 최근 트렌드 등)에 대해 문화적 해석을 실시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생활문화기반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검토하여 동

구-시베리아 벨트화의 초석으로 활용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도시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나) 주요기능

- 도시 간 상호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교류 확대
- 공동제작 도시 간 방송프로그램 교류 활성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
-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 및 해외 우수 콘텐츠의 국내유입 독려

다) 주요내용

-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장르와 구분되지만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닌 서사구조를 통해 현실 속 다양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재현하고 이미지적 가치로 재창출(오종서, 2014)한다는 것에서 효과적임. 즉, 사실에 기반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재가공하여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임
-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다큐멘터리 문화대전'은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에서 '서울'을 주제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모티브임
- 동구-시베리아 교류를 기반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등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각 도시탐방을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함
예) 대한민국 「동구」편, 러시아 「이르쿠츠크」편, 러시아 「바이칼호수」편 등
-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문화정체성 및 현재의 역동성을 검토하고 도시와 도시동구-시베리아 등 지역을 넘어 동구-시베리아 벨트의 역학관계를 이해함
- 또한 각 도시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는 아래에서 제안하는 '동구-시베리아 도시 트리엔날레', '유라시아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교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개별적 단편성을 넘어 동구-시베리아 교류 정책의 운영현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활용함

[참고] 내셔널지오그래픽 「서울」 제작

- 서울시가 먼저 NGC에 제안해 10개월에 걸쳐 제작한 프로그램
- 서울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과정 및 한류열풍 속 서울의 역할을 조명.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산업 경제화를 통해 발전은 하였으나 무미건조한 회색도시로 성장한 서울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집중

○ 2022 동구-시베리아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개요

동구-시베리아 각도시 간 공동제작 MOU체결을 시작으로 대상도시를 선정



사업개요의 구성

- 사업목적 / 기간 / 대상국가 / 공동제작국가의 방송채널 / 제작내용 / 공동제작 편수 / 제작예산 등



국내 신청접수(국제공동제작지원사업 추진업체 모집)

- 주관기관 : 국제공동제작을 총감독하고 완성된 작품을 자체 채널로 방영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함께 국제공동제작을 실시할 독립제작사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선정평가

· 평가항목(안)

- 상대국 방송채널 인지도 및 입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MOU 구체성, 명확성
- 기획의 내용 및 실현성 - 제작 및 협력계획 - 방영계획
- 홍보계획 - 예산수립의 타당성 등

· 평가단계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선정기관 및 MOU 대상국가, 상대방송채널 등에 대한 관리, 지원



공동제작물 상영 관리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효과성 환류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 계약체결에서부터 방영 및 결과보고까지 약 1년 사업임
- 대상국가는 아르헨티나, 중국으로 이중 중국과는 2개 사업 제작 진행(총3개 제작)
-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중국의 경우 성급 또는 직할시급 방송사와 공동제작함
- 국가간 이해와 공감이가 가능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한 다큐멘터리로 60분 2편 기준임
- 제작예산 : 각 프로젝트별 1.8억 이내

[참고]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 NGC)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CJ E&M과 합작으로 개국, 국내 Factual 부문 시청률 1위임
- 다양한 공익, 공공적 캠페인 활동 운영 중임
- 1906년부터 팩추얼 엔터테인먼트(Factual Entertainment)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탁월한 영상미는 물론 치밀한 과학적 분석과 엄격한 팩트체크(Fact Check)를 기반으로 항상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왔으며, 지금까지 에미상 140회 수상을 포함, 총 1,000회가 넘는 국제방송시상식 수상경력이 이를 증명함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 소속의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의 탐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및 방송됨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방송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로 보내져 지구와 인류를 위한 탐험, 연구 기금으로 사용함

라) 참고사례(제작사례)

(1) EBS, 아시아 6개국과 가족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 2015년 7월 13일 EBS가 아시아 6개국 방송사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을 알리는 제작발표회 실시
: 7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본사 사옥에서 아시아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베이비 온 더 웨이’ 협약식을 진행
- ‘베이비 온 더 웨이’는 7~9세 어린이들이 동생의 탄생을 계기로 형제, 자매,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 의미와 공동체 모습을 조명하고자 기획
- 공동제작팀은 EBS와 TVK(캄보디아), M'GO(싱가포르), MBN(몽골), Forever Group/MRTV4(미얀마), BBS(부탄) 등 6개국 방송사로 구성
- 공동제작팀은 15분으로 구성된 7편의 에피소드를 각각 1편의 독립적인 단편 영화로 제작
- 이들은 14~16일 사전 워크숍을 통해 기획회의를 열고 방송 제작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

4) 동구-시베리아 교류 포럼

가) 사업목적

- 네트워킹 및 정보교환을 위한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포럼(Dong-gu·Siberia Cultural Exchange Forum) 행사의 기획 및 운영
- 시베리아 각 도시의 문화유산, 문화가치, 문화원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

역별 특수성(정체성)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양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통해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문화콘텐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교류의 지향목표에 대해 합의

나) 주요기능

-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문화정보를 공유하고 문화교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공동투자 및 제작방향을 함께 모색
- 각 도시의 문화와 관련한 정.재계, 관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

다) 주요내용

- 동구-시베리아 문화정체성의 논의를 기반으로 원형보존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한 공동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이를 활용한 산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격년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함
- 동구-시베리아 커뮤니티에 속하는 각 도시를 순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 운영시기는 정례화하지 않고 각 도시의 문화행사(영화제, 비엔날레, 축제 등)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것을 고려함 - 이것은 각 도시단위로 자매결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공동체 같은 도시를 포괄하는 또 하나의 대화상대를 필요로 함
- 동구-시베리아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도시 단위의 행사가 아닌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내 시민을 위한 행사로 대상적 범위를 확대함
- 이것을 동구에 적용하면,
 - 한국측 참가자 : 동구청, 조선대학교 러시아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산구 고려인마을 사람들, 한국문화교류재단(재원), 광주광역시청, 전남대학교에서 협력하여 개최
 - 러시아측 참가자 :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시), 외교부 영사관, 대학, 민간단체 참가 등

라) 기대효과

- 문화를 통한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화합과 초지역적 공동체 형성의 기반으로 활용함
-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문화자산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류확대를 위한 대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일반인에게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역사관 정립

-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경쟁력 확보의 기틀 마련함

-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 문화교류의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측면의 의미를 검토하고 유용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마) 참고사례

(1) 세계문화교류포럼 <http://www.gceforum.org>

-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및 가톨릭대학교 공동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함
 - ※ 초기 '글로벌 문화산업 포럼'에서 2013년 9회부터 '세계문화교류포럼(Global Culture Exchange Forum)'으로 명칭 변경
- 각 지역의 문화산업 정보를 교환하고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통한 각지역의 문화 콘텐츠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매년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함
-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지역의 문화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투자 및 제작방향을 모색하는 등 문화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
- UN강연회, 워크숍 등을 지속진행



5)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프로젝트

가) 사업목적

- 인문학적 지식 함양을 통한 시민의 시베리아 이해증진을 위해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Toward a brighter future for Dong-gu Siberian community)

프로젝트

-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는 개별단위의 사업이 아닌 문화정책의 개념으로 각도시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의 협력활동 및 프로젝트를 지원
- 프로젝트는 전시회, 연구,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관청, NGO, 연구기관 등 다른 기관들의 협력하는 것을 지향
-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문화정책의 취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의 역사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동구-시베리아 각 도시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여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있음

나) 주요기능

- 통섭적 성격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로 인문학 기반 지역학, 문학·역사·철학을 아우르는 통합 시각을 조성하고 공유
- 주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단위로 인문학 기반 기록,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현

다) 주요내용

(1)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의 역사에 대한 고찰

- 기본적인 의의는 동구-시베리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목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동안에도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취지
- 근대 유라시아를 휩쓴 전제주의, 냉전의 발발이 된 원인에 주목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활동을 진흥
- 과거청산 논쟁, 영토 분쟁, 유물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보여주듯이 아직도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과거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인식을 위한 유효한 방법론을 제공
- 배제된 기억을 새로이 조명하여, 복잡한 세계화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20세기의 상흔을 치유/극복하는 실천적 결과를 지향
-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자료스터디, 현장답사, 워크숍 등으로 현장 중심 참여를 독려

(2) 동구-시베리아 문화인류학 탐구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민에게 동구-시베리아 문화의 기원, 원형, 전파, 다양성 등의 형성과정을 탐구하여 공유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 시민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는 전시회, 연구, 간담회, 출판 등의 형식으로 구성

라) 기대효과

-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문화정책의 취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동구-시베리아의 역사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동구-시베리아 사회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여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있음
- 시민주도형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가치인식과 개인의 자아성찰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자국 문화 및 역사 기준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인으로서 삶의 현상과 원리를 통찰하는 인재 양성
- 즉, 인문 교양 지식 활성화를 통한 유연하고 융합적인 사고력과 풍부한 맥락 및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 배움의 과정과 삶의 과정 연계를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마) 참고사례

(1) 전쟁기념(War Commemoration) 프로젝트

- 전쟁기념 프로젝트는 "20세기 전쟁기념의 비교문화사: 역사적 지형도와 담론의 헤게모니"라는 주제 아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진행
- 배경과 목표
 - 전쟁에 대한 위로부터의 공공의 기억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전쟁기념’ 문화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표
 - 한 국가 및 민족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통합과 배제의 논리, 이를 통해 구성되는 담론과 상징체계, 여기에 작동하는 정치/이념적 헤게모니의 관찰 기제를 제시
- 주요내용
 - 1년차 연구에서는 “전쟁기념 담론의 구성과 성격: 공적 담론에서 제도교육까지”라는 주제 아래 전문적 역사저술, 언론매체, 역사교과서 분석을 통해 전쟁에 대한 공적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 효과를 고찰
 - “기념비적 공간의 비교문화사: 박물관에서 메스미디어까지”를 다룬 2년차 연구에서는 전쟁 관련 기념관, 기념비, 문학, 영화, 미술작품의 분석을 통해 전쟁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형식과 그 의미를 고찰
 - 3년차 “기념되는 전쟁과 잊혀진 전쟁: 대안적 기념문화의 모색” 연구에서는 공식적 기념문화로 대변되는 집단기억에서 배제된 기억의 복원과 이와 연관된 대안적 기념문화의 가능성 모색

- 주요결과
 - 전쟁기념 프로젝트는 3회에 걸친 국내학술대회,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성과를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휴머니스트, 2009)이라는 저서로 출간

나. IT 기반 융합형 콘텐츠 개발

1) 가상현실 스토리체험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가) 사업목적

- 국내 가상현실 체험 개발업체와 연계하여 4D, 홀로그램, 증강현실, 미디어 아트, 키네틱 아트 등 최근 미술, 디자인, 영상 등 시각예술 및 문화산업분야에서 활용하는 ICT 개발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각 도시의 주요설화를 이해하는 디지털 스토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 ‘디지털기술을 매체 환경 또는 표현 수단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
- 설화(옛 이야기)의 특성 상 각 도시의 이야기 구조(영웅의 탄생, 권선징악, 지역특색을 반영한 요괴 존재 등)가 크게 다르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동구-시베리아의 문화적 맥락이 유사함을 간접 체험함. 시베리아 동부는 통구스지역으로서 한국과 동일한 맥락의 샤머니즘이 놓여 있고, 따라서 ‘무당’이라든지 동거울(톨리) 등 동일한 맥락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접근 장벽이 낮은 아이템(예, 각 도시의 민화에 등장하는 요괴- 동구의 경우, 도깨비 등)를 활용하여 어린이 및 성인 등 폭 넓은 소비계층을 확보

나) 주요기능

-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서사적 표현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이를 기반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시베리아 각 설화자원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함
- 증강현실 기법이라는 대중의 관심이 높은 방법론을 결합하여 화제성과 접근성을 확대함

다) 주요내용

- 접근성과 휴대성의 용이함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핸드폰 앱)기반 시베리

아 지역특성을 아우르는 스토리 라인을 개발하고 이에 부합하는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구성함

- 인문학(지역설화 연구 및 스토리텔링)+미디어 아트+캐릭터 산업 등 다제 간 연계를 통한 콘텐츠를 개발.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융복합 콘텐츠 개발의 모델로 활용 가능함
- 구글 카드 보드 등을 활용하여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 기법을 편안하게 접근하는 보급형 콘텐츠와 특수 장비가 설치된 특정공간(예, 시베리아 문화의 집, 시베리아 횡단열차 열차 등)에서 체험하는 고급형 콘텐츠로 이원화된 체험 과정을 제공함
- 시베리아 문화교류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 접근함

라) 기대효과

- 대중적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기반으로 각국의 전통문화자원인 설화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문화감수성을 확대함

마) 참고사례

(1)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 카드보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임
 - 사용자의 눈과 스마트폰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사이에 시야를 왜곡시키는 어안렌즈를 배치. 어안렌즈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재생해 FOV(Field of View, 시계) 값을 실제 시야와 유사하게 일치
 -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속 센서(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인식한 후 이에 맞춰 영상을 함께 움직임
- 구글의 카드보드는 최대한 저렴하게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
 - 카드보드2의 판매가격은 약2만원 수준(디스플레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대신)



출처: 구글 이미지, 2015.

<구글 가상현실 앱의 사례>

- 단순한 골판지를 활용하여 어안렌즈 2개를 결합, 이렇게 조립한 카드보드 속에 카드보드 앱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거치하면 가상현실 경험
- 이러한 기기를 바탕으로 개인 핸드폰에서도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임
- 또한 카드보드용 앱 개발을 위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을 동시에 활용함
 - 구글 측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와 3D 게임 개발을 위한 유니티 개발 키트를 공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렌즈 왜곡 보정 등 문제없이 카드보드용 가상현실 앱을 제작

2) 패션과 IT의 결합 “웨어러블 패션쇼룸 @ 충장-시베리아”

가) 사업목적

- 이미 패션산업에서는 빅데이터, 3D프린터, 웨어러블이 3가지 빅 트렌드로 떠올랐으며 이를 활용한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콘텐츠를 개발함
- 이 중 국내 기술력이 세계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웨어러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구 충장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충장으로 패션을 개발하고 ‘시베리아 도시들의 전통의상의 재해석과 첨단기기의 일상화’를 주제로 패션쇼룸과 패션쇼를 기획 및 실시함
- 패션 디자이너의 웨어러블 패션쇼 참여를 통해 대중적 이벤트를 개최함과 동시에 충장-시베리아 패션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함

나) 주요기능

- 산업과 산업간(전통복식, 패션, IT 등) 결합과 도시 간 교류(동일한 주제와 산업군의 참여로 서로의 웨어러블 시장을 확인)를 동시에 진행함

다) 주요내용

- 각도시의 주요 이벤트행사 기간에 기획, 제작, 판매 하고자 하는 웨어러블 패션소품(옷, 장신구, 디바이스 포함)을 한자리에 모아 쇼룸을 구성, 운영함
- 일종의 아트웍(artwork) 전시회로 패션웍 중 진행하는 이벤트로 운영함
- 각도시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참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한 웨어러블 소품 등 다양한 유형의 소품들을 쇼룸에서 전시함
- 런던 쇼룸과 같이 사전 멘토링, 시장분석을 통해 파급력 있는 패션 콘텐츠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웨어러블 쇼룸을 기획함

[참고] 런던쇼룸(London Showrooms)

-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핫 한 영국 신진 디자이너들의 모임,
- 영국 패션 문화원(BFC) 의 후원과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전면적인 멘토링 체제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미니 쇼룸으로 파리를 비롯한 LA와 홍콩에서 매해 개최

- 또한 쇼룸을 배경으로 소규모 비공개 패션쇼 등을 운영, 입소문 마케팅의 중심에 있는 국내외 주요인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킴
- 쇼룸 기반 패션쇼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의 패션쇼 기획 등을 고려함

라) 기대효과

- 한복 등 국내 패션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IT를 적극 수용하는 기회 제공
- 트렌드 변화가 가장 민감한 산업분야인 ‘패션’과 트렌드 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IT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산업간 시너지 조성 및 국가간 기술교류를 실시
- 시베리아 도시 간 교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IC결합 패션쇼는 패션디자이너에게는 IT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또한, 관련 솔루션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T 업체에는 기술력 적용 산업군의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ACC 문화창조원, 광주CGI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기획

[참고] 웨어러블 패션 활용의 예

- 스마트링(Smart ring)(패션소품)
 - 키네틱(Kinetic)에너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반영구적인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색상변화 가능
- 스마트 벨트(건강기기)
 - 감지센서가 부착된 벨트를 착용하면 장시간 자세를 홀트리지 않도록 돕고 진동을 통해 경고를 전달 → 허리, 목 척추 건강 지원
 - 단순한 기능이지만 자세교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 어린 초등학생, 노약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
- 패션소품 내 모듈칩 탑재

- 목도리, 장갑, 가방, 지갑, 우산 등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소품 내 통신 모듈칩 탑재
- 사용자의 ID정보 및 제품번호(serial number)를 입력하여 소지품 위치를 파악

○ 스마트워치

- 플렉시블 OLED 장착 스마트 워치로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선택
- 고효율 태양광 충전기 등을 장착하여 에너지 효율성 높임

○ 스마트 콘택트 렌즈

-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으면 시력 측정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등 예방이 필수적인 난치성 질환을 사전에 감지
- 컬러 렌즈 기능까지 있어서 멋 부리기 좋아하는 20~30대, 눈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 아이템으로 제공

3) 이야기가 있는 홀로그램 콘서트 「유라시아 케이팝 스토리」

가) 사업목적

- 이야기가 있는 홀로그램 콘서트 기획, 운영의 일환으로 어메이징 광주 (Amazing Gwangju) 동구-시베리아 투어를 개최
- 시베리아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 중 특히 인기가 많은 케이팝을 활용하여 플로팅 홀로그램(floating hologram)을 활용한 콘서트의 기획 및 활용함
- 동구-시베리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서사구조를 지닌 콘서트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기획함
- 광주광역시가 현재 추진 중인 K-Pop 거리 사업과 연동하여 다양한 K-Pop 콘텐츠를 영상 홀로그램으로 재현하고 이를 토대로 시베리아 각 도시와 교류 추진

나) 주요기능

- 실제로 가까운 홀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우리나라 공연기술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내 많은 한류 팬들과 공연장 또는 무대에서 교류하는 기회 마련함

다) 주요내용

- 현재 에버랜드 내 케이팝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모티브로 동구 - 시베리아 연결되는 주요 도시에서 케이팝 콘서트 운영
 - 우선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투어 실시
 - 주요 정착도시를 중심으로 공연장 또는 콘서트장과 연계하여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를 기획, 운영
- 또는 운영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횡단열차 중 일부차량을 개조하여 상설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장으로 운영: KTX 영화차량과 유사

- 특정 아티스트 중심 또는 단일 기획사 주도에 의한 운영보다는 콘서트가 진행되는 시기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케이팝을 기준으로 레퍼토리 구성
 - 레퍼토리 제작 및 구성을 위한 사전제작사업을 추진
- 국내에서 사전작업을 진행하여 이미 만들어진 홀로그램 영상을 콘서트의 형식으로 시베리아 내 주요 공연장에서 운영함
- 이상의 사업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년 ‘단비 프로젝트’등에서 보여줬던 콘텐츠들을 제공받아 준비 가능함
 - 대형기획사 또는 제작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기술력은 이들이 일부 보존하되 지역 중소기업 컨소시엄이거나 ACC 공연과 연동하여 운영
 - 사업 기간 및 과제 평가 시기를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설정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특성을 반영

라) 기대효과

- 실제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콘서트는 아니지만 현재 실제 물체와 영상의 구분이 힘든 수준에 이른 만큼 투영된 영상과 무대 위에 있는 실제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서사적 구조를 가진 콘서트인 만큼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함
- CT를 중심으로 대형 기획사의 경쟁력있는 콘텐츠(한류의 중심인 아이돌 등)와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력을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물 유도함

마) 참고사례

(1) PLAY K-팝 in JEJU_홀로그램 콘서트홀

- 2015년 6월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문을 연 한류문화콘텐츠 상설전시관 ‘PLAY K-팝 in JEJU’는 소리섬박물관을 개조한 2,904㎡ 규모의 전시관에 홀로그램 콘서트홀, 스타 체험 침단 어트랙션, MD샵, K-팝 아카이브 등을 구축함



자료 : YG엔터테인먼트, 2015

[그림 4-3] 2NE1 홀로그램 콘서트

- 특히 이곳은 ‘얼굴 교체(Facial Replacement)’ 기술을 이용해 활동이 불가능한 아티스트(예 : 클론 강원래)나 K-팝 스타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해 콘서트로 즐길 수 있어 연1200만 내·외국인 방문객의 주목을 받음
- 이상의 전시장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유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원 불가능 아티스트의 가상공연을 위한 실사 촬영 수준의 디지털액터 및 홀로그래픽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과제가 구현된 결과임
- 주관사인 디스트릭트홀딩스는 YG엔터테인먼트, MBC 등과 함께 4억5000만 원을 출자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총 9억 원을 들여 사업화하는 데 성공함
- 특히 디스트릭트홀딩스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유 공모사업 지원대상자로 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 K-팝 홀로그램 콘서트를 제작함

다. 문화로 함께 발전하는 동구-시베리아

1) 온라인 기반 “유라시아 오픈 키친”

가) 사업목적

- 최근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트렌드와 부합하는 콘텐츠
- 최근 요리 기반 미디어 프로그램(요리채널의 개발, 요리 프로그램-요리 방법 전달, 요리경연 등)과 대중적 인기가 많은 경연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동구-시베리아 최고의 요리를 뽑는 프로그램임
- 하지만 단순히 요리하는 과정 또는 레시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의 배경과 주요 재료 소개 등을 통해 시베리아 각 도시의 식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함

나) 주요기능

- 시베리아 각도시의 다양한 역사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시의 민족성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함

다) 주요내용

- 기획단계에서 ‘알고 싶은 시베리아 각도시의 전통요리’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지역과 셰프를 섭외, 요리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를 각도시의 문화적 배경에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co-host인 문화평론가를 동시에 배석하여 요

리와 설명이 함께 있는 고급형 요리 프로그램 운영. 이를 온라인 기반 실시간 중계

-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사전 협의하여 시베리아 각도시를 순회하며 전통음식을 만들고 설명하는 ‘강연형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
- 요리인류와 같은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운영 축약본으로 기획하고, 또한 온라인 기반 중계 장점을 살려 실시간으로 각 도시의 시청자가 질문하는 것에 응답하고 대중에게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함
- 동구-시베리아 푸드 키친에 참여한 요리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올해의 동구-시베리아 요리’를 선정함
- 초기 전통요리에서 시베리아 퓨전요리로 프로그램 영역 확대함

라) 기대효과

- 의식주로 대표되는 생활문화양식의 기본인 ‘食’에 대한 이해를 요리(cooking)로 접근하여 시베리아 각도시의 요리와 음식 기반 문화다양성을 이해
- 대중적 흥미가 높은 콘텐츠인 요리 프로그램에 각 도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활용

2) 동구-시베리아 음악축제

가) 사업목적

- 공동된 언어(음악)를 통하여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상징 프로그램임
- 각 도시의 장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차원에서 지역 또는 도시별 전통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또는 관현악단 등이 참여함
- 개최도시의 국악원이 호스트가 되어 게스트(음악제에 참여하는 도시 소속)를 맞이하고 피날레는 연합 오케스트라(동구-시베리아 음악제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교류, 화합의 계기 지속 마련함

나) 주요기능

- 전 세계가 공유하는 선율(클래식)을 다양한 도시의 특성(악기, 음색, 무대의상 등 전체 비주얼)에 맞게 표현함을 통해 각 참가도시의 문화정체성을 발현함
- 무형자산인 클래식과 유형자산인 각도시 전통악기 등 문화적 유산의 결합을 통하여 전통 가치 및 시베리아 문화유산의 교차점을 확보하고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무대 콘텐츠를 구현함
- 다소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는 각 지역 전통악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그 전통을 유지, 계승하고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장치로 활용함

- 부대행사로 전 세계 전통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악기 및 음악을 보존하는 학술적 포럼 혹은 전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음악 외 타 장르로도 확산 시켜 문화 예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공유

다) 주요내용

- 음악제는 동구-시베리아 소속 도시들이 전통악기를 통해 (클래식)음악을 기반으로 기량을 겨룬다는 것을 의미함
- 격년제 순환개최
 - 순환 개최를 통해 동구-시베리아 도시 간 연결고리 강화
 - 시베리아 4개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시베리아를 연계하여 각 도시를 교차하여 개최
- 예) 2022 동구-시베리아 음악제 : 광주광역시동구(대한민국)
 2024 동구-시베리아 음악제 : 블라디보스톡(러시아)
 2026 동구-시베리아 음악제 : 이르쿠츠크(러시아)
- 개최 시기와 도시에 맞게 변동하되 테마를 선정하여 공통 레퍼토리와 자유 레퍼토리를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은 동일하게 진행
- 참여주체 및 주요대상
 - 각 도시를 대표하는 전통악기 활용 음악단체
- 예)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대한민국), 이르쿠츠크 전통오케스트라(러시아) 등
- 동구에서 열리는 광주광역시 대표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진행되는 공연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 2019 추억의 충장축제 주요공연프로그램

① 충장축제 아시안데이

- 주요내용 : 아시아 타 국가, 다문화가족 및 단체의 공연과 행사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 등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② 지역우수문화공연

- 주요내용 : 타 지역의 우수한 공연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뷰티헤어쇼, 한복쇼 등을 진행



③ 광주전남 국가무형문화재 특별공연

- 주요내용 :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광주·전남지역의 무형문화재 시연



④ 지역 문화예술그룹 공연

- 주요내용 : 70~90년대까지 대중문화를 주제로 하는 지역 문화그룹 공연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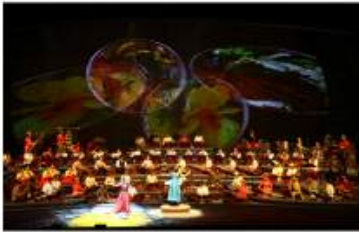
-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전통음악 중심의 공연으로 음악을 통한 지역의 연합을 표현함
- 음악을 통한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발현함
- 시베리아 각 도시의 음악적 역량을 홍보하고 교류하며 대륙 및 도시 간 이해의 기틀을 마련

마) 참고사례

(1)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 2009년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의 52종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결성 및 초연(서울, 광주)
- 창단 당시 한국과 아세안 작곡가와 음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전통악기들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전달함

- 창단을 위해 서로 소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주자들에게는 피로가 같은 전통 악기들을 연습 현장에서 직접 자르고 다듬는 일화는 유명함
- 이와 같은 페스티벌 준비 과정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시사점이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전경>

(2) 전주세계소리축제 '쇼팽&아리랑'

- 월드뮤직과 전통음악의 만남이 콘셉트
- '14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폴란드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음악계 예술감독과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쇼팽 음악과 아리랑을 재해석한 공연
- 양국의 예술가들은 6개월간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각자의 시각으로 쇼팽 음악과 아리랑을 재해석하였음
- 공연에서는 폴란드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새로운 아리랑과 우리 전통악기로 들어보는 쇼팽 음악을 제공
-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와 같이 각국의 전통악기가 모인 연합 관현악단 구성, 공연을 운영한 바가 있음



자료 : 전주소리축제 홈페이지(2015)



<'14 전주 소리축제 '쇼팽&아리랑' 공연 모습>

3) 동구-시베리아 도시 비엔날레

가) 사업목적

- 도시 즉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도시생활개선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예술행사를 기획함
- '예술로 도시 만들기'라는 행동 개념을 전제로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도시 환경개선, 도시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예술축제로 접근함
- 몇몇 작가의 전위적 현대미술작품에 의한 비엔날레가 아닌 생활공간이 예술공간으로 변화하는 '도시 속의 예술성 실현'을 목표로 함

나) 주요기능

-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예술과 문화교류'라는 슬로건 하에 도시 전체공간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획함

다) 주요내용

- 2년제로 동구-시베리아 각도시를 순회 또는 동시에 예술을 통한 공간재생에 기여하는 비엔날레 개최
 - 2년차는 작업의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1년차에도 도시 현안의 공유 → 공동의 가치설계 및 협의 → 프로젝트 표현방법의 연구 등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작업을 진행
- 도시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 도시 생활에 대한 즐거움 및 어려움의 공유, 향후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도시로서 성장 등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의 프로젝트임
-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기능 예) 청년예술가(미술가, 건축가 등)의 세계무대 진출의 기회 제공,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의 도시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천, 슬램화 또는 노후화 된 공공공간의 리노베이션에 기여함
- 일부 작가의 스타성 보다 도시맥락을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운영함
- 인문학자(도시역사에 대한 이해) + 시민(현재 도시생활의 주제) + 작가(도시 예술성 실현을 위한 표현 가이드)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해 이해(스튜디오)를 선행함
- 또한 일부 전문가, 작가, 행정관료에 의한 프로젝트가 아닌 시민 참여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축제로 운영함

라) 기대효과

- 작가 중심의 예술축제가 아닌 오랜 시간 시민과 준비, 호흡하는 지역민을 위한 축제로 자리매김함
- 특정 공간에서의 전시관람이 아닌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라는 콘셉트로 예술과 문화교류의 일상화를 추진함

마) 참고사례_비엔날레 붙임 프로젝트

(1) 타이포비엔날레 ‘도시문자 탐사단’

- 비엔날레 붙임 프로젝트 참고함
-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로 <타이포잔치 2015>의 주제는 ‘도시와 타이포그래피’임
- 2014년 10월부터 본 행사 이전까지 비엔날레의 주제를 공유하고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프리비엔날레 프로젝트’를 진행함
- 행사 개요
 - 행사명 : 타이포 잔치 2015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KCDF),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조직위원회 : 안상수(조직위원장), 김지현, 라르스 뮐러, 네빌 브로디, 서영길, 폴라 셰어, 왕쉬, 하라 켄야
 - 총감독 : 김경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자문위원 : 아드리안 쇼네시(자문위원장), 롭 지암피에트로, 피터빌락, 케서린 그리피스, 고토 데쓰야
 - 운영위원 : 구정연, 박성태, 정진열, 크리스 로
- 주요내용

① Pre-Biennale Project 1: 도시 문자 탐사단 City Type Exploration

- 서울이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문자 생산 장소, 문자 기억 장소, 문자 활용 장소 등 도시 속 문자를 소재로 여행하는 시각 체험 프로젝트

② 도시 문자 탐사단 버스 투어 City Type Exploration Bus Tour

- 문화역서울284에서 출발하는 버스 투어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시 속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체험
- 2014. 10. 20 월, 2~4 PM - 페이퍼 시티(Paper City) : 시각디자이너 김형재, 박재현(Optical Race)
- 2014.10.21 화, 5~7PM - 밤의 타이포그래피 : 건축가 강예린, 이치훈(SOA, Society OF Architecture)
- 2014 10.22 수, 2~4 PM - 서울이란 텍스트에 새겨진 거대 타이포그래피: 상가건축의 명과 암 : 건축 칼럼니스트 구분준(한겨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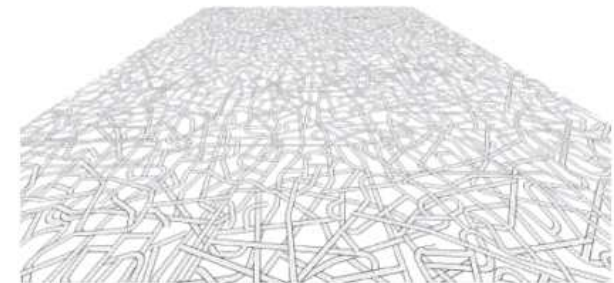
- 2014. 10.23 목, 2~4 PM - 프랜차이즈 패턴 행귀지 : 디자인 연구가 박해천(동양대학교 교수)

④ 사이사이 토크 Intertalks

- 2014. 10.24 금. 3~6 PM. 분당 네이버 그린 팩토리 커넥트홀
- 4일 간 진행한 ‘버스 문자 탐사단’의 리뷰
- 일본의 디자인 연구가 고토 데쓰야(後藤哲也)의 ‘옐로우 시티(Yellow City)’ 강연

② Pre-Biennale Project 2: 뉴스 레터 프로젝트 News Letter Project

- <타이포잔치 2015>의 주제인 ‘도시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작업, 컬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뉴스 레터 발행
- 2014년 10월부터 격월간으로 총 5회 발행 예정



Welcome to Seoul: 도시문자탐사단

서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시티투어 버스를 대신해 Welcome to Seoul: 도시문자탐사 버스투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15 타이포잔치의 프리비엔날레 프로젝트로 마련된 이 도시문자탐사 버스투어를 통해 네 편의...

WELCOMETOSEOUL.KR

자료 : 타이포잔치 2015: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페이스북

<타이포 잔치 2015: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참고] 동구-시베리아 도시 비엔날레 및 주요 행사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센터(가칭)의 출범

- 센터 운영조직은 이사회, 감사, 디렉팅 그룹, 기획운영 그룹으로 구분
- 이사회는 동구-시베리아 친선대상 국가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또는 주요인사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함. 단 행사의 고유성과 목적성을 지속하기 위해 이사회 총인원의 30%는 위임기간을 2년 연장 할 수 있음
- 이사회의 역할은 개최도시의 선정, 전문가 그룹 선정, 후원 협력사 영입 등 운영의 핵심역할 담당임
- 디렉팅 그룹은 행사기획을 총괄 집단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함. 단 협력큐레이터와 도시간 커미셔너는 총감독, 협력큐레이터로 연임 또는 제임 가능

- 기획운영 그룹은 문화교류센터의 운영, 교육, 구성, 홍보, 일반행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인력으로 구성
- 스페셜 그룹은 2년 임기직으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국에서 행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센터 조직구성안(예시)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센터(가칭)의 재원확보
 - 센터의 출범에 필요한 재원은 동구-시베리아 회원도시에서 지원하며, 후원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 개최지로 선정이 되는 도시는 개최 년도에 개최비용의 60%를 부담하며 나머지 40%는 참여도시에서 n분의 1로 부담
 - 파트너십(후원) 프로그램 개발, MD 상품개발, 교육상품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 상품 개발을 통해 고정수입을 확보

4) 동구-시베리아 미술축제(Dong-gu Siberian Art biennale)

가) 사업목적

- 각 도시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발전했을 시각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동구-시베리아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공간가변, 주제연계형의 미술전람회를 실시함
- 도시별 문화적 다양성의 공유를 통한 도시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나) 주요기능

- 시각예술이라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일반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중적인 참여를 확대함

다) 주요내용

- 운영시기 및 횟수 : 3월말 ~ 6월초(70일), 2년제로 운영
- 운영장소 : 동구, 이르쿠츠크, 하바로브스크 등을 순회, 개최
 - ※ 각도시의 개최 순서 선정은 2가지 방식 중 문화교류센터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선정
 - 1안) 동구-시베리아 이동 루트 동선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 2안) 공개경합을 통하여 최적의 개최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부터 개최
- 주제전은 문화교류센터 이사회와 총감독에 의해 매회 주제를 다르게 선정하여 기획함
 - ※ 특별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획
 - 유형1) 작가전
 - : 각 도시관을 총괄 기획하는 커미셔너가 중심이 되어 전시를 기획 운영
 - 유형2) 시민전
 - :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개최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 운영. 매회 선정된 주제를 서브 할 수 있는 소주제를 선정하여 전시의 통일성을 유지
- 교육 및 강연, 부대행사는 대표 주제를 서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함
- 참여주체(주요대상)
 - 시베리아 내 문화예술 전문가(작가,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평론가 등) 및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시민

○ 제1회 동구-시베리아 비엔날레의 구성개요

- 주제전시
 - 총감독 1명과 도시별 협력(공동)큐레이터 2명, 문화교류센터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작가선정
 - 전시 참여 작가는 총 50명으로 도시별 10명 내외의 작가 참여(장르제한 없음)
 - 주제 전시는 도시별로 작가를 구분하지 않고 장르와 전시공간, 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 특별전시
 - 유형1) 작가전 : 회의를 통해 선정된 특별전 주제에 맞춰 커미셔너 5인이 작가선정 전시참여 작가는 총 50명으로 각 도시별 10명의 작가 참여(장르제한 없음)

- 유형2) 시민전 : 협력(공동)큐레이터 1인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개최도시 시민기획자 3인이 도시(개최도시)의 (전통)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기획. 단. 시민이 참여하여 공간을 함께 꾸미는 참여형 전시로 기획

- 교육

- 연령별, 그룹별(가족, 친구 등) 명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 5개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체험 해 볼 수 있는 특별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기획

- 강연 및 부대행사

- 강연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구분하여 기획. 특히 일반 시민대상 강의는 대중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강연으로 기획
- 부대행사는 전시장 로비, 야외 공간 등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 특히 공연, 무용, 연극 등 타 장르와 협업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참고] 제1회 동구-시베리아 비엔날레의 구성개요

주제전	- 총감독 1인과 국가별 협력(공동)큐레이터 2인이 총3인이 기획 운영
특별전	- 작가전 : 참여국가관 특별전은 각 국가관의 5명의 커미셔너가 기획 운영 - 시민전 : 협력큐레이터 중 1인과 개최국의 시민기획자 3인이 공동기획 운영
교육	- 일반 관람(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 교육전담 에듀케이터 2인을 선발하여 기획 운영
강연 및 부대행사	- 일반 관람(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강연회 및 부대행사 진행

라) 기대효과

- 동구-시베리아를 대표하는 미술전람회로 성장하여 시베리아 미술분야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함
- 중앙아시아 도시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함

마) 참고사례

(1) 마니 페스타 비엔날레 : <http://manifesta.org>

- 개최국 : 네덜란드
- 개최년도 : 1996년
- 개최방법 : 유럽의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개최

네덜란드 로테르담(1996) → 룩셈부르크(1998),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0), 독일 프랑크푸르트(2002),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2004), 키프로스 니코시아 (2006), 이탈리아 트렌티노 사우스 티롤(2008), 북아프리카(2010), 벨리엘 림버그주(2012),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2014)



자료 : 마니 페스타 비엔날레 홈페이지



<제10회 러시아 마니 페스타 비엔날레 전경>

- 개최목적
 - 유럽 지역의 문화예술적 네트워크 구축
 -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연결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신진작가 발굴에 주력하고 있음
- 운영조직
 - 국제 마니페스타 재단 출범(이사회와 지명큐레이터 연합에 의해 운영)
 - 행사의 목적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행사 코디네이터와 다음 행사 큐레이터가 격년으로 이사회에 초청되어 전시를 기획 운영
- 운영방법
 - 개최를 원하는 국가가 마니페스타 재단에 신청하면 이사회의 현장방문 및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함. 최종 확정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
 - 단, 신청가능 지역은 유럽 전역의 도시, 지역, 섬 등으로 제한

IV. (가칭) “광주 동구 유라시아 교류센터”의 설치 및 역할 검토

1. 서론 : “광주 동구 유라시아 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 설치의 필요성

- ▷ 유라시아의 도시들과 교류함으로써 광주 동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동구 인문도시 기본계획(6대목표 중, 「포용하는 열린도시」)에서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 확보
 - 동구 청년·청소년들의 시각을 넓히고 미래 기회 선점
- ▷ 따라서, 위에서 살핀 동구의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교류센터”를 동구청 산하 행정조직으로 설치할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단/재단 또는 영리) 법인으로 설치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임 (위치는 동구 중심지역, 예컨대 문화전당 인근으로 함)
 - 교류센터의 설치 시기는 예산의 확보, 관련 부지 및 인력 등 기본인프라의 준비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2. 교류센터의 기능 및 역할

- ▷ 기능 개관
 - 동구와 유라시아 문화경제교류 방안 연구 및 시행
 - 유라시아 관련 정보제공, 서가운영
 - 유라시아 관련 강의, 심포지움 개최
 - 유라시아 탐험·여행객들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 (유라시아 횡단루트 여행 관련 교육, 사전체험코스 운영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 ▷ “교류센터”의 구체적 기능 내지 역할은 다음과 같음.

가. 교류의 방향 및 목적설정

- 사람·지식·문화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적·장르·가치를 초월한 열린 포용도시 구현을 위함.
- 청소년, 청년층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미래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함

나. 교류의 방법

- 1단계 : 행정조직간 우호협정 체결
- 2단계 : 민간단체간 교류, 문화예술인 공연 교류

- 행정이 지원하는 주민단체간 상호방문, 대학생·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경제교류

다. 주요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 교류

- 광주광역시 동구와 주요도시간 교류 방안 참조
- 조력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각 도시의 대한민국 영사관

라. 문화·체육 교류

-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중요
 - 유라시아 지역 문화인 초청 문화행사 및 광주공연단 파견 등 우호협약을 통한 상호 교류 공연
 - 학술 교류 : 광주 동구의 인문·문화자원과 위의 도시들의 민족·민속학 등 상호공유 강연 및 세미나 개최
 - 위의 도시들의 예술인과 동구의 예술인들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동구 음식점인들을 파견하여 한국음식 페스티벌 개최
 - 자매도시 간 시민 생활체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생활체육, 마라톤 등

마. 운영 내용 및 프로그램 예시

1) 유라시아 탐험·여행 관련 상설 전시관 운영

- 유라시아 횡단 관련 수집한 자료의 전시
- 탐험, 여행, 레저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재창조되는 플랫폼의 역할

2) 여행자 도서관

- 유라시아 관련 도서와 탐험, 여행, 캠핑 등 체계적으로 도서를 전시 및 판매하는 “유라시아 테마 도서관” 운영
 - 전시(탐험), 영화제, 강연(토론, 심포지움 등), 공연 등
 - 예) 탐험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정기적 명사 초빙 강연(전국 미디어 홍보)
 - 여행자 도서관을 통한 지속적 DB구축과 여행, 탐험의 장 구축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유라시아 문학제, 여행작가, 예비탐험, 캠핑여행객 정기모임, 후원회
 - 여행, 캠핑 연계 레저상품 개발 홍보(온.오프)

3) 여행자 카페

- 청소년, 청장년층, 동호회의 쉼터 및 만남·정보 교류 플랫폼 기지로서 역할하

고, 미래 비전 제시와 탐험(모험)의 동기부여

4) 기타 운영 내용 예시

- 콘텐츠 개발, 게임, 모바일, 탐험 프로그램 제작, 미디어아트 & 홀로그램
-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 모형세트(탐험과 지형 조감도)
- 탐험전시관 연계 레지던스 개발

바. 유라시아 지역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

1) 내 용

- 육로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주요 경유 도시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광주 홍보 사업을 펼치는 문화사절단

2) 프로그램

- 문화교류행사, 물류루트 탐사, 경제사절단 파견 등

3) 방문수단

- 육로를 통한 방문 : 유라시아 물류수단으로 고속도로를 통한 운송이 철도에 비해 갖고 있는 강점 부각.
 -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비해 빠름
 - 현재 고속도로 상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즉 더 자주 나타나는 주유소, 운전자숙소, 차량정비소 등에 의해 고속도로 상 운송은 더 편리하게 될 것임
 -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여행자들도 더 많아짐.

V. 휴먼네트워크 조성

1. 문화교류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유라시아 문화네트워크」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각도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교류 촉진문제를 폭넓게 협의함과 동시에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간 문화교류 증진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
- 즉 동구-시베리아의 지속적 교류 실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
- 각 도시민 간의 문화교류를 폭넓게 증진하여 동구-유라시아 공동체 관계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협력자로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사회에 공헌

나. 주요기능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를 위한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에 속하는 각도시의 문화교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선언적 사항이 아닌 실천적 사항으로 실행하기 위한 운영 주체로 기능
- 인적 자원 풀을 구성하여 동구-시베리아 관련 사업 진행 시 자문, 기획, 참여의 용이함을 확보

다. 주요내용

1)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협의회

- 각도시의 문화예술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세미나, 전시, 포럼, 축제 등 문화교류사업을 운영
- 문화적 소통의 기반으로 동구-시베리아 교류의 인적 허브역할 수행
- 공적 기능과 실제 사업진행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광주광역시 동구가 정책적, 행정적 책임은 전담하고 동구-유라시아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직접 기획, 운영, 보고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을 선정(위탁)하거나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 TF를 구성하여 직업 관리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2) 동구-시베리아 문화네트워크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정책 중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작가(창작직군), 학생, 행정가, 기타 민간인 등이 온라인 네트워크 등록에 참여
- 동구의 문화교류 정책 참여부서(문화관광과)가 조직하여 관리하며 타 부처 협의를 위한 온라인 채널에 대한 고려도 필요

라. 기대효과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사업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동구와 광주시의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증진
- 관리 및 운영주체 선정을 통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사업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 조사, 연구 및 정책적 건의 기반 마련
-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사업 관계자 교육훈련
-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사업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 동구-시베리아 문화예술교류사업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에 기여

마. 참고사례

1) 부산 인적 자원 지식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bhrdi.or.kr>

-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부산지식네트워크(BKMnet) 서비스
- 산·학·연 연계로 HR 개발 분야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양성 및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적자원 관련 지표개발 및 정보의 생성, 유통, 활용을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2. 동구-유라시아 문화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권역 및 도시 간 교류의 지속적인 요구를 전제로 현장투입이 바로 가능한 전문인력을 발굴 및 양성
- 동구-시베리아 권역별, 도시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획자 및 전문가 양성
- 민간영역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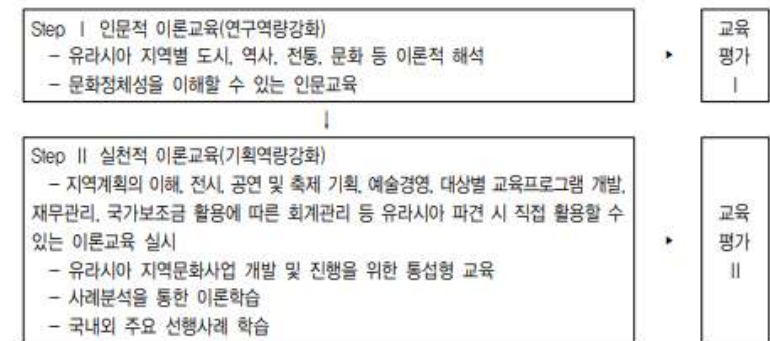
나. 주요기능

- 동구-시베리아 도시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다. 주요내용

- 연구역량강화
 - 동구-시베리아 권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기획적 배경으로 활용)을 동시에 교육

- 동구-시베리아 문화정체성과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등 통합적 시각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커리큘럼을 개발. 또는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서 반응이 좋았거나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커리큘럼은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연구자, 기획자에게도 제공
- 개인연구 뿐만 아니라 공동학습, 연구모임 역시 지원



<동구-시베리아 문화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의 예>

- 기획역량강화
 - 현장 실무형 교육 운영
 - 현장투입이 바로 가능한 행정역량, 예술역량, 장르(주제)특화로 교육과정 설계
- 예) 기획서의 작성, 재무관리, 홍보마케팅, 동구-시베리아 지역별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시베리아 지역별 에티켓에 기반 프로그램 기획, 대상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등

라. 기대효과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류 프로세스 관리자의 양성 및 확보 → 글로벌 인재 양성
- 전문인력 기반의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
- 현지 문화기반 교류활동 지원 및 이바지
- 동구-시베리아 지역 동향 파악

마. 참고사례

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전문인력(기획자) 공모 및 교육을 진행
- 목표 :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 기능 :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 배치될 문화예술기획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모집 개요(2015년 기준)
 - 공모 대상 사업: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전문인력(기획자)
 - 파견 기간: 2015년 ~ 2016년(10개월)
 - 선정 규모: 8인 내외
- 지원자격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면접 및 사전교육 참여 가능자)
 - 국제교류 또는 문화예술기획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국 언어 구사자 우대(영어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자 포함)
 - 각 현지 문화원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예, 지역민 참여형 축제의 기획, 전시 기획,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3. 동구-시베리아 대학생 문화교육진흥프로그램 「스키타이의 후예들」

가. 사업목적

- ‘스키타이의 후예들’ 프로그램은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동구-시베리아 도시 간 학생교육진흥프로그램(교환학생 프로그램)
- 많은 학생들이 동구-시베리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학생을 지원
- ‘스키타이의 후예들’ 프로그램의 취지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역량과 문화분야 전문가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음

나. 주요기능

-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해당 관심분야가 상대적으로 발전 된 도시의 멘토링과 시스템 경험을 제공
- 이론적 지식 교육과 더불어 실제 현장의 경험을 제공 가능한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다. 주요내용

-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문화경영 및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

-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그 외 다양한 학생교류프로그램을 포함
- ‘스키타이의 후예들’ 프로그램에 시베리아 5개 도시가 참여하여, 학생들은 대학 수업 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실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도록 함
- 스키타이의 후예들 참여 도시들은 각 도시에 체류 시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 제공
- 스키타이의 후예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요 도시와 기관은 학습(교육) 및 인턴(직장체험)을 연계하여 동시 진행
- 동구 학생의 해외파견(시베리아 도시)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학생의 동구 내 체류 역시 지원

라. 기대효과

- 시베리아 각 도시 학생들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도시별 문화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문화적 가교역할이 가능한 민간단위의 청년 문화외교력을 육성

마. 참고사례

1)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https://www.ggi.go.kr>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함께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강화를 목표로 운영
-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대학생과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세계로 확대하고 해외 기업 등에서 다양한 인턴활동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
- 본 프로그램에는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약 15,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6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연간 2,500여명을 선발
- 특히 특화분야 발굴 및 신증개발국 파견 확대를 전략으로 국가전략분야(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국제기구, 신증시장 및 개발협력분야 등)와 연계한 인턴 파견 기회 확대
- 지원자의 희망분야와 능력에 맞춘 파견국 및 파견 기업의 다양화를 수행
-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외국 지사 등 파견 기관 지속적 발굴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참가자가 현지 우수기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파견기업 역할 확대 및 사후활동 지원
- 기존 참가자, 유력인사, 기업담당자 등과의 멘토링제 실시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2015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VI.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기반구축

1. 문화교류 안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 사업목적

- 동구-시베리아 문화기관과 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연합을 통해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보고서’를 작성
- 보고서는 시베리아 문화교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 도시들의 문화적 환경, 잠재력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 간 문화적 교류 및 관계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
- 시베리아 문화교류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동구-시베리아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류계획 수립의 방향 및 계획절차를 설계

나. 주요기능

- 본격적인 시베리아 문화교류실행에 앞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방향 설계를 실시

다. 주요내용

- 보고서 대상도시로는 총 5개도시가 참여하고, 그 외에 전략적 협력도시 포함
- 보고서는 도시별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동구-시베리아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시베리아 지역 간 문화교류의 방향, 기구와 조직, 지속가능한 재정방안 등을 제시

- 공공부분, 민간부분, 도시 및 단체들간의 거버넌스 구축, 문화기자, 문화기획자, 작가들 포함한 문화분야 종사자들간의 교류 발안들을 제안
- 시베리아 지역 도시들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자원, 접근방법, 전략방법에 대한 폭넓은 조사
- 시베리아 문화교류를 위한 전략과 비전 도출, 전략적 방안을 수립

라. 기대효과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미래 예측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문화의제 발굴
- 동구-시베리아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성방향 설계

2. 동구-시베리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가. 사업목적

-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연구를 위한 문화적 패러다임의 소스 구축
- 지리적, 정치적 범주를 넘어 공식적 주제단위의 다학문적 접근에 대한 요구에 따른 문화정보공유 및 지식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연구단위	과거의 연구기반		새로운 패러다임
공 간	지리적 경계(지역)	→	탈영토적 주제(문화연구)
시 간	통시적 연대기(역사)	→	공시적 수평 주제 (현대사회현상과 기원)
연구자	개개인의 관심사항	→	집단 및 통합적 주제
문화유산	공연과 재현, 전시	→	공동연구와 연구결과물 상호 축적
협 력	정부주도 방문협력	→	지방자치제 조직 및 공동 연구기구 창설
동 기	정책적 요구	→	통상 및 문화교류의 요구
시 각	서구기반의 간접연구	→	국내 연구자의 직접 연구와 현지조사
접근방법	단일학문(분절아카데미)	→	다학문적, 통합적, 실천적 모델 창조
연구결과물	개개인의 자료소장	→	통합적 관리 및 오픈 소스 자료원

자료 : 김석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의 미래 : 3세션 사회문화분야, 2014 재구성

<인문학적 공식적 새 연구단위 예시>

- 국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당 기관이 소장 또는 생산하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본 사업에

서 주장하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국제사회의 선진적 논의를 바탕으로 ‘Open Archives’ 또는 ‘Liked Open Data(LOD)’라고 하는 개방과 공유를 지향(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나. 주요기능

- Open Archives
 - 아카이브 기능을 가지는 기관(Institutional Repository)들이 표준적인 메타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장소와 조직의 경계에 구애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Linked Open Data(LOD)
 - 디지털 자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기술
 - 인터넷 상에 유관한 자원들로 엮어진 광대한 의미망을 형성

다. 주요내용

1) 문화지형도(Cultural Topography) 구축

- 과거유산, 현행문화산업, 미래적 의미에서의 자료축적을 통합적으로 구성
- 각 도시의 문화교류 정책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홈페이지 및 관련 온라인 소스에 접속할 수 있는 지형도 구성
- 자치단체 위주의 구축을 진행하되 실질적 소비는 시베리아 자료 및 연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2) 동구-시베리아 문화유산 디렉토리 북

- 시베리아 도시별 주요 문화자산(과거/현재/미래)을 구분하여 편람자료 구성
- 각 도시의 문화유산 담당 행정(정부)-통합 연구진-민간의 공동체체로 디렉토리 북 팀을 구성하여 운영
- 전자북의 형태로 통용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고려
- 시베리아 디지털플랫폼의 실질적 결과물

라. 기대효과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기록의 보존 및 관리
- 소유가 아닌 공유의 아카이브, 배타가 아닌 이해의 아카이브, 유물이 아닌 공동감 있는 지식으로서의 아카이브 형성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의 지식자산의 수집 및 접근 채널 일원화
 - 단편적 개별화보다는 연계를 통해 의미있는 정보들의 생산 및 재구성
- 동구-시베리아 도시별 지식정보화 사업으로 시베리아 문화에 관한 영역세어

같은 지식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흐름에 기여

3. 필요 시설 건립 검토

가. 검토 내용

1) 유라시아 문화인류학 박물관 건립(동구 내)

가) 사업목적

- 시베리아 문명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형성, 교육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
- 우리 문화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국가 및 민족에 대한 문화원형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을 의미
- 동구-시베리아 공동체에 대한 가치, 생활양식 등 ‘공동체’라는 단어에 무조건 묶이기에 한계가 있는 사안, 즉, 타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개방적 자세로 수용하고 우리의 문화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장의 마련

나) 주요기능

- 시베리아 각 도시들의 역사, 세계 및 민족관, 의식주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양식, 가족과 사회구성원, 언어, 종교, 예술, 기술 등 생활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마련
- 시베리아 문화에 대한 대중적 환기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다) 주요내용

- 시베리아 각 도시의 고고학 유물과 민속 유물, 현대 미술품 소장
- 단순 수장고가 아닌 서사구조가 있는 전시공간 기획
 - 시베리아 고대문화 이해를 넓히는 상설 전시실과 교육 체험실
 - 시베리아 문화정체성의 근간을 체험하고 융합을 실험하는 기획 전시실
- 시베리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연이 있는 배움터로 활용
- 시베리아 공동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료-초원길, 알타이어, 시베리아 문화 등을 조사·수집·보존하는 연구와 방대한 자료를 온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는 디지털화 수행
- 시베리아 문화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각종 교류기회

를 확대 마련

- 시베리아 문화인류학 박물관은 시베리아 전역의 민족사를 보여주는 10개의 전시실이 배치
- 타 국가의 인류학박물관과의 차이점(예, 영국 대영박물관, 파리 박물관 등)은 대부분의 세계적 명성을 지닌 유명한 박물관의 전시 유물이 '약탈의 역사'를 거쳐 완성 된 것이라면 시베리아 인류학박물관은 현지도시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운영하는 박물관임

라) 기대효과

- 시베리아 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고 국가간, 도시(지역)간, 민족간 상호이해 및 존중의식을 증진
- 시베리아의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한 자리에서 이해하는 학습의 장 마련

마) 참고사례

(1) 멕시코국립인류학박물관 <http://www.visitmexico.com>

- 1964년 개관한 인류학박물관
- 멕시코의 저명한 건축가(Pedro Ramirez Vazquez)의 작품으로, 인디오 주거 양식과 현대 건축 양식을 혼합해 1, 2층으로 설계
- 1층은 선사시대아스텍 문명까지의 유적을 전시한 12개의 전시실이 있고, 2층은 멕시코 전역의 민족사를 보여주는 10개의 전시실이 배치
- 멕시코국립인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모두 60만 여점으로 그 중 1만개의 유물은 진품
- 타 국가의 인류학박물관과의 차이점(예, 영국 대영박물관, 파리 박물관 등)은 대부분의 세계적 명성을 지닌 유명한 박물관의 전시 유물이 '약탈의 역사'를 거쳐 완성 된 것이라면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은 멕시코의, 멕시코에 의한 박물관 임. 이는 문화인류학박물관을 계획하는 타 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됨
- 대규모 및 다양한 구성으로 전시물을 모두 살펴보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문객의 시간이 한정적인 경우, 하이라이트 전시관(5번 전시실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7번 전시실 아스텍(Aztecs), 10번 전시실 마야(Maya))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문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

2) 동구-유라시아 문화의집 조성

가) 사업목적

- 시베리아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 시베리아 문화교류를 통해 생소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베리아 권역 내 문화를 만나고(국민의 문화수용성 증대)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DB 구축의 장으로 활용
- 동구 주민, 동구 거주 외국인, 광주시민,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교류와 소통강화를 위한 체험의 장을 표방

나) 주요기능

- 커뮤니티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문화정체성을 발견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간
- 동구민, 광주시민,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베리아의 다양한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행 공간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한국 체류에 필요한 생활문화와 관련 양식을 제공
- 시베리아 문화예술인과 단체에는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장으로 장소대관, 출연자 섭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총괄센터 역할 수행

다) 주요내용

- '세계문화의 집 건립'의 확장형으로 시베리아 권역의 문화교류 및 협력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
-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드웨어 구축
- 시베리아 내 다양한 문화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국인 및 관광객 대상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일부 전문가 또는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생활밀착형 문화체험공간으로 접근
- 다문화 체험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 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품격 높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 또한 국내 개최 국제문화교류사업의 해외 아티스트 섭외 및 초청, 국외 개최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국내 아티스트 파견 등을 진행
- 동구 및 시베리아 지역 내 예술활동을 추진하는 국내외 예술가 및 단체를 위한 허브로 기능

라) 기대효과

- 내국인, 관광객,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 지역밀착, 생
활밀착형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
- 문화정책성과 문화다양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지역거점
- 일방적 문화교류정책과 특정계층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마) 참고사례

(1)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Haus der Kulturen der Welt

-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은 세계문화예술을 독일 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드웨어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및 연구, 교육프로 그램의 일
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1997년부터 홀수년도 프로그램 운영
- 문화 간의 협력과 재연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최우선으로 함
-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의 프로그램은 현대 예술과 현재 발전하고 있는 아프리
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세계의 예술과 문화에 집중. 특히 소위 ‘비
유럽문화’라 불릴 수 있는 제3세계의 문화예술을 공연하거나 관련 전시회를
개최
- 2005년에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
인 아시아 예술가들을 조명



출처 : 구글 이미지 2015



<베를린 세계문화의집 전경 및 한국 초청 프로그램(한국영화제) 포스터>

VII. 문화교류 외 기타 교류 방안

1. 경제 교류 사업

- ▷ 유라시아와의 교류 중 가장 후순위로 추진. 유라시아와의 문화학술 교류를 하면서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네트워크 구축

- ▷ 경제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하여 광주팸투어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 상호 수출입이 가능한 상품 내지 자원의 개발
 - 상설 경제교류 센터 내지 상품 전시장 개설
- ▷ 유라시아 팸투어 등 문화관광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2. 유라시아 진출 내지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거나 정부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제교류전문가 양
성과정을 운영한다 : 해외 자매도시 인턴쉽 교류(광주-유라시아 주요 대학의 학생
과 인턴쉽 파견 및 교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인턴쉽 파견, 재외공관/국제기구
인턴쉽 파견)
- ▷ 연계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카데
미 개설 :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료 이후에는 실질적
인 취업 또는 국제기구 인턴쉽으로 연계 지원
- ▷ 조선대학교와 협력하여 유라시아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위켄드(Startup
Weekend) 또는 창업캠프에 광주 지역 청년을 파견하여 글로벌 창업 지원·육성
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
- ▷ 조선대학교와 협력하여 광주 대학생들을 유라시아 도시에 파견하여 창업대회 참
가 등에 참여시켜 글로벌 창업 인재 육성

3. 유라시아지역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사업 및 의료관광단 유치와 팸투어

- ▷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 현황
 - 광주광역시 의료관광협회
 - 광주의료관광 지원센터 설립운영중
 - 건강검진 후 축제,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중
- ▷ 조선대 및 전남대 병원과의 협력 방안 모색
- ▷ 광주광역시의 관광산업활성화방안과 연계
 - 광주광역시의 러시아 관광시장 개척(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 사업설명회, 업
무협약

제5절 결론 및 향후과제

I.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요약

1. 프로그램 구성

- ▷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포함한 23개 사업의 교류방향, 국내 기준 운영 및 관리주체, 주요 참여대상은 다음 표와 같음
- ▷ 운영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분, 민간부분 등에서 담당하고, 운영주체는 콘텐츠 R&D 단계임을 고려하여 신설조직을 포함하여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
- ▷ 참여대상의 경우,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과 서비스 대상자를 함께 고려하여함

프로그램명	참여도시	운영주체	참여대상
시베리아 문화원정대	동구 - 시베리아 주요 도시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협의회 (신설)	전문가 (탐험가) 일반인
시베리아 타운홀 미팅			일반인
시베리아 문화대전			전문가 (행정) 전문가 (영상, 문화인류학)
동구-시베리아 교류포럼			일반인 전문가 (문화인류학)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일반인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전문가 (IT, 문화인류학)
웨어러블 패션쇼츠 @충장-시베리아			전문가 (IT, 문화인류학 등)
유라시아 케이팝 스토리			전문가 (음악)
유라시아 오픈 키친			일반인 전문가 (문화인류학)
시베리아 음악축제			일반인 (음악) 전문가 (음악)
동구-시베리아 도시 비엔날레			전문가 (미술)
동구-시베리아 미술축제			전문가 (미술)

동구-유라시아 교류센터 설치			일반인 전문가
동구-유라시아 문화네트워크			일반인 전문가
유라시아 문화전문가양성			일반인
스키타이의 후예들			전문가 일반인(청년)
동구-유라시아 문화인류박물관			전문가 (문화인류학)
동구-유라시아 문화의 집			전문가 일반인
경제교류사업			사업가
청년일자리 사업			일반인(청년)
의료 관련 교류사업			사업가

2. 연차별 운영계획

- ▷ 프로그램 운영은 10년을 기간으로 중장기적 발전계획이 필요함
 - 기반구축단계(2021년~2023년, 3개년)
 - 활성화 및 확산단계(2024년~2027년, 4개년)
 - 정착 및 안정화단계(2028년~2030년, 3개년)
- ▷ 기반구축 단계
 - 주로 사업타당성검토 및 기획단계로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프로그램 종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
 - 또한 인적 자원 확보 및 운영주체의 구성, 공동의 아젠다 형성이 기반구축단계의 주요 사업임
- ▷ 확산 및 활성화 단계
 -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실행단계로 각종 교류사업 및 행사, 축제를 중심으로 동구-시베리아 공동체 조성의 윤곽을 드러냄
- ▷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기존 사업의 평가, 환류를 통해 수정 및 보완단계로 초기 계획에 비해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 공고화

구 분	1단계 기반구축 2021~2023	2단계 확산 및 활성화 2024~2027	3단계 정착 및 안정화 2028~2030
1. 문화정체성의 이해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 포럼			
미래를 향한 동구-시베리아 프로젝트			
동구-시베리아 문화대전			
동구-시베리아 어린이 문화원정대			
동구-시베리아 타운미팅			
2. IT 기반 융합형 콘텐츠 개발			
어메이징 케이팝 @ 동구-시베리아			
웨어러블 패션쇼룸 @ 동구-시베리아			
동구-시베리아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3. 대중문화행사의 다양화			
동구-시베리아 도시 비엔날레			
동구-시베리아 비엔날레			
동구-시베리아 음악축제			
동구-시베리아 푸드키친			
4. 교류핵심시설 설치			
동구 유라시아교류센터 설치·운영			
5. 휴먼네트워크의 조성			
동구-시베리아 문화교류협의회			
동구-시베리아 문화네트워크			
동구-시베리아 문화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스키타이의 후예들			
6.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기반구축			
시베리아 문화인류박물관			
시베리아문화의집			
7. 기타 사업			
경제인사 초청 팸투어 등 경제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 인턴쉽 등 청년일자리사업			
유라시아 의료사업 및 의료관광단 유치			

II. 결론

- ▷ 광주 동구가 거점 내지 중심이 되어, 넓게는 광주·전남, 좁게는 광주 동구가 갖고 있는 경제적·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라시아와의 경제적,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큼.
- ▷ 특히 인문도시를 포방하고 있는 광주 동구로서는 유라시아의 문화인류학적, 경제적 가치를 살려 행정·문화·경제적으로 상호교류하여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지평을 넓혀감으로써 동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 우선 유라시아지역 중 광주 동구 내지 광주·전남과 문화적 내지 산업 환경이 유사한 지역을 발굴하여 상호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임.
- ▷ 이에 따라 유라시아 교류센터의 설치 등 유라시아 교류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동구(東區)의 정책적 의지 및 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함.
- ▷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사업은 광주 동구(東區)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기타 민간단체 등의 참여와 협조가 요망됨.

[참고 1] 러시아의 연방주체 (Federal subjects of Russia)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과 거주 주민에 의해서 구분된 85개의 연방주체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주체에는 지역 구분에 의해서 정해진 ① 주, ② 지방, ③ 연방시, 러시아인 이외의 민족 거주지역으로 설정된 ④ 공화국, ⑤ 자치주, ⑥ 자치구가 있음.

- ① 46개 주 (область; oblast) - 가장 일반적인 행정 구역으로, 연방이 임명한 주지사와 선거로 뽑힌 의회가 있음.
- ② 9개 지방 (край; kraj 또는 kray) - 주와 비슷하지만, 좀 더 외진 곳에 있고, 인구도 적음.
- ③ 3개 연방시 (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federalny gorod) - 독립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
- ④ 22개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respublika) - 공화국은 각각의 헌법, 대통령, 의회가 있음. 외교는 연방 정부가 관할하며, 각 소수 민족별로 존재한다.
- ⑤ 1개 자치주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avtonomnaya oblast) - 유대인 자치주
- ⑥ 4개 자치구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avtonomny okrug) - 자치권이 공화국보다는 적고, 후보다는 많음.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이 많이 살고 있음

참고문헌

[논문]

- 박현봉(2013), 「트루베츠코이(N.S. Trubetskoy)와 유라시아주의」
- 김기선(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몽골 초원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실�크로드연구센터·김장실국회의원실·홍영표국회의원실
- 이지은(2015),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건설과 민족주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보고서]

- 『실�크로드 문화창조 융합전략 포럼』, 경주세계 문화엑스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의 미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앙아시아경제학회(2014)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산업은행 (2015)
-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색』,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2014)
-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라시아연구산업단(2010)
- 『실�크로드 문화창조 융합전략 포럼』, 경주세계문화엑스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 블라디보스크 대한민국총영사관·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사업단
- 『한-러 극동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외정책연구원(2014)
- 『중앙아시아의 시장 특성과 공략 방안』, 포스코경영연구소(2013)
-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2009)
- 『한국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국 문화코드 연구:드라마를 중심으로』, KOCCA(2010)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변화와 정책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 『노어노문학』, 한국노어노문학회 제26권 제3호(2014) 주 몽골대사관(2015), 『몽골 철도인프라 계획 및 자원개발 현황』
- 외교통상부(2012), 『타지키스탄개황』
- 외교부(2013), 『2013 러시아개황』
- 외교부(2013), 『2013 터키개황』
- 외교부(2014), 『2014 카자흐스탄개황』

외교부(2014), 『2014 우즈베키스탄개황』

외교부(2014), 『2014 투르크메니스탄개황』

외교부(2015), 『2015 몽골개황』

통일연구원(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보도자료]

‘유라시아 경협 및 기업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 : 제1차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1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축 본격 시동, 국민일보, 2014. 10. 7

‘푸틴의 야심, 옛 소련 경제동맹 가속’, 한국경제, 2013.12.26

‘세계인구 31.5%, 기독교 인구 22억 명으로 최다’, 중앙일보, 2013.1.8

[해외자료]

Basingstoke: Palgrave MacMian(2012), Eurasian Integration:Challenges of Transcontinental Regionalism

Foreign Ministry(2009), 89,000 minorities live in Turkey Today's Zaman

[인터넷 사이트]

러시아연방 통계청 공식사이트 www.gks.ru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www.ichap.org

중국 인구분포 프로파일 www.indexmundi.com

중국 내 언어 분포도 <http://clab.snu.ac.kr>

국제에너지 www.iea.org

세계에너지전망 www.worldenergyoutlook.org

몽골통계청 www.nso.mn

외교부 www.mof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미래창조과학부 www.misp.go.kr

경주세계문화엑스포 www.cultureexpo.or.kr

이스탄불 in 경주/부산/서울 www.istanbulinkorea.com